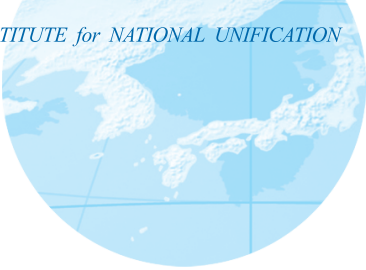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4호 (2014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4호 (2014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7 July 2014

① 주차_07.01-07.06

1. 대남	9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1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7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9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23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② 주차_07.07-07.13

1. 대남	29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4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38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43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47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③ 주차_07.14-07.20

1. 대남	53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58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64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67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71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④ 주차_07.21-07.27

1. 대남	77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82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88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94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98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⑤ 주차_07.28-07.31

1. 대남	103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07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12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15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18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Contents

8 August 2014

① 주차_08.01-08.03

1. 대남	123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25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27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30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33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② 주차_08.04-08.10

1. 대남	137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42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47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52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57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③ 주차_08.11-08.17

1. 대남	163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69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인쇄: 2014년 8월 발행: 2014년 8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에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3. 대내 정치	176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81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85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④ 주차_08.18-08.24

1. 대남	19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97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201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204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207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⑤ 주차_08.25-08.31

1. 대남	21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215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221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225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후속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230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7월 일지 / 234

■ 8월 일지 / 23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01-07.06

7월

1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특별제안’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 부각(7.2~4)
- 시진핑 방한 하루전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7.2)
- 4일 상륙훈련 때 스파이크미사일 진지타격(7.6)

2. 핵문제 및 외교

- 중국, 北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7.2)
- 日 ‘고노담화’ 검증 비난(7.3)
- 남치문제 특별조사위 활동 개시(7.4)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섬 초소 시찰(7.1)
- 김정은 黨 제1비서, 동·서해함대 지휘관 수영 훈련 참관(7.2)
- 김정은 黨 제1비서, 軍도서상륙훈련 참관(7.5)

4. 경제

- OHCA,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작년 절반 수준(7.2)
- 중국 창춘-평양 관광 전세기 운항 개시(7.2)
-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 돌입(7.4)

5. 사회

- 英 정부, 북한 내 영어교육프로그램 2017년까지 연장(7.3)
- 칠보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7.3)
- 일부 지방 가뭄 지속돼 농업부문 심각한 영향(7.3)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7·4 공동성명 정신 강조하며 ‘특별제안’ 부각(7/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5면 전면을 할애해 7·4 공동성명을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라고 강조하며 3대 통일 원칙을 자세히 소개함.
 - 신문은 ‘조국통일의 근본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이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이룩돼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지향이고 한결같은 의지”라며 공동성명 정신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특별제안’은 남북관계 개선 절호 기회”(7/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국방위 특별제안,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실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특별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언급하며 “제안에 깃든 의도를 진지하게 고려함 없이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함.
 - 조선신보는 남측의 태도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일본과 비교하며 “이는 남측이 낡은 질서에 얽매어 북남관계를 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北 “南은 의심만 하지 말고 화해의 손 맞잡아야”(7/3, 노동신문)
 - 노동신문 3일 ‘단호한 결심, 우리 민족끼리 립장의 발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특별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남측에 대한 비난보다는 특별제안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며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주력함.
 - 신문은 “특별제안에는 어떻게 하나 꼬일대로 꼬인 불신과 대결의 매듭을 풀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려는 우리의 진심과 애국애족적인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며 “우리의 성의와 아량이 어린 특별제안은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시진핑 방한 하루전 단거리 발사체 2발 또 발사(7/2, 연합뉴스)
 -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하루 전인 2일 오전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북한이 지난달 26일 발사한 발사체와 유사한 것을 오전 6시50분과 8시에 동해상으로 1발씩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사거리는 180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함.
- 北, 4일 상륙훈련 때 스파이크미사일 진지타격 포함(7/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북한이 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도서상륙훈련에는 백령·연평도에 배치한 스파이크 미사일 진지도 타격 목표에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힘.
 - 뉴스는 “북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에 맞춰 동해 안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훈련과 도서상륙훈련을 기획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러나 훈련 장소를 동해로 선택한 것은 그나마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경기도 4년 만에 대북지원…산림병충해 방제약품 전달(7/5, 연합뉴스)
 - 경기도는 5일 “오는 18일께 개성으로 방제약품을 운송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통일부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다음 주 중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포스팜 2만 8천800 ℓ, 동력천공기 126대, 약제주입기 252개를 전달하고 솔나방과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용으로 클로르푸루아주론 유제 3천500 ℓ, 연무소독기 35대, 확산제 5만 2천500 ℓ 를 지원하며, 방제지역은 경기도 옛 지역인 황해도와 평양 대성산, 묘향산, 금강산 일대 7천100ha에 달한다고 뉴스가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중국, 北미사일 발사에 “정세완화 도움되는 일 하라”(7/2,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관련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신문 “발사체 발사는 자주권 행사” 거듭 주장(7/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자위적 조치를 시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판한 데 대해 “우리의 혁명무력이 로켓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은 우리의 영해에서 벌어진 정상적인 것으로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권리 행사”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위협과 도발의 원흉”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로켓 발사를 걸고들며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 데는 지역 정세 악화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들씌우고 그 뒤에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흥계가 숨어 있다”고 비난함.

● 北, 日 ‘고노담화 검증’ 비난…“수치를 알아야”(7/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일본의 수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3년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1995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거론, “과거 죄악에 대해 어느 정도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수치를 조금이라도 씻고 개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다행스러운 계기였다”고 평가함.
- 신문은 그러나 일본이 최근 고노담화 검증 결과라는 것을 발표해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서나 회피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며 “검증이요 뭐요 하는 것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종당에는 고노담화를 부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공정한 국제질서 위해 반제 투쟁해야”(7/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진보적 인류의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류 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美 국무부 “北 억류 관광객 2명 인도적으로 석방해야”(7/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2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해 달라고 30일(현지시간) 미국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파울 씨와 밀러 씨의 가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들 두 관광객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적대행위 혐의들에 근거해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 北 “美 시비질해도 전술유도탄 계속 발사할 것”(7/3,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전략군 대변인은 3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이 제아무리 시비질을 해대도 우리의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들은 못되게 놀고 있는 날강도무리들의 아성을 목표로 쉬임없이 기운차게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훈련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우리의 초정밀화된 여러 가지 화력타격수단들의 소멸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당당한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日, 오늘 국장급협약의…납치조사·제재해제 논의(7/1, 교도통신)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서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함.
- 북한은 남북 일본인에 관해 전면 재조사를 시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일본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함.

● 조선신보 “北日 합의, 동북아 냉전구도 청산 계기”(7/1, 노동신문)

- 조선신보는 1일 ‘격동의 동북아시아, 북일 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베이징,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을 거쳐 발표된 정부 간

합의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허점을 뚫고 탈냉전의 새 질서를 확립하는 단서를 열어놓았다”며 “북일 정부 간 합의는 동북아시아의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직격탄”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이면서도 북일 사이에는 국교가 없다”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 비정상적인 관계는 이제껏 청산되지 못한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함.

● “일본, 대북제재 일부해제 4일 각의 결정”(7/2, 산케이신문)

- 일본 정부는 3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 예정이며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인적왕래 규제, 송금·현금반출 규제, 인도적 선박 왕래 규제 등 3가지 독자 제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일 전함.
- 신문은 전날 4시간 반에 걸쳐 열린 북일 협의에서 일본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균이나 당 등 전 조직을 조사할 강한 권한을 지녔는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설명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해제를 고려 중인 제재의 내용에 관해 북한에 설명했다고 덧붙임.

● 北 대변해온 조선신보가 본 ‘동북아 외교전’(7/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북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북일 간 ‘스톡홀름 합의’ 발표를 전후로 동북아에 질서재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동북아 외교전’을 분석함.
- 조선신보는 북한이 동북아 질서의 새판짜기 중심에 있다면서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기존의 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대북정책도 엇갈리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는 입장을 내놓음.

● 日 대북제재 일부해제…인적왕래 허용·송금규제 완화(7/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 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임.

- 또한 아직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전세기 입항금지, 만경봉호 입항금지 등 일본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북한이 즉각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뉴스가 전함.

● **北, 납치문제 특별조사위 활동 개시…위원 명단 발표(7/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7월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사업에 동원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밝힘.

● **北, 日 납치문제 해결에 ‘파격적’ 의지 과시(7/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일본 측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인다”고 명시해 사실상 공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또한 일본 측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에는 납치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일본 당국자의 방북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북한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함.

사. 대러시아

● **北, 러시아와 전방위 유대 과시…中 ‘견제’하나(7/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경제를 넘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게 유대를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6월 25일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국방부 중앙군악단은 같은 달 30일에는 강원도 원산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공연한 사실을 노동신문은 1일 이들의 원산 공연을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함.

아. 국제기구

- “‘돈세탁 위험국’ 北,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 논의”(7/1, 미국의소리 (VOA))
 - 북한을 ‘돈세탁 위험국가’로 지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북한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FATF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돈세탁 위험국가’로 재지정된 지난 2월부터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FATF와 직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駐北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을 위한 영화감상회, 7월 3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7.3,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 대표단 「총련」 일꾼 및 노간부 대표단·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표단·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대표단 등, 7월 5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7.5,중앙통신)
- 베트남 노동총연맹 대표단, 만경대를 방문하고 주체사상탑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인민대학습당 등을 참관(7.6,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훈련에 대한 미국무성 부대변인 발언 관련 ‘주권 국가의 자주적인 권리행사’라며 ‘앞으로도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며 로켓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더욱 발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7.6,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동해안 섬 초소 시찰…“난공불락 요새 만들라”(7/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의 섬 초소인 화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방어대를 찾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화도방어대는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의 방어 전역에서 전초기지이며 당중앙의 프락(뜰)과 잇닿아있는 동해관문의 전초선”이라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1일 감시소에 올라 군부대의 섬 방어계획을 검토하며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영해에 기어드는 원수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검푸른 바닷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동·서해함대 지휘관 수영 훈련 참관(7/2, 조선중앙통신)**
 - 6월 말부터 연일 군 시찰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군 지휘관들의 수영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 판정훈련을 지도했다”라며 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해군 지휘관들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된 지휘성원들로 준비시키고 해군부대 안에 수영훈련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軍도서상륙훈련 참관…“NLL해역 위협받아”(7/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육해공 군인들과 각종 구경의 포, 잠수함 등 군함,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 편대의 섬 상륙훈련을 지켜보고 “얼마 전에도 적들이 갈겨댄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음을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이어 “(나는) 이를 매우 엄중시하고 단단히 버르고 있다”며 “원수들이 열점수역(NLL 지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 번 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신문, 김일성 20주기 앞두고 “김정은 받들자” 촉구(7/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주장함.
- 北, 김일성의 ‘조선총련 사랑’ 새삼 부각(7/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 주석이 1971년부터 북한과 일본을 오간 만경봉호의 건조 당시 배의 설계부터 식당 메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며 “아버이 수령님의 이토록 뜨겁고 다심한 손길에 의해 만경봉호는 첫 출항 후부터 수 십 년 간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조국 왕래를 보장하는 사랑의 뱃길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강조함.

- 김일성·김정일 영도 업적(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 지위, 강성국가 건설의 새 시대 등) 칭송 및 ‘김정은 영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쏘민의 ‘김정은에 충성’ 강조(7.2, 중앙통신·노동신문)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차수), 7월 2일 럽철성(육군 중장) 등 배석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 주요 지휘성원·배우들 면담 및 ‘김정은의 축하 인사’ 등 전달(7.3,중앙통신·중앙방송)
-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회고모임, 7월 4일 최룡해(당중앙위 비서)·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7.4,중앙통신)
- 北 김정은, 日 출신 100세 할머니에게 생일상(7.4,중앙통신)
- 김일성 사망 20돌 즈음 ‘인민무력부 위대성 발표회’, 7월 6일 진행(7.6,중앙통신)
- 「조국전선」중앙위 비망록(7.6), 김일성의 마지막 친필 20돌 즈음 ‘조국통일 성업에 쌓아올린 민족사적 대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비망록을 발표한다’며 ‘김정은 영도 따라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자고 선동(7.7,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시장경제 배우자’는 北…학술지에 ‘증권’ 소개(7/2, 정치법률연구)
 - 학술지 정치법률연구(2014년 2호·6월 14일 발행)는 2일 ‘증권 발행의 본질과 분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인 증권을 자세히 소개함.
 - 논문은 ‘국제 경제 교류를 위해 다른 국가의 경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침을 인용하며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벌이자면 이들 국가의 증권법이 규제한 증권 발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기름부족 北 “나무에서 식용유 뽑자”(7/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에서 수유나무(쉬나무)림 조성에 힘을 넣고 있다”며 “각지 해당 기관들에서는 수유나무림 조성을 위한 전망도와 지역별 분포계획을 세운 데 기초해 조성사업을 균중적으로 내밀고 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일본기업 북한 진출 요구”(7/1, 마이니치신문)

- 1일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그간 진행된 북일 협의에서 양측의 인적 왕래를 막는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일본에 요구하며 ‘북일 간의 인적 교류를 진전시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함.

● “美 대북제재법 시행 예산 5년간 100억원 추산”(7/1,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4 HR 1771)’ 시행을 위해 5년간 약 1천만 달러(10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유엔 “北 홍역 발생 확인...요청시 지원 검토”(7/2,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홍역 발생 사실을 유엔 산하 세계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에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을 인용해 3일 전함.
- 드 보노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수 건의 홍역 발생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확산 감시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힘.

-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작년 절반 수준”(7/2, 미국의소리(VOA))**
 -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올해 1~6월 북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약 1천960만 달러(약 198억원)로 작년 상반기 3천559만 달러(약 359억원)에 비해 45% 감소했다고 VOA가 전함.

- **“몽골 정유회사, 北 내륙서 유전탐사 준비”(7/2, 자유아시아방송(RFA))**
 - 몽골의 정유회사 ‘에이치비오일’(HBOil)이 북한 내륙에서 유전을 탐사할 준비에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에이치비오일은 지난 5월 평양 양각도호텔에 북한 원유개발총회사와 합작사업 이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고 영국인 지질 전문가도 영입함.

- **중국 옌벤주 “北 근로자 도입 확대 가능성”(7/2, 연변일보)**
 - 위샤오핑(于曉峰) 옌벤주 상무부주장은 1일 옌벤주 옌지(延吉)시를 방문한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가는 올해 옌벤주에 북한 노무일꾼허가증을 1천500개 발급했는데 옌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3천 개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변일보가 2일 전함.
 - 부주장은 이어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나진항을 잇는 도로 물류는 양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 탓에 투먼(圖門)시에서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개통하고 국가의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옌벤의 화물을 나진항으로 직접 운송한 뒤 바다를 통해 중국 남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류 대사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은 옌벤과 북한의 대외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옌벤의 대외통로 건설과 북한 노무일꾼 도입, 국경합작구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중국 창춘-평양 관광 전세기 운항 개시(7/2, 길림신문)

-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1일 운항을 시작했다고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이 2일 전함.
- 신문에 의하면 창춘시 여유국(관광국) 관계자는 “이번 전세기 취항으로 북한 관광에 필요한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창춘과 평양 사이에 문화, 관광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北, 러시아 관광객 유치 나서…“수요 다변화 목적”(7/4, 자유아시아방송(RFA);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4일 보도함.
- 북한 국가관광총국의 김영일 선전국장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 여행객들의 최근 해외여행 동향을 분석하고 러시아 여행사와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러시아인을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여전히 북한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 수는 적어 중국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 러시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美단체, 北에 온실·식수 지원사업(7/5,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기독교계 대북지원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CFK)이 올여름 북한에서 온실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함.
- CFK 측은 지난 2일 북한 여러 지역의 온실 30개에서 재배할 채소 씨앗을 지원했으며 시금치, 호박, 토마토, 취나물, 브로콜리 등의 채소 씨앗은 평양과 사리원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지역에 전달됐다고 RFA가 전함.

-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의 천연생물활성제(유기물질 등 식물의 생장에 좋은 350여종 성분 함유) 새로 개발 및 고산과수농장 확장공사 진척(총량의 80% 돌파) 선전(7.2,중앙통신)

- 北, 산화철계 발파가스 중화제와 초음파 분사식 제진기를 동시 이용한 새로운 파가스 및 먼지제거기술을 개발·도입하고 있다고 소개(7.3, 중앙통신)
- 北, 방사선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축광형발광재료’가 개발되었다고 보도(7.4, 중앙통신)
-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 잡지들은 지식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선전(7.4, 중앙통신)
- 올해 수산성의 상반기계획 122.4% 완수 등 수산부문 성과 선전(7.5, 중앙통신)
- 지난 10년간 5만여 정보의 수유나무림(기름작물) 조성 성과(수유기름, 식용뿐 아니라 고급 비누 등 공업원료로 이용) 선전(7.5,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벨기에 NGO “北 올해도 ‘인도주의 위기’ 주의 대상”(7/2, 연합뉴스)
 - 벨기에 비정부기구인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 ‘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 1천600만여명이 만성 식량 부족 상태이며 이중 240만여명은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 비율이 극도로 높다”고 지적했으며 “작년 80만여명의 주민들이 수해를 피해를 보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 英 정부, 북한 내 영어교육프로그램 2017년까지 연장(7/3, 미국의소리 (VOA))
 -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3년 연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영국 외교부는 북한 내 영어교육과 영어교원 강습 프로그램을 2017년 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북한과 합의했고 현재 평양에 주재하는 강사 4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무죄 판결’ 北 청천강호 선장, 주말 파나마 출국”(7/3, 미국의소리(VOA))
 - 청천강호 선장·선원들을 변호하는 홀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들은 판결 내용을 아직 공식 통보 받지 않아 구금돼 있으며 재판 당사자들에게 판결 내용이 모두 통보되는 4~5일째 파나마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밝힘.

마. 사회 동향

- 北, 새 축구공 ‘최우수’ 선전…“수입산 못지않아”(7/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축구 열기를 더해주는 ‘최우수’ 상표의 축구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체육성 산하의 한 기관에서 새로 생산한 축구공을 소개함.
 - ‘최우수’라는 상표명에는 이 공으로 훈련을 해 가장 우수한 선수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평남서 고구려시대 소금생산 유적 발굴”(7/2,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고구려 시대 소금 생산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2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등 북한 연구진이 평안남도 온천군 원읍지구에서 유적을 발굴했다며 “새로 발굴된 유적은 고구려 시기의 바다소금 생산 유적이라는 것이 판명됐다”고 소개함.

● “北 여성 8명, 싱가포르서 국제경영 연수”(7/3, 조선 익스체인지)

- 조선 익스체인지는 3일 홈페이지에서 “북한 여성 경영인 8명이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 경영 분야에서의 여성 기업가 정신과 기업 혁신 등에 대해 연수를 받았다”고 밝힘.
- 연수는 2주간 진행됐으며 국제 경영 규범과 다양한 경영 개념을 학습하고 여러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싱가포르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경영 체계를 배운 뒤 실제 어떤 소매업을 창업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보고 기업 이미지(CI)와 상표를 분석하는 과제도 수행했다고 조선 익스체인지가 전함.

● 북한 칠보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7/3, 조선중앙통신)

- 북한 함경북도 동해안에 있는 칠보산이 유네스코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최근 유네스코 인간 및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제26차 회의에서는 조선의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였다”고 밝힘.

● 北 “일부 지역 가뭄 지속…농작물에 영향”(7/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의 일부 지방들에서 가뭄이 지속돼 농업부문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6월에 전반적 지방에서 비가 내렸으나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남포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4~20mm 정도였다”고 전함.
- 그러면서 “기상통보에 의하면 앞으로 8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폭우와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지만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의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되는 가뭄으로 올해 농사가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임.

● 북한도 선행학습 ‘골치’...“어린이는 놀며 배워야”(6/26, 교육신문; 7/6, 연합뉴스)

- 북한 주간 ‘교육신문’(6월26일자)은 ‘유치원 교육을 소학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유치원들이 시행 중인 선행학습의 병폐를 지적하며 유치원생에게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방북 러시아 군악단, 평양에 이어 지방서도 공연(7.1,노동신문)
- 탄력망협회, 로라스케트협회, 로라휘거(피겨)협회, 로라호케이(하키)협회들이 올해 초 발족되었음을 보도(7.2,조선신보)
- 보천보햇불상 체육경기대회 축구(남·여) 1급 2차 경기의 ‘경기력 향상’ 등 성과 보도(7.2,중앙통신)
- 北, 70년 전 김일성 흑백사진 컬러로 재현 공개(7.3,노동신문)
- 청소년 학생들의 회고음악회, 7월 4일 리일환(당중앙위 부장)·전용남(청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7.4,중앙통신)
- 北 각지,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7.6,중앙방송)

07.07-07.13

7월

2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인천 아시안 게임 응원단 파견 정부성명 발표(7.7)
- 北, 정부성명 북남관계 발전위해 南호응 촉구(7.7~11)
-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7.8, 7.13)
- 北국방위, 美항공모함 南입항 비난(7.12)

2. 핵문제 및 외교

- 조선총련 의장, 김일성 20주기 방북 포기(7.8)
- 北, 유엔 '北미사일 제대' 결의는 국제법 위반 주장(7.10)
- 日, 미사일 발사 북일 합의에 영향 없어(7.13)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섬방어대 시찰 포사격 지도(7.7)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 20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8)
- 김정은 黨 제1비서, 로켓 발사훈련 지도(7.10)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장 시찰(7.11)
- 핵개발 주역 전병호 전 군수담당 비서 사망(7.9)

4. 경제

- 中, WFP 대북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7.8)
- 외국인에 평양 지하철역 모두 개방(7.10)
- UNDP, 송금문제로 올해 대북지원 예산 5%만 집행(7.10)
- 스위스, 대북 인도적 지원 2년 연장(7.11)

5. 사회

- 中, 북한 접경지 첨단·감시 신고 장비 확충(7.8)
- 유엔에 김정은 암살 영화 항의 서한(7.9)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정부성명’ 발표(7/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이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조선신보 “北 정부 성명은 북남관계 발전상 설계”(7/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제시된 북남의 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응원단이 파견되면 북남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정부 성명은 눈앞의 현실 변화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힘.
 - 조선신보는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통일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는 성명의 구절을 인용해 “과거에 합의한 통일방안을 상기시킨 것은 ‘통일’을 한목소리로 주장해야 할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함.
- 北 “AIB에 南 가입 논란, 美 지배체제 붕괴 신호”(7/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뒤흔들리는 지배체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에 AIB 참가를 보류하도록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를 거론하고 “남조선까지 은행 창설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미국의 동맹 내부를 더욱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세계 제패를 노린 미국의 하부구조들은 밀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정부성명에 온 겨레가 화답해야”…南 호응 촉구(7/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성명을 거론하며 우리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통신은 “조국통일의 정당한 길은 오직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 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고수해나가는 길뿐”이라며 민족 문제에서 외부와 공조하는 것은 ‘사대매국행위’라고 비난함.

- 美 국무성 대변인 對北발언 관련 언급(7/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논평을 통해 美 국무성 대변인 對北발언에(지뢰 생산·구매 중단 방침이 한반도 방어태세와는 무관하다) 관련해 ‘남조선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 실현의 교두보로 영원히 타고 앉으려는 음흉한 술책의 발로’라고 비난하며, 주한미군 무력증강을 거론해 ‘북침전쟁도발책동의 일환’이라며 조속한 철수를 주장함.

- 北 “동족이 내민 화해의 손 잡아야”…南 호응 촉구(7/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확고한 의지’라는 논설에서 지난 7일 6·15공동선언 존중 등을 촉구한 정부 성명에 대해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진정과 성의가 얼마나 열렬한가 하는 것을 내외에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이어 남북이 새로운 관점, 입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자며 “우리가 이미 천명한 문제들이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데서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스커드 추정 단거리 미사일 2발 또 동해로 발사(7/8,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자는 8일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20분께 2회에 걸쳐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상으로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힘.
 - 뉴스에 의하면 이 관계자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00여km 내외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北, 美 항공모함 부산 입항 비난…“용납 못 할 도발”(7/1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책임은 전적으로 호전광들이 지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온 민족과 국제사회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과 ‘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며 한반도 정세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고대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남한, 일본과 위협한 연합훈련으로 대답했다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엄중한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 여론과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지적함.

- **北국방위“美항공모함 南입항이 남북관계 개선 훼방”(7/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훼방하는 도발이라며 남측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는 또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망동이자 “엄중한 사태”라며 남측에 “북과 남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정에 올라 있는 현 시점에서 똑바른 선택을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北, 개성 북쪽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13일 새벽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13일 보도함.
 -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오늘 새벽 1시20분과 1시30분께 등 2회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1~2일 통행금지” 통보(7/8,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우리 측은 8일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정부, 나진-하산프로젝트 2차 실사단 방북 승인(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우리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 실사단의 2차 방북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실사단은 컨소시엄 3사(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와 정부 관계자 등 모두 38명으로 이들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방북해 나진-하산 철도 구간과 나진항 3부두 등 현장을 실사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100명 수준 될 듯”(7/7, 연합뉴스)**
 - 남북체육교류협회의 김경성 이사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월 중국에서 만난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외모·사상을 기준으로 선발된 20대 초·중반 여성들로 구성되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응원단 규모는 앞으로 남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북측이 남측에 먼저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뉴스가 전함.

● **北, 아시안게임 참가 관련 15일 실무회담 제의(7/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냈다”며 통지문은 “우리 선수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응원단의 파견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 15일경 판문점 우리 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에서 해당 관계자들의 북남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함.

● **北 “인천서 통일의 함성을”…응원단 파견 연일 선전(7/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필자가 장길성으로 된 ‘한 장의 사진을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남북이 나누는 뜨거운 동포애를 부각함.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과거 응원단으로 남한을 방문한 여성이 썼다는 ‘적대와 대결의 찬바람을 밀어버리자’는 글도 실음.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조선총련 의장, 김일성 20주기 방북 포기”(7/8, 산케이신문)

-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은 지난 5월28일 이뤄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로 조선총련 인사들의 북일 왕래 관련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 총련 간부들에게 김일성 주석 20주기에 맞춰 방북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정작 제재가 풀렸음에도 방북을 단념했다고 8일 산케이신문은 전함.
- 산케이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상납’할 자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일본 정부, 北미사일 발사 외교루트 통해 항의(7/9,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9일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 공조해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함.
-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 항공기, 선박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극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조선신보, 日 아베 정권 우경화 행보 비난(7/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가속화되어가는 일본의 군국화’란 제목의 ‘시론’에서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는 “징병제의 부활”이라고 강조함.
-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손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늘의 동북아시아 평화상황을 대번에 전쟁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등장한 자가 아베”라고 비난하며 “못 견디게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현 일본정권이 현재 그러

보는 전쟁터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라며 아베 정권이 “북조선 섬멸작전을 꿈꾸는 것”이라고 지적함.

● **北 신문, 美 ‘지뢰금지 한반도 예외’ 방침 비난(7/9,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이 9일 논평에서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미국의 지뢰 생산·구매 중단 방침이 한반도 방어 태세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 나아가서 침략적 대외정책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매설된 지뢰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 지배전략의 산물”이라며 “미국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매설된 반보병 지뢰들을 계속 사용할 기도를 드러낸 것은 우리 공화국(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계속 추구하며 남조선을 영원히 타고 앉아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실현에 적극 활용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함.

● **조선신보 “北 미사일 발사 훈련은 전쟁 억제 목적”(7/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미국의 도발을 제압하는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월과 7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이뤄진 미사일 발사를 거론, “미국의 도발을 제압하는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전쟁 발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전함.
- 또 “동북아시아에서 열강들의 갈등과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로켓 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의 발전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미국 강력 비난…“패권적 지위 잃고 멸망할 것”(7/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미국의 쇠퇴 몰락은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가려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힘.
 - 통신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은 ‘침략과 간섭의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이 전략은 지역 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오늘날 전면 파산에 처했다”고 지적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일본에 복수의 납치피해자 생존 통보”(7/10, 니혼게이지아이신문)**
 - 북한이 최근 일본에 제시한 북한내 일본인 생존자 명단에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무성 국장 간 협의 때 북한에 살아있는 일본인 약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가족구성 등이 적힌 명단을 일본 측에 제시했으며 이 명단 안에 복수의 공인된 일본인 납북자가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이노키 등 日 국회의원 6명 평양 도착(7/10, 조선중앙통신; 교도통신)**
 -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교도통신은 이노키 의원 일행이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 등과의 회담하기 위해 조울 중이라며, 앞서 이노키 의원은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관계에 관해 “여기서 후퇴하면 앞으로 10년간 교섭할 수 없게 되고 만다”며 “탁 터놓고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아베 “미사일 발사, 북일 합의에 영향 없어”(7/13, 교도통신)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13일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 합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北 “유엔 ‘北 미사일 제재’ 결의는 국제법 위반”(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0일 미사일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는 보편적인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리경철 실장은 “유엔 결의들이 조선반도에서 무용지물로 되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훈련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 “미국은 40여 년 전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도록 한 유엔 결의를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통신이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리수용(외무상), 7월 10일 주북 브라질 대사(로베르트 콜린)와 담화(7.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백서(7.11)] 미국이 “전횡과 독단, 일방주의적인 정책”으로 ‘국제무대에서 패권적 지위 상실과 정치·군사·경제 등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이 쇠퇴몰락,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7.11, 중앙통신)

- 강석주(黨 비서·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 7월 11일 訪北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 (단장 : 이노키 간지 참의원) 면담 및 박근광(黨 부부장·조일우호친선협회 회장) 등 배석(7.11,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세계 각국 도청 사건을 거론하며 '선진기술을 도용하여 세계를 거머 쥐어 보려는 미국의 범죄적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국제 기구들이 미국을 배척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라고 주장(7.13, 중앙 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동해안 섬방어대 또 시찰...포사격 지도(7/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 전방의 섬 초소인 옹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사격훈련이 시작됐고 “하늘·땅·바다를 진감하는 포성과 함께 강철 포신에서 세찬 화염이 쏟아졌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그는 이어 방어대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해 포의 기동시간을 단축하고 화력 진지와 기동로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해상에 기여드는 원수들을 해상에서 모조리 수장해버림으로써 조국땅에 침략의 더러운 발을 한치도 들여놓지 못하게 옹도방어대를 명포수 방어대로 만들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김일성 20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20주기인 8일 0시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

부장, 박영식·럼철성 중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고 통신이 보도함.

● **北, 김일성 20주기 추모대회…김정은 다리 절며 참석(7/8, 조선중앙TV)**

- 북한은 8일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중앙TV에 따르면 8일 추모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혁명위업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의 업적”이라고 밝혀 김 제1위원장의 세습을 정당화함.
-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가장 공고한 사회주의,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로켓 발사훈련 지도…“말과 행동 다 준비돼야”(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그는 전술로켓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만족을 표시하고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해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역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로켓 부문의 ‘싸움준비’를 한층 강화하고 즉각적인 발사 태세를 유지해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광증을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으로 제압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장 시찰(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2012년 7월 준공한 순안공항 1청사를 방문했을 때 2청사 건설을 지시했으며 현재 2청사 공사는 75% 마무리됐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2청사의 내외부를 둘러본 뒤 군인들이 건설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은 평양의 관문, 우리나라의 얼굴”이라며 “항공역사를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해야 한다”며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주재 중국대사, 시진핑 방한기간 북중경협 시찰(7/7,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기간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대표적인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해 양국 간 친선·협력 강화를 역설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함.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 대사는 2일부터 4일까지 나선특별시에서 북중이 공동 개발·관리하는 나선특구와 양국 국경통상구인 중국 취안허(圈河)-북한 원정리통상구, 선봉백화공업원구,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 등지를 둘러봤다고 뉴스가 전함.
- **「반제민전」중앙위 부위원장, 7월 8일 北 정부 성명 지지 담화 발표(7/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중앙위 부위원장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 이남 민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 찬동하며, 반제민족민주전선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변명을 바라는 전국민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지평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함.
- **北 ‘핵개발 주역’ 전병호 전 군수담당 비서 사망(7/9,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공동 명의의 부고를 통해 육군 대장이자 인민군 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인 전병호가 지난 7일 오후 7시 급성심근경색으로 88세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부고는 전병호에 대해 “오랜 기간 국방공업 부문의 중요 직책들을 역임하면서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최정에 혁명강군으로,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는데 특출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함.

● 北, ‘핵개발 주역’ 전병호 애국열사릉 안치(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7일 사망한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거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1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영구차가 빈소인 평양 서장회관을 떠나 애국열사릉으로 이동하자 평양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애도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김정은, 영도업적 계승자…‘내부의 적’과 싸워야”(7/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 업적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 식대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해나가는 길에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드팀없는 입장”이라며 “100% 고수, 100% 계승”이 당의 원칙이자 신념이라고 밝힘.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업 방식을 ‘0.001mm의 편차’도 없이 따르고 있다며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나가는 것은 대원수님들의 영도 업적을 빛내며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주장함.

● 北, 김일성 ‘통일문건’ 서명일 맞아 ‘통일 업적’ 강조(7/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잊지 말자,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빛나는 고귀한 업적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김 주석의 마지막 친필 서명에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염원으로 간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위인(김일성 지칭)의 한 생이 집대성돼 있다”고 역설함.
- 신문은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3월 최전방 판문점을 찾아 김 주석의 마지막 친필 서명이 새겨진 ‘친필비’를 바라보며 김 주석의 ‘통일 업적’을 길이 빛낼 결의를 다졌다고 밝힘.

● 北 오늘 김일성 20주기…추모 열기 고조(7/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한평생의 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후손만대의 존엄과 영광, 승리와 번영이 확고히 담보돼 있다”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역세계 나아갈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밝힘.
- 이어 “김정은 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라며 “김정은 동지를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신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며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함.

- 김형직(김정은 증조부) 생일 12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7월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9,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해외연고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해 준 위로연’, 7월 9일 진행(7.9,중앙통신)
- 김일성의 ‘월남전’ 당시 지원(공군 등 무력과 군복 수백만 벌) 등 ‘반제민족해방운동 강화발전 투쟁 지원 등 세계자주화 위업실현 업적’ 칭송(7.11,중앙통신)
- ‘상반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다’며 ‘오늘의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여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고 호소(7.12,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외국인에 평양 지하철역 모두 개방”(7/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영국의 북한 전문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처음으로 평양 지하철 2호선(혁신선)의 이용이 허용됐다”고 전함.
 - 이 여행사는 다음 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의 ‘지하철 관광’을 소개하며 “이번 여행에서는 외국인들이 1호선(천리마선) 모든 역을 둘러보고 다음 날 2호선의 모든 역도 다 방문한다”고 밝힘.

다. 경제 상황

- “북한 전세기 관광, 중국 노년층에 인기”(7/7, 동방망)
 - 올여름 중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 관광상품이 노년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 동방망(東方網)이 7일 전함.
 -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여행사들은 노년층 관광객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단체관광객의 북한 내 숙소를 중국의 4성급 호텔에 해당하는 특급호텔로 업그레이드한 고급 패키지도 출시했다고 신문은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애로”(7/7, 신화통신)
 - 신화통신에 의하면 굴람 이사크자이 북한 내 유엔 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은 7일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새 제재로 일반

적인 은행거래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조달과 효율적인 배급 등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함. 이사크자이는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를 예로 들며 “홍수 발생 3개월 후에야 우리는 구호품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이재민을 돕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함.

- **中, WFP 대북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7/8, 미국의소리(VOA))**
 - 중국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에 100만 달러(약 10억 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WFP는 7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북한 내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함.

- **월드비전, 개성서 북측과 ‘씨감자 사업’ 논의(7/9, 연합뉴스)**
 -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월드비전이 9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 공동 영농사업의 재개방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등 4명은 9일 오전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과 만나 평양, 양강도 대홍단군 등 5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씨감자 생산 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서울로 돌아옴.

- **“英, 작년 대북 공적원조 7억원… 절반은 영어교육”(7/9,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대해 약 6억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또한 영국 외교부는 2000년부터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영어교육 사업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사업 시행 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VOA가 전함.

● “UNDP, 올해 대북지원 예산 5%만 집행…송금 막힌 탓”(7/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대북 지원 예산의 5% 수준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올해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예산 집행 비율이 4.6%에 불과한 것에 대해 UNDP 측은 “대북 지원사업 자금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 내부로 송금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RFA에 밝힘.

● 캐나다 단체 “北, 지원받은 콩우유 계획대로 분배”(7/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자선단체 ‘퍼스트스텝스’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음을 ‘불시 모니터링’으로 확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 등 4명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북한 평안남도과 강원도를 방문해 식량 등 지원품의 분배 상황을 점검하고, 앤 리 국장은 RFA와 통화에서 “원산, 남포, 형제산(평양)의 고아원을 방문했다”며 “이번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방문했는데 계획대로 콩우유 분배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함.

● “단둥-평양 국제열차 관광객 연간 1만명 규모”(7/10, 신화통신)

-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국제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 연간 1만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2001년 7월 양국 철도 당국이 이 노선의 관광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했을 당시 연간 수백 명에 그쳤던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해 13년이 지난 현재는 연간 1만명에 달한다고 전함.

- “스위스, 대북 인도적 지원 2년 연장”(7/11, 미국의소리(VOA))
 - 스위스 정부가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1일 전함.
 - 대북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은 올해 말로 끝나는 ‘2012~2014 중기 지원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한다고 앞서 “스위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초 이사회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힘.

- 北, 방글라데시 의약품 수입 급증(7/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방글라데시에서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RFA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의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5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한 의약품은 6만4천달러(약 6천400만원) 어치로, 이로써 북한이 방글라데시의 2014년 회계연도(2013년7월~2014년6월)에 수입한 의약품은 14만6천 달러(약 1억4천800만 원) 규모로 2013년 회계연도(6만8천 달러)의 두 배로 증가함.
 - RFA는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 지난 5월 미국의 방사선 의료기기 16만3천 달러(약 1억6천500만 원) 어치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밝힘.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유엔에 ‘김정은 암살 영화’ 항의 서한(7/9,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영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VOA에 따르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 제1위원장의 암살 작전을 그린 영화 ‘인터뷰’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 국가의 수반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가 제작, 배급되도록 하는 것은 ‘적나라한 테러 지원이자 전쟁행위’라며 미국 정부가 이 영화의 제작, 배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중국, 북한 접경지 첨단 감시·신고 장비 확충(7/8, 인민망)
 - 8일 인민망(人民網)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경수비대는 4월 북한과 국경을 맞댄 압록강변의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주민에게 휴대전화형 신고장비 1천여 대를 무료로 나눠줌.
 - 현지 소식통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나아지면서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무죄판결 北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파나마서 출국”(7/13, 미국의소리(VOA))
 -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2명이 풀려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함.
 - VOA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홀리오 베리오스 변호사 측이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이 지난 11일 파나마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신병을 인도받아 다음 날 쿠바로 떠났다고 밝혔으며 선장과 선원들은 비행기로 쿠바에서 휴식을 취한 뒤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마. 사회 동향

- 北 여전한 월드컵 열기…축구도서 ‘절판’(7/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8일 북한의 체육신문사가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출간한 ‘세계를 휩쓰는 축구 열풍’이란 제목의 축구도서의 인기가 매우 높은 출판 관계자들이 재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이 도서가 주민들의 축구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특히 “축구반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축구학급 지도교원(감독)들 속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다”고 밝힘.
- ‘세계적 수준’ 호텔리어 꿈꾸는 北 학생들(7/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이 호텔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4월 개설한 봉사학교를 자세히 소개함.
 - 조선신보는 “학교의 교육내용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학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교원들은 명실 공히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 “청년에 투자하자”…北도 청소년 인구 감소(7/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청년들에게 투자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인구문제 해결에서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미래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유엔인구기금(UNFPA)이 올해 세계 인구의 날 주제를 ‘청년들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Young People)로 정한 데 주목하며 북한에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소개함.

- **北 TV, 韓·美·日 경기만 중계 안 해(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저녁 월드컵 주요 경기장면을 편집해 중계해왔지만 브라질 월드컵 종료로 하루 앞둔 13일까지도 한국과 미국, 일본팀의 경기장면은 단 한 차례도 중계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설경 선수, ‘2014 그랜드상 유도경기대회’(몽골 울란바토르) 여자 78kg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7.7,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저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수록한 ‘김정일전집’ 제7권 출판(7.9,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창립 60주년 기념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7월 9일과 10일 평양에서 진행(7.10, 중앙통신)
- 北,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7.11)을 즈음하여 평양에서 토론회 진행(7.10, 중앙통신)
- 北 체육인들이 지난 20년간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1,400여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고 선전(7.10, 중앙통신)
- 황해남북도·남포시 등 전반적 지역에서 가뭄지속으로 농작물들이 말라죽는 등 “알곡생산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가뭄극복 투쟁에 수단과 역량 총동원 전개’ 보도(7.11, 중앙통신)
- [세계인구의 날(7.11)] 즈음 ‘北의 각종 활동(‘청년들에게 투자하자’ 주제 토론회·‘인구소식’ 특간호 발간)’ 선전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강화를 통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7.1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14-07.20

7월

3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실무접촉 결렬, 南에 태도 전환 요구(7.15~19)
- 고성 MDL인근서 방사포·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7.15)

2. 핵문제 및 외교

- 美 ‘北위협설’로 북·일관계 개선 방해(7.14)
- 자발적 입국자 日귀국 허용 의사 표명(7.18)
- 유엔 안보리 ‘단거리미사일 규탄’에 공정성 상실 처사 비난(7.19)
- 北-러 친선 강화에 깊은 관심(7.19)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최전방서 포 실탄사격 훈련 지도(7.15)
- 김정은 黨 제1비서, 강원도 통천 수산물연구소 시찰(7.17)
- 김정은 黨 제1비서, 軍산하 그물·플라스틱관 생산시설 시찰(7.18)

4. 경제

- 상반기 북한 방문 외국 관광객 20% 증가(7.15)
- 北-러 합작 나진항 3호 부두 준공(7.18)
- 유엔, 北 화학물질 관리 표준화위해 자금 지원 승인(7.18)
- 올해 상반기 北주민 중국 방문 7% 감소(7.19)

5. 사회

- 美 백악관에 김정은 암살영화 항의 서한(7.17)
- 北 기상청, 국제기구에 ‘대규모 홍수 예상’ 통보(7.18)

1 대내 동향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인천AG 실무접촉 ‘전모’ 공개…南에 책임 전가(7/20, 조선중앙통신)
 -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대표단은 남측이 터무니없이 사실을 왜곡해 파렴치한 모략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힌다”며 실무접촉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공개함.
 - 담화는 “지금까지 북과 남 사이에 수많은 회담이 진행돼왔어도 이번처럼 남측이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다르고 청와대가 무지막지하게 내리 먹여 체육실무회담을 시작도 변변히 못 한 채 결렬로 몰아넣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비난함.
 - 이어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 그 어디에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있으며 더욱이 국기도 마음대로 들지 못하게 하고 규격을 정한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남북관계 개선 위해 ‘5·24조치’ 해제 거듭 촉구(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해나서고 있는 것은 그것이 북과 남의 이익을 해치고 동족 대결과 전쟁 위험까지 몰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되는 이런 대결 조치들은 민심의 요구대로 지체 없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민족 공동의 위업을 위해 북과 남이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시기에 남조선에서 아직까지 동족간의 내왕과 접촉, 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조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생존 활동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지적함.

- **北 “휘날리는 통일기 못잊어”…인천AG 공동응원 관심(7/1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에는 15일 과거의 남북 단일팀을 회상하며 단일팀 구성을 독려하는 듯한 ‘4·25 체육단’ 소속 탁구선수 김혁봉 선수의 글이 실림.
 - 김혁봉은 이 글에서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리스본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등 남북이 단일팀을 이뤄 출전한 대회를 돌이켜보며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단일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과시하던 그때를 어떻게 잊겠는가”라고 밝힘.
- **北,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美 대북정책 전환 촉구(7/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한)반도 정세긴장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16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오늘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을 동반한 군사적 망동이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특히 논평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을 파멸시키기 위해 핵을 휘두르는 자들은 오직 핵으로써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최종결론”이라며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사태’를 몰아온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
- **北,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간첩사건 제작소” 비난(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날날이 드러난 간첩사건 제작소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온갖 반공화국 모략과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사실이 날날이 폭로됐다”고 주장함.
 - 신문은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간첩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 자들은 ‘북’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구 구타하였으며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함.
 - 또 “지금껏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간첩사건’이니, ‘탈북사건’이니, 조난당한 우리 주민들의 ‘귀순’이니 뭐니 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반공화국 날 조선전에 열을 올렸다”고 덧붙임.

- 北 “지금 南이 용단을 내려야”…대북정책 전환 촉구(7/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시대착오적인 적대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온 겨레가 북남대결 상태의 해소를 바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남조선 당국이 더이상 역사와 후대들 앞에 치욕스러운 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힘.
 - 신문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입장에서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냉전 시대의 관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인천 AG 실무접촉 결렬’ 南에 비난 공세(7/1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배후조종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 실무회담이 파탄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당국에게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지난 17일 남북 실무접촉 오후 회의에서 북측이 남측의 태도에 대해 “그것이 청와대의 입장인가”라고 따지자 남측 관계자가 “북의 새로운 제안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상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답했다고 주장함.
 - 또 남측이 실무접촉 오전 회의에서는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이 오면 환대해줄 것”, “숙소로 이용하게 될 ‘만경봉-92’호의 제주해협 통과와 인천항 정박도 잘 보장하는 방향에서 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청와대의 지령’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南, 청와대 지령 받고 응원단 규모 트집”(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판문점에서 17일 개최된 남북 실무접촉 소식을 전하며 “모처럼 진행된 북남 실무회담은 남측의 부당한 태도와 도발 행위로 하여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했으며 다음번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18일 보도함.

- 통신은 북측이 실무접촉 오전 회의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 이동 경로, 교통 수단, 경기 진행, 응원, 신변안전, 통신보장, 언론 취재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하며 “오전 회담에서 우리측 안에 호응하던 남측이 오후에는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완전히 돌변해 도전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함.
- 이어 “남측은 지령을 받느라고 14시로 예정된 오후 회담을 2시간 15분이 나 지연시켰으며 뒤늦게 회담 탁에 나와서는 오전에 저들이 한말을 모두 뒤집으면서 ‘국제관례’니, ‘대표단 규모가 너무 크다’느니 하고 트집을 걸었다”고 지적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DMZ 인근서 잇단 무력시위…대남 위협수위 높여(7/14, 연합뉴스)**
 - 북한이 14일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측 해상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등 100여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성 행동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14일 사격은 그동안 북한군이 동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중 가장 남쪽에서 실시한 것으로 분석됨.
- **北, 고성 MDL인근서 방사포·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7/15,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43분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 발을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북쪽 수백m 지점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1~8km 해상에 떨어졌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힘.
 - 뉴스에 의하면 발사된 포탄 중 240mm 방사포 10여 발은 50여km를 날아갔고, 240mm 궤적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추적용 ‘그린파인’ 레이더로 포착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통행금지’ 강행 통보(7/18,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실무자들은 18일부터 출입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제재 강화 조치 내용을 보면 북측은 체제 비판물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한 금지품목 반입, 출입증명서 미소지 등 출입질서를 위반한 우리측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일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김정은 “인천 AG 참가해 화해·단합에 이바지해야”(7/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검열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그동안 훈련을 잘했다”고 치하하고 “체육인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해 승고한 체육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겨레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라며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의 정치적 농락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함.
- 겨레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29일 선양서 재개(7/20, 연합뉴스)
 - 한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 편찬실장은 20일 “북측과 오는 29일 선양에서 제21차 편찬회의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6년 2월 남북 편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으며, 사업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5년여간 남북이 각각 진행한 편찬 작업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다고 뉴스는 전함.

- ‘연방제방식의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은 연방제통일밖에 없다”고 주장(7.14,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유엔 안보리 ‘단거리미사일 규탄’, 공정성 상실”(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언론 성명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책동에 놀아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체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로 나갈 수밖에 없게 돼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의하면 성명은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현 정세는 강력한 핵억제력에 기초해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며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가증되는 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더 박차가 가해질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행동도 연례화, 정례화될 것”이라고 위협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美, 시대착오적 ‘전략적인내’ 대북정책 포기해야”(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랄한 내용으로 수정·보충돼 강행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난함.
 - 신문은 특히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자극해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 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와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함.

- 北 “북미대결은 정치사상적 대결…사상침투 봉쇄해야”(7/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제국주의자들과의 사상적 대결에서는 한걸음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년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은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통해 일부 나라들의 정부를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웠다”고 비난함.
 - 이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주요 원인은 사상사업을 소홀히 한 데 있다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지 못하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방어 아닌 침략 목적”(7/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은 가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의 침략전쟁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전투기·경보기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작전반경이나 무장 장비 능력으로 보나 공격을 위한 것으로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주장함.

- 또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미국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때마다 군사훈련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美, ‘北위협설’ 내세워 북일관계 개선 방해”(7/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에서 마틴 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며 “이것은 판에 박은 북조선 위협설을 계속 퍼뜨려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실현에 유익하게 써먹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통신은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일본이 북조선과의 대화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 나라에 모종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조일(북일) 관계 개선이 저들 주도의 침략 동맹을 강화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타산한 데 있다”고 지적함.

● 美정부, 北무력시위에 “도발로는 안전보장 못받아”(7/1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연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사일 발사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로켓과 야포를 쏜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한 국무부는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그같은 도발 행위는 지역에서 긴장을 높일 뿐 북한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밝힘.

●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연계 부적절”(7/16, 연합뉴스)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시키는데 신중을 기해 주기 당부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긴장 고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연례적으로 약 40년간 진행된 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강석주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훈련 대항수단”(7/14, 교도통신)
 -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수단”이라고 설명했다고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등이 14일 교도통신을 통해 전함.
 - 통신에 의하면 강석주 비서는 특히 미사일 발사가 일본을 겨냥한 시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북 의원단은 전함.
- 조선신보 “北日 인적교류, 관계개선에 큰 영향”(7/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메아리’ 코너에 실린 ‘새로운 흐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정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인사 왕래 제한조치의 완화는 예상 이상으로 조일(북일)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조선신보는 “일본인의 조선(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한 최대의 원인이 인사 왕래의 차단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의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일반 시민 등 여러 층이 대량적으로 조선을 방문하기만 해도 아무리 두터운 조일 사이의 벽도 물 먹은 담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함.

- “北, 올 3월부터 전담반 꾸려 일본인 조사 시작”(7/17,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포괄적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하기 4개월 전인 지난 3월부터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본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뉴스에 의하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한 소식통은 17일 “북한은 올해 3월 12일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북송 일본인 귀화자와 일본인 유골 등을 조사하는 ‘312그루빠’를 꾸려 이미 실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함.

- “북한, 자발적 입국자 日귀국허용 의사 표명”(7/18, 산케이신문)
 -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자신의 의사로 입국해 머무는 사람은 일본으로 귀국해도 좋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사. 대러시아

- 北 “북러 친선 강화해야…김정은 깊은 관심”(7/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공동선언 이후) 조러(북러) 친선관계에서는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러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관심 속에 조러 관계는 친선협조, 선린우호의 원칙에서 끊임없이 강화돼왔다”며 “오늘 전통적인 조러 친선의 역사는 김정은 원수님의 깊은 관심 속에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함.

아. 국제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 미사일 발사 항의서한 北에 전달”(7/17, 미국의소리(VOA))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보낸 공동서한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몽골 바트톨가 의원 대통령 특사로 방북(7/1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몽골 대통령 특사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국가대회의 의원과 일행이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힘.
 - 연합뉴스 14일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방북한 바트톨가 특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몽골 공업·농업장관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룡남 무역상 등과 회담하고 ‘북-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문을 체결함.

 - **北,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비난··“당장 중단해야”(7/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주민 지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수많은 민간인을 살육한 이스라엘의 야수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北, 미얀마 언론인 방북 제안”(7/18, 이라와디)**
 - 미얀마 언론 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6일 미얀마 언론기관인 ‘임시언론위원회’를 방문해 위원회 소속 언론인의 방북을 제안함.
 - 김 대사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상황에서 미얀마 대중이 북한의 실상을 알려면 언론인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美 핵항공모함 부산항 입항과 韓美 연합훈련을 거론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공화국을 파멸시키기 위해 핵을 휘두르는 자들은 핵으로서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최종결론’이라며 ‘현존 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인 미국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근원적 청산을 위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7.15,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동해안 최전방서 포 실탄사격 훈련”…김정은 지도(7/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제1위원장이 ‘동부전선 최전방의 영웅고지 351 고지’에서 제171군부대의 포 실탄사격 훈련을 지도했다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 훈련이 동부전선을 지키고있는 포병 부대들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입하는 적들을 강력한 포병화력 타격으로 진압할 수 있게 준비됐는가를 검열하고 경상적(정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강원도 통천 수산물연구소 시찰(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 연구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설립됐으며 “연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고급 어족에 대한 연구사업과 양어는 물론 물고기 가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라고 소개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인공수정실’, ‘알 발육실’, ‘양어못’, ‘사료가공장’, ‘물고기 가공공장’ 등 연구소 시설을 둘러본 뒤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대적인 과학연구 및 보급 기지,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는 양어 및 물고기 가공의 핵심적이며 중추적인 기지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당의 결심”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軍산하 그물·플라스틱관 생산시설 시찰(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제1521호 기업소의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플라스틱)관 직장(생산라인)을 시찰했으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과수업과 수산업, 건설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 절실히 필요한 그물과 밧줄, 수지관들을 생산하고 있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 직장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며 “기업소가 부강조국 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종합 공장으로 체모를 갖췄다”고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대외경제상에 리룡남 확인··몽골 특사와 회담(7/15,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대외경제상과 몽골 대통령의 특사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국가대회의(우리의 국회) 의원의 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리룡남을 ‘대외경제상’으로 소개함.
 - 앞서 북한은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무역성에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상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조선속도’ 또 독려··“강성국가건설은 시대 사명”(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1면에 게재한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요대상 건설장들과 과학연구기관들, 동해와 서해의 수산기지들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날에 날마다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조선속도 창조는 혁명의 절박한 요구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 이것은 오늘날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며 의무”라고 강조함.

● 北 ‘전승절’ 띄우기…김일성 찬양에 사적지 답사(7/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기적을 창조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라는 글을 통해 온 겨레가 전승절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회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 글은 김일성 주석이 6·25전쟁 때 독창적인 전법으로 미국을 꺾었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고(승리하고) 전승의 축포를 터쳐 올릴 수 있었다”고 찬양함.

● 北, ‘원수 칭호’ 2주년 맞아 김정은 리더십 부각(7/17,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7일 6개 지면 대부분을 원수 칭호 2주년을 축하하고 김 제1위 원장을 찬양한 내용으로 채웠으며, 2면의 사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진두에 모신 선군조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는 원수 칭호 수여에 대해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함.

- 조선중앙방송도 17일 원수 칭호 2주년을 맞아 국토환경보호성의 기봉철 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 드린 것은 그이에 대한 천민군민의 다함 없는 흠모와 그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고 우리 민족의 대경사”라고 말했다고 전함.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7월 14일 재일본 조선인 대표단(단장 : 권순휘 「총련」고문) 면담(7.14,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 28돌 관련 ‘주체사상 교양 강화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며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 저지 투쟁 선동(7.15,중앙통신·노동신문)

-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위력한 보검, 민족의 융성번영을 담보해주는 기치’라고 호도(7.17,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경공업 부각…“김정은, 수영복 디자인도 챙겨”(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갓가지 수영복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물놀이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다양한 수영복들을 소개하며 “원수님(김정은)께서 인민들에게 더 멋있고 훌륭한 수영복을 안겨주시려고 크나큰 온정을 베풀었다”며 “수영복 도안들을 몸소 봐주시며 하나하나 완성해줬다”고 주장함.
- 신문은 “새롭게 특색있는 갓가지 수영복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생산되는 족족 상업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물놀이장에 가닿고 있다”고 강조함.

● 北, 농업기술 홍보 강화…신문·방송 적극 활용(7/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수확고를 높이는 강냉이 이삭 목 찌르기’라는 글에서 평안북도 구장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옥수수의 이삭 목(이삭이 달린 부분)에 재생호르몬이 나오도록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수확량을 늘린 사례를 소개함.
- 이 글은 노동신문이 올해 3월13일부터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7번째 기사이며, 신문은 이 코너를 새로 만들며 “올해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농업생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다. 경제 상황

- **조선신보 “상반기 북한 방문 외국 관광객 20% 증가”(7/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조선(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조선국제여행사 합진 사장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간에만도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올해에 들어와 첫선을 보인 마식령 스키애호가 관광과 등산 애호가 관광, 군사애호가 관광은 시작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비결로 꼽음.

- **“상반기 블라디보스토크~평양 항공노선 승객 22% 증가”(7/16, 자유아시아 방송(RFA))**
 -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의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6일 보도함.
 - 북한과 러시아는 평양~하바롭스크 정기 항공편의 운항 재개도 추진 중 이어서 양국 간 여객기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RFA가 전망함.

- **美농무부 “北주민 영양수준, 아시아서 두번째로 나빠”(7/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지난 14일 공개한 ‘식량안보평가 2014’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은 영양 섭취가 유엔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6일 밝힘.
 - RFA는 북한은 인구의 3분의 2인 1천700만명이 영양분 섭취가 부족하며, 이는 전 국민의 90%가 유엔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함.

- **“올해 상반기 北 주민 중국 방문 7% 감소”(7/19, 미국의소리(VOA))**
 -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7.3%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자료를 인용해 19일 보도함.

- VOA에 의하면 올해 1~6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9만 1천8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9만 9천100명에 비해 7.3% 줄어든 규모로, 상반기를 기준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0년 5만 2천100명에서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유엔, 北 홍역 심각한 수준 아니라고 판단”(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10일 합동으로 북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함.
- **美 여행사, 北 국제레슬링대회 관람 상품 출시(7/17, 연합뉴스)**
 - 17일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달 30~31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관람 일정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관광객을 모집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우리투어는 북한 당국이 대회 경기장에 관광객이 입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입장권 가격은 가장 비싼 A석이 200 달러(약 21만 원), 가장 저렴한 D석이 50달러라고 소개했으며, 이번에 나온 관광상품에는 프로레슬링 경기 관람뿐 아니라 평양, 원산, 금강산,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도 포함됐다고 뉴스는 전함.
- **체코 회사, 북한 나선시 맥주공장 건설 지원(7/17, 미국의소리(VOA); 플라다 프론타 드네스)**
 - 체코 일간지 ‘플라다 프론타 드네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을 연 나선 맥주공장은 전 세계에 맥주공장 250여 개를 건설한 체코의 양조장 전문 회사 ‘즈부 포테즈’의 지원으로 건설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인용 보도함.
 - 특히 이 회사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체코의 소규모 양조장을 견학시키며 생산하고 싶은 맥주의 종류를 정하도록 했고, 자회사의 기술자를 6개월간 북한에 보내 제조기술을 전수토록 했다고 VOA가 전함.

● “유엔, 北 화학물질 관리 표준화위한 자금지원 승인”(7/17, 미국의소리 (VOA))

- 버지니아 도스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대변인은 17일 미국의소리 (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화학물질 관리 표준화 사업을 위해 20만 달러(약 2억원)의 자금 지원을 유엔에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힘.
- 유엔훈련기구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사업 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VOA가 전함.

● “말레이시아 18개 기업, 9월 평양국제박람회 참가”(7/18, 자유아시아방송 (RFA); 남양상보)

- 말레이시아의 18개 기업이 9월 말 평양에서 열리는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남양상보’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평양 박람회에 참가하려는 기업이 주로 화교 계열이며 커피·과자·초콜릿 등 식품류와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포함되었고, 말레이시아 기업은 박람회장에 20개 정도의 전시 부스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北-러 합작’ 나진항 3호 부두 준공(7/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건설한 함경북도 나진항 3호 부두 준공식이 18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전길수 철도상은 연설에서 “조러(북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협조정신에 의하여 새로 마련된 운수통로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친선의 다리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며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함.

- 황해북도산원(부지면적 1만㎡, 외래치료병동 등 조성 및 해산실 등 10여개 전문과), 새로 건설(7.14,중앙통신)
- 김철호(농업성 국장), ‘수천정보의 과수밭 추가 조성·나무 생존율 90% 이상’ 등 ‘과수업부문 상반기 성과 달성’ 선전(7.14,중앙통신)
- 나선국제여행사와 중국 길림성 연변봄국제여행사 합의로 12일~14일까지 나선시 해수욕장에서 “천막관광” 진행(7.14,중앙통신)

-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전자 위내시경을 비롯한 진단치료 설비들과 의료소 공기구들 연이어 생산(7.15, 중앙방송)
- 산림부문에서 임농복합경영 방법을 도입하여 ‘산림조성과 농산물 생산에서 덕을 보고 있다’며 ‘먹이풀의 활착률(*옻겨 심거나 접목한 식물이 제대로 산 비율)은 100%이며 지난 시기에 비해 생산량은 2배 이상’이라고 보도(7.16,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박봉주 총리, 홍수피해 예방사업 현지 점검(7/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박봉주 총리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파악)했다”라며 “총리는 평양시와 남포시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대동강의 준설작업 실태, 수문관리 정형(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졌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해당 단위들에서 대동강의 물 흐름량과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문에 대한 자동조종체계를 철저히 세워 큰물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함.
- **“北, 英 민간단체에도 아파트붕괴 구호 요청”(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 ‘웰터 박스’는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호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1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힘.
 - 그러나 이 단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RFA가 덧붙임.

- “北, 美 백악관에도 ‘김정은 암살 영화’ 항의 서한”(7/1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미국 코미디 영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에 이어 미국 백악관에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의 이 서한에서 영화 ‘인터뷰’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설명함.

- 북한 당국자 “북중 공유하천 환경분야 협력 희망”(7/17, 중국환경보)
 - 박호용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은 지난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환경보호부 리간제(李干杰) 부부장을 만났다고 중국환경보(中國環境報)가 17일 보도함.
 - 박 부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그동안 환경보호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게 평가한 뒤 “양국이 환경보호 교류를 한층 확대하고 특히 공유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처리, 환경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기상청, 국제기구에 ‘대규모 홍수 예상’ 통보(7/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올해 “대규모 홍수가 예상된다”고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프랜시스 마커스 IFRC 대변인은 17일 RFA에 “북한 기상청이 올해 대규모 홍수를 예보해와 재난 구호 준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힘.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청천강호 선원, 파나마에 임금 손실보상 소송계획”(7/16, 미국의소리(VOA))
 -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임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영국 北대사관 주차위반 과태료 18개월간 1천800만원”(7/17, 미국의소리(VOA))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작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내지 않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1만320 파운드(약 1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런던에 주재하는 다수의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은 면책특권을 이유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VOA가 전함.
- “북한 남성, 카타르서 술 제조·판매 혐의로 체포”(7/18, 미국의소리(VOA))
 - 북한 남성이 카타르에서 밀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제조한 밀주를 북한 근로자뿐 아니라 제3국 노동자들에게도 판매했으며 특히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마약 유통 혐의도 받고 있음.

마. 사회 동향

- 北 주민, 전광판으로 월드컵 시청…평가도 각양각색(7/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월드컵 방영, 평양의 축구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월드컵대회 기간 축구 경기를 즐기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소개함.
 - 전통 축구강국인 브라질이 독일에 7대 1로 ‘대패’한 경기는 북한에서도 큰 이슈가 됐으며, 브라질에서 열린 대회에서 유럽 국가인 독일이 우승한 것을 두고도 “축구경기에서 절대 강자란 없다”, “주최국이 반드시 우승하는 것은 아니다” 등 각양각색의 평가가 쏟아졌다고 조선신보가 전함.

● **초복 맞은 北도 ‘삼계탕’ 예찬론(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좋은 삼계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단고기장(보신탕)에 못지않은 보양음식”이라며 삼계탕의 장점을 강조함.
- 통신은 “삼계탕은 조선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먹어온 민족음식”이라며 “무더운 여름철 일부 식당에 가면 이 보양음식을 맛보게 된다”고 전함.

- 황해북도·함경남도·강원도·평양시·평안남북도 대부분 지방의 1월~7월 13일 현재 강우량이 84~220mm로서 평년의 28~54%이며 서해·동해안 중부지방 등 대부분 지방에서 ‘고온과 왕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7.14, 중앙통신)
- 北, 각지에서 장마철 큰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선전(7.15, 중앙통신)
- “北, 국제수학올림피아드 14위...작년보다 순위 하락”(7.15, 미국의소리(VOA))
- 김일성종합대학 나노기술연구소의 “나노금(金)주사약(나노금+천연생물활성물질)”
- 재일본 조선인 체육연합회 결성(54.7.28) 60주년 기념 축하연회, 7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7.16, 평양방송)

07.21-07.27

7월

4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국방총 정책국’ 대변인 담화(7.20), 한미 ‘적대행위’에 대한 보복 대응 의지 천명
-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의지 피력(7.23)
-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실시 시 북한의 무력대응 가능성 시사(7.25, 노동신문)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속 비난(7.22, 7.24)
- 통일준비위원회 비난(7.25)

2. 핵문제 및 외교

- 안보리 ‘미사일 규탄’ 비난(7.22, 7.24)
- 미 ‘조지 워싱턴호’ 참가 한미연합해상훈련 비난 및 위협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 간접 시사
- 중국에 대한 반감표명(7.21, 7.22)

3. 대내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7.24)
- 김정은 黨 제1비서, 원산 구두공장 현지지도(7.26)
- 인도 주재 대사에 계춘영 임명(7.23)
- 오금철에게 항공군 대장 군사칭호 수여(7.26)
- ‘조국해방전쟁승리’(전승절) 6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등 관련 행사 다수 개최

4. 경제

- 내각 확대 전원회의 개최...장마피해 대책 및 농업역량집중 관련 논의(7.13)
- 평양 과학단지 등 6곳에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
- 원산 갈마반도 개발 주목...“숙박시설 10배 증가”
- 중국산 공기정화설비 대량 수입...건설경기부양과 관련
- 미국 NGO, 북한에 80만 달러 상당 의약품지원

5. 사회

- 장마시작, 압록강 유역 폭우 경보 및 북한 곳곳 태풍 및 폭우

1 대남

가. 공식 발언

- **北 ‘국방委 정책국’ 대변인 담화(7/2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7월 20일 ‘국방委 정책국’ 대변인 담화, 韓美 등의 北 미사일발사·포사격에 대한 ‘도발·위협’ 지적에 “정정당당한 군사행동, 자위력 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행사”라고 강변 및 “우리 식의 보복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21일 조선중앙통신 및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위협함.
- **北, 한미훈련 중단 거듭 요구…“‘보복’ 빈말 아니다”(7/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시비질은 그만두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가 미국과 남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보복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관계 개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외세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다음달 예정대로 실시되면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핵전쟁 발발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며 “도발이면 이보다 더한 도발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7/23,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7월 23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北 선수단·응원단 참가는 “북남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는 선수단·응원단 파견 문제를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라고 조선중앙방송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피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한민구 국방 비난…“죽지 못해 안달”(7/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친개의 분별없는 전쟁 광기’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가소롭기 그지없는 폭언”, “객기”, “넋두리” 등으로 폄하하며 “답도 없는 주제에 허세를 부린다”고 비판함.
- **北 체육인, 인천 AG 참가 의지 잇따라 피력(7/23, 우리민족끼리)**
 - 북한 체육성과 올림픽위원회의 체육인들이 ‘우리민족끼리’ 기고를 통해 23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지를 밝힘.
 - 체육성 소속이라고 밝힌 강일만은 기고문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 한편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일념 밑에 훈련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한민구 국방 연일 비난(7/24, 조선중앙통신)**
 -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對北발언(北 도발시 체제의 생존까지 각오해야할 정도의 단호한 응징) 관련 ‘현 정권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통치로 정국이 막다른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풍을 타고 부푸는 것이 군부패당의 응징허세’라고 비난하며 ‘예측할 수 없는 타격력을 안다면 가만있는 편이 좋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주장함.
- **北 정전협정 61주년 분위기 고조…“韓美는 패배자”(7/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참패의 수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남한을 “이 세상에 패한 전쟁까지 ‘이긴 전쟁’으로 둔갑시키는 낫두꺼운 자들”이라며 ‘패배자’로 규정함.
 - 이어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나서 패자의 수치심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승전일’ 지정 놀음을 요란하게 벌여놓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통일준비위는 체제통일 시도” 비난(7/25,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25일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불순한 모략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통일준비위원회 조작 놀음은 민족을 전쟁의 재난 속에 빠뜨릴 체제통일 망상의 발로로서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우롱모독하는 정치협잡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민주조선은 박근혜 정부가 “북남 공동선언들을 한사코 외면하고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변형시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구상이니 하는 것을 내돌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통일준비위 발족도 “여론을 오도해 저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가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체제통일 준비를 다그치자는 것”이라고 비난함.

다. 군사 관계

- 北, UFG겨냥 서해 남포서 국가급 상륙훈련 준비(7/21, 연합뉴스)
 - 21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다음달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트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해 대규모 국가급 종합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는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21일 “북한이 2~3주 전부터 서해 남포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지상·공중·해상 병력이 참가하는 국가급 종합훈련 규모로 판단된다”고 전함.
- 고의적인 생트집, 계획적인 도발(7/2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21일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신문은 北 전술로켓트발사와 포사격훈련에 대한 우리 대통령 발언(도발할 경우 초전에 강력한 대응으로 응징 등) 등 관련 ‘고의적인 생트집으로서 남북관계와 조선반도의 침예한 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 압살흥계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 왜곡 비난함.

- **北, 황해도 장산곶서 동해로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7/26, 연합뉴스)**
 -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저녁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 상으로 다시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북한은 오늘 오후 9시40분에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500km 안팎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 13일 개성 북쪽에서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13일 만이라고 뉴스는 전함.

라. 경제 관계

- **개성공단 기반시설 국제표준인증 추진(7/22,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공단 내 버스사업소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과 정배수장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각각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北, 대북지원 활동 ‘드레스덴 무관 확인’ 요구(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2016년 안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최근 민간단체들이 방북해 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보도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 사업이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확실히 얘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함.
- **정부, 북한에 개성공단 ‘3통 분과위’ 개최 촉구(7/25, 연합뉴스)**
 -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3통 분과위 회의 개최를 촉구”함.

- 우리측은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을 통한 일일 단위 상시 통행, 인터넷 공급 시기 확정 등 시급한 3통(통행·통신·통관)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 이지만 북측은 그동안 회의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마. 사회 관계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오늘부터 재개(7/22, 연합뉴스)

-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중단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이 22일 재개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등에 따르면 22일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등 13명 이 개성시내에 있는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부산매직페스티벌에 北 마술자료도 전시(7/24, 조선신보)

- 8월 초 열리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BIMF)에 북한 마술 자료도 전시된 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이번 행사에서 ‘평양요술단’의 특별전도 열린다며 “특별전에는 조선(북한) 요술사들의 사진과 동영상, 조선에서 제작된 요술 도구, 의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전함.

- 「조평통」서기국 보도 제1069호(7.24), 청주지법에서 수차례 ‘北 만세’를 외친 공안사범에 대한 형량 연장 관련 ‘의사표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파쇼의 암흑지대, 인권폐허지대’라고 비난하며 ‘탄압책동 중단’ 촉구(7.24, 중앙통신·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7/20, 조선중앙방송)**
 - 美 ‘조지 워싱턴’호 등 참가 韓美 해상합동훈련 등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 강조함.
- **화국의 전략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예화 될 것이다(7/2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韓美 해상합동훈련 관련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진짜 도발자, 평화파괴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며 ‘진실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옳을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안보리 ‘미사일 규탄’ 연일 비난…“군사력 계속 강화”(7/2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안보리가 지난 17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산아인 전술로켓에 대해 시비질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누가 뭐라고 하든,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든, 전술로켓 발사와 핵무력 건설, 군사훈련을 비롯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인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도 22일 ‘강위력한 군사적 억제력은 평화의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의 핵전쟁 도발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이 치솟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무진막강한 자위적 핵억제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도발자들을 제압하는 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전쟁은 더 효과적으로 억제되게 된다”고 역설함.

● **미국은 포함외교로 우리를 놀래울 수 없다(7/22,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美 ‘조지 워싱턴’호 참가 韓美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협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北)의 자위적 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예화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또한 美 ‘조지 워싱턴’호 부산 입항을 ‘포함외교(砲艦外交)’에 비유하며 “미국이 부질없는 핵공갈과 위협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세계최대 대량살육 무기전파국의 황당무제한 망발(7/22, 조선중앙통신)**

-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토머스 컨트리맨)의 발언(北 대량살상 무기 전파 가능성에 우려)에 대해 “황당무제한 망발”이라며 ‘무기수출 책동으로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미국이 대량살상 무기전파설을 내돌리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함.

● **시비질은 그만두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7/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우리 정부의 ‘北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난(도발·위협, 결의위반)에 대해 “과렴치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동족대결정책과 외세와의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정전협정 기념일 앞두고 “美, 도발하면 징벌”(7/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불을 지른 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1년이 됐지만,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첨단군사장비 증강과 군사적 도발, 대규모 전쟁연습 등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제의 항복서는 우리의 발밑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사훈련 참관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응징’을 다짐함.
- 또한 ‘참패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논설에서도 “우리는 미국이 감히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침략군이 발붙이는 모든 곳을 타격할 것이며 침략의 아성을 잿가루로 날려 보낼 것”이라고 위협함.

● 『전승절』 관련, 미국 승전일로 둔갑시키는 광대극 연출 왜곡 주장(7/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전승절』과 관련해 ‘미국이 해괴하게도 저들의 승전일로 둔갑시키는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수치스럽다면 둔갑술을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만 있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재미 한인 이산가족 방북...“누나 유골이라도”(7/23,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방씨 등 재미 한인 2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오는 10월 1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전함.
- 북측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신청자로부터 비료·옥수수값 명목으로 받아온 지원금을 ‘적정한 선’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VOA가 전함.

- 北 “美 ‘전략적 인내’ 실패”…대북정책 전환 요구(7/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 전직 관료들이 최근 잇달아 전략적 인내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한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주도했던 고위인물들이 정책 변화를 들고 나오는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며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 신문은 “구태여 오바마 자신이 고안해내고 애써 실현하려는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언급한다면 정상적인 현실적 안목과 사고를 가진 주인이 백악관에 들어설 때까지 높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뱃심”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억제력인 우리의 핵 타격 수단들은 다중화되고 보다 위력해질 것”이라고 보고 “제2조선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 본토가 무사하리라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더 천진난만한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케네스 배 영사 면담 요청에 녀 달째 무반응(7/24,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한국명 배준호) 씨의 영사 면담이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녀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마. 대중국

- 北, ‘북핵불용’ 중국에 “좃대없다” 노골적 반감(7/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며 남한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밝힘.
 - 중앙TV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일부 좃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해 미국의 구린내 나는 풍무니를 따르면서 저저마다 가련한 처지에 이른 박근혜를 껴안아보려고 부질없이 원심을 쓰고(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비판함.

- 北 노동신문, 또 중국 비난…“미국 횡포 목인”(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누구도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단거리미사일 규탄 언론 성명을 거론하며 “비극은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나라들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며 묵인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이 갈수록 횡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 “北, 무역상들에 한중관계 정보수집 명령”(7/26, 아사히신문)

- 중국 동북지방인 랴오닝(遼寧)성에 사는 북한 무역상이 이달 중순 평양에서 정권 간부로부터 한중 접근의 이유와 경제협력 현황, 북중무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거래 상대인 중국 기업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함.

바. 대일본

● 北, 자진입북 일본인 대상 송환자 선별착수(7/23, 산케이신문)

- 산케이신문은 23일 북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지난 4일 공식 설치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입북한 일본인을 칭하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소재확인 및 청취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본으로 송환할 대상자 선별도 시작했다고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박봉주(내각 총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 입장 표명(7/26, 조선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는 7월 24일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 선출된 ‘장-클로드 융커(*전 룩셈부르크 총리)’에게 축전 및 ‘北-EU 친선협조관계 발전 확신’을 표명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자. 기타 국가

● 北 평성시, 네팔 박타푸르시와 ‘친선도시’ 결연(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2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네팔에서 이루어진 북한 평안남도의 평성시와 네팔 박타푸르시의 ‘친선도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서 조인에 북한 측에서 안명옥 인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성시 친선대표단과 네팔 주재 북한대사가, 네팔 측에서 노동자농민당 지도부와 박타푸르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밝힘.

- 北 친선문화대표단(단장: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7월 21일 영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환(7.21, 중앙통신·평양방송)
-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단장 :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 부장), 7월 22일 평양 출발(7.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단장 : 미하일 판첸코 총서기), 7월 22일 평양 도착(7.22, 중앙통신·중앙방송)
- 감비아 대통령, 7월 19일 自國 주재 北 대사 ‘홍선표’ 접견(7.25, 중앙방송)
- 브라질공산당 대표단, 7월 26일 귀국(7.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승절」 관련 ‘미국이 해괴하게도 저들의 승전일로 둔갑시키는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수치스럽다면 둔갑술을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만있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왜곡 주장 (7.27, 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강원도 과일농장 현지지도…생산 독려(7/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24일 현지 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이 동행함.
 - 김 제1위원장은 새로 건설한 전망대에 올라 과일을 생산하는 농장 전경을 바라보며 “인민의 이상향이 활짝 꽃피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며, 사과나무의 생육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장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도 약속함.

-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시찰…“대외시장서 손색없어야”(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원산구두공장의 연혁소개실,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 등 여러 시설을 찾아 생산 현황과 제품의 질을 파악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제품의 경량화 등을 강조함.
 - 원산구두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黨 제1비서, 군사칭호 명령 하달(7/26, 조선중앙통신)**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7월 1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 오금철(항공군 대장), 최귀현(육군 상장), 장철국·연성국·김태철·박광빈·한광호(해군 소장)에게 군사칭호를 수여함.

-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7/26, 조선중앙통신)**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영남, 박봉주, 현영철(보고),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김원홍, 최부일, 김평해, 곽범기, 오수용, 로두철, 조연준, 김영대이 주석단으로 참가함.
 - 통신은 현영철이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혁명무력의 무장장비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고 보고했다고 전함.
 - 통신에 의하면 ‘김일성의 戰勝 업적과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의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김정은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주한미군 타격 임무 부대 로켓훈련 지도”(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두고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발사 훈련에는 남한 주둔 미군기지의 타격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참가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26일 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세운 발사 계획을 점검했으며 훈련을 마친 뒤 전술 로켓 성능을 “완벽한 것”로 평가했으며, “최근 주체적인 로켓 시험발사훈련을 많이 진행한 결과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됐다”며 “이번 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 준비 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 이라고 말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 조선중앙통신)**
 -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황병서, 리영길, 현영철, 변인선, 서홍찬, 박영식, 럽철성, 조경철 등 동행했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외무상, ARF 전후 아세안 공들이기…정부, 주시(7/22, 연합뉴스)**
 - 22일 연합뉴스는 8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을 전후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미얀마 외에 라오스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순방할 것으로 전함.

- **박봉주(내각 총리), 함흥시 內 소·공장 현지요해(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박봉주(내각 총리), 함경남도 함흥시 內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 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흥남제약공장 현지요해했다고 전함.

- **北, 인도 주재 대사에 계춘영 임명(7/2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인도 주재 대사에 계춘영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계춘영 신임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사무국 북한대표부에서 부대표로 활동해온 외교관으로, 2009년 8월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北 공군 담당 부총참모장 오금철, 19년 만에 대장 진급(7/2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7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장성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오금철에게 항공군 대장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었다”고 전함.
 - 공군 비행사 출신의 오금철은 김일성 주석과 함께 활동한 항일빨치산 1세대인 오백룡의 아들로 1995년 상장에 오른 지 무려 19년 만에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 통신은 또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 최귀헌이 육군 상장으로 진급하고 장철국, 연성국, 김태철, 박광빈, 한광호 등 5명이 해군 소장에 올랐다고 밝힘.

다. 공식 행사

- **김일성 父子 동상 제막식, 평북 신의주에서 진행(7/24,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제막사), 박봉주, 현영철,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양형섭, 김평해,

로두철, 김용진(내각 부총리), 리만건(평안북도당 인민위 책임비서), 최종건(평안북도 인민위원장) 등 참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北, 정전협정 61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7/26,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은 2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전승절) 6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녹화방송으로 내보냄.
 -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강석주·김평해·오수용·곽범기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자리함.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보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장마피해 대책 논의(7/13, 민주조선; 7/22 연합뉴스)**
 -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지난 7월 13일에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하며 내각 직속 기관 간부들과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이 참석했으며 임철웅 부총리가 보고를 맡았다고 밝힘.
 - 민주조선은 전원회의에서 3분기 내각의 ‘중심 과업’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전력생산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경제강국 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치켜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농업 부문에 계속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내각에 집중시켜 풀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7/2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타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노골적인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신문이 22일 밝힘.

● **“北 ‘전승절’ 앞두고 상이군인 지원 독려”(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앞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상이군인 노인을 몇 년째 지원해온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인민보안원(우리의 경찰)을 소개하며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 했다”고 치켜세움.

● **北 정전협정일 자축…“승리의 역사 계승하자”(7/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전승 업적을 후손 만대에 빛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6·25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선군 사상과 자위력 강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6면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승리하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6·25 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들을 묘사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60년 전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날뛰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8면 ‘영웅 조선의 승리는 포화속에서 이미 마련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국립교예단 창립 등 6·25 전쟁 기간 전선 밖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이같은 노력이 훗날 발전의 초석을 이뤘다고 주장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백살 장수자 김관청(평북 박천군 송석리, 女)에게 생일상 전달(7.21, 중앙통신)
- 반미공동투쟁기간(6.25~7.27)에 즈음하여 ‘韓美의 공화국 압살책동이 악랄해 지고 있다’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강조 및 ‘계급교양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업’이라며 ‘반미교양사업’ 강화 주장(7.21, 중앙통신, 노동신문)
- 北 군인들, 7월 21일 정전협정 체결일(전승절: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7.27) 즈음 ‘군자혁명사적지(평남 성천군)’ 참관 및 백두산 위인들의 위대성 해설과 웅변모임 진행(7.21, 중앙통신)
-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일, 7.27)’ 61주년 즈음 김일성의 ‘戰勝 영도 업적’ 찬양 및 ‘김정은이 반제반미 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7.23, 중앙통신)
- 駐감비아 北 대사 ‘홍선표’, 7월 15일 同國 부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7.24,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 건설사업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7.25, 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기념보고회, 7월 22일 최태복(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보고)·김용진(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김일성의 사상과 신념, 전략적 전술과 영군술의 빛나는 승리’라고 칭송하며 ‘김정은은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 나가자’고 호소(7.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장마피해 대책 논의(7/13; 7/22, 민주조선; 연합뉴스)**
 -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지난 7월 13일에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하며 내각 직속 기관 간부들과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이 참석했으며 임철웅 부총리가 보고를 맡았다고 밝힘.
 - 민주조선은 전원회의에서 3분기 내각의 ‘중심 과업’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전력생산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경제강국 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치켜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농업 부문에 계속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내각에 집중시켜 풀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평양 과학단지 등 6곳에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7/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이에 관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밝힘.
 - 통신은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동, 과학1동, 과학2동, 배산동, 을밀동의 일부 지역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추진하고 황해남도 강령군 강령읍에는 강령국제녹색시범구를 세운다고 설명함.
 - 평안남도 청남구 룡북리에 청남공업개발구가, 숙천군 운정리에 숙천농업개발구가 각각 들어서고 평안북도 삭주군 청성노동자구와 방산리에는 청수관광개발구가 조성될 예정임.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국제여행사를 비롯한 여러 여행사들, 국제관광시장 호평을 선전(7/21, 조선중앙통신)**
 - 北 국제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사들이 다양한 주제의 관광일정들을 국제관광시장에 내놓아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선전함.
 - 통신은 등산관광(현지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며 등산), 비행기애호가 관광(다양한 기종 참관·촬영, 탑승 등), 열차관광(기차로 여러 도시들, 명승지들 유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내 유람), 건축애호가관광, 자전거관광, 체육관광, 노동생활 체험관광(협동전야와 과수원에서 모내기나 과일 따기 등), 실업관광(투자와 합영 합작 등 조직), 낚시관광, 회의관광 등은 여러 형태의 관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전함.

- **北 원산 갈마반도 개발 주목…“숙박시설 10배↑”(7/23, 연합뉴스; 평양타임스)**
 - 북한의 대외용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23일 주간 영자신문 평양타임스를 인용해 작년 11월 발표된 원산지구 개발 계획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천400여ha 부지의 갈마반도 지구는 크게 숙박구, 회의·전시 박람회, 체육경기구, 경제개발구, 상업편의봉사구로 나뉘어 개발되며, 북한은 원산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현재 1천30여명 수준의 호텔숙박 능력을 1만1천여명으로 10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평양서 유기농 국제회의 개최(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과 공동주최로 지난 21~23일 평양에서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다. 경제 상황

- 北, 중국산 공기정화설비 대량 수입 ‘눈길’(2/21, 노동신문; 7/23, 연합뉴스)
 - 23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공기정화 설비를 1천4만 달러(약 103억 원) 어치 수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노동신문은 지난 2월 21일 건물 골조 공사 다음에 쓰이는 자재를 ‘마감건재’로 분류하며 현대적인 마감건재의 특징으로 “방화성, 보호성, 흡음성, 공기조화 및 공기정화성”을 제시함.

- 北, 올 5~6월 中에 희토류 대량 수출...19억원 규모(7/27, 연합뉴스)
 - 27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5월 희토류 광석을 중국에 55만 달러 어치 수출한 데 이어 6월에는 132만9천여 달러 규모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작년 1월 중국에 처음으로 희토류 광석(2만4천700 달러 어치)을 수출하고 나서 잠잠하다가 15개월 만에 갑자기 두 달간 187만9천여 달러(약 19억3천만 원·6만2천662kg) 어치를 수출한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올해 1~6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5억7천122만 달러 어치로 지난해보다 23%나 감소했으며, 철광석도 올해 1~6월 대중 수출액이 1억2천69만 달러로 작년보다 5%가량 줄었다고 뉴스는 덧붙임.

라. 대외 경제관계

- “美 NGO ‘우물파기’ 중장비 대북 지원”(7/23,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미국 민간단체 웰스프링(Well Spring)이 미 상무부 수출 허가를 받아 우물을 파는 중장비를 다음 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함.

- 北, 10월 이전 국제기구와 자금세탁 개혁 논의(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 가입한 데 이어 10월 이전 이들 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북한은 또 FATF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아시아태평양 지부 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오는 10월 전체회의 이전에 ICRG와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VOA가 전함.

● **美 NGO, 북한에 8억원 상당 의약품 등 지원(7/2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비영리구호단체가 북한에 80만 달러(약 8억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미국 민간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말 북한에 의약품과 위생용품을 보냈으며 이달 말께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힘.

- 5월1일경기장(능라도) 개건 보수공사 총 공사량의 75% 진척 선전(7.21, 중앙통신)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장마철 석탄 생산성과(매일 계획 초과 수행) 선전(7.22,중앙통신)
-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 전시회, 7월 23일 평양에서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등 참가한 가운데 개막(7.23,중앙통신·중앙방송)
- 쌍용광산, 7월 ‘린정광’ 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7.24,중앙방송)
- 北 기상수문국, 태풍10호의 영향으로 폭우와 많은 비를 예견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을 통보(7.24,중앙통신)
- 평양시 도로관리원들의 회의, 7월 25일 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 인민위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7.25,중앙통신)
- ‘각지 영양소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각종 의료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영양의료 봉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라고 선전(7.25,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201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추진”(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2016년 안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영국 외교부의 2분기 북한인권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16년 말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압록강 유역 폭우 경보(7/2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1일 ‘기상경보’에서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압록강 유역에서 40~70mm, 부분적으로 100mm 이상의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고 전함.

- 방송은 22일 새벽부터 낮까지 청천강 유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도 30~50mm, 부분적으로 7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북한이 장마철에 대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축구학교, ‘공부’도 열심히…국제대회서 선전(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의 대표적인 유소년 축구양성소인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축구실력뿐 아니라 다른 학과목 실력도 뛰어나다고 소개함.
- 통신은 “학생들은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이용해 국제경기 장면들을 분석하고 선진 축구기술지식도 습득하고 있다”라고 밝혀 이 학교가 ‘생각하는 축구’를 장려하고 있음을 덧붙임.

● **태풍으로 北 곳곳에 폭우…20개 시·군서 200mm 이상(7/26, 조선중앙통신)**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후 6시 사이에 마트모가 북한 서해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남포시의 전역,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황해남북도, 함경북도,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함.

● **기상수문관측계기연구소, ‘홍수·폭우 피해 미연에 방지’기대(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근 기상수문관측계기연구소에서 “전도되박식 강우량계” 개발로 “전국적으로 실시간적인 강우 관측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며 ‘홍수·폭우 피해 미연에 방지’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 **北, 토론식 수업 중요성 강조…수업방식 바뀌나(4/15, 인민교육; 7/27,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7일 입수한 북한의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 2014년 2호(4월 15일 발행)는 김정숙제1중학교 리영철 교장이 기고한 ‘수업시간에 토론, 논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뉴스는 전함.

- 인민교육에 의하면 리 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토론, 논쟁을 많이 시켜 그들의 사고를 최대로 계발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평양국제축구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기술 지식보급실을 이용하여 국제경기 장면들을 분석하고 선진축구 기술지식도 습득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어, 수학과목 실력이 하나같이 뛰어나다”고 선전(7.22, 중앙통신)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北에서 장마가 시작되었다’며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가 내리고 있다’고 보도(7.22, 중앙통신)
- ‘세계 말라리아의 날’ 즈음 행사, 7월 23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진행 및 중앙과 각 도들에서 말라리아 방지를 위한 집중선전과 예방활동 전개(7.23, 중앙통신)
- 리향미 선수(女 51kg급) 금메달 등 ‘제4차 중국 공개(오픈)복싱대회’ 北 선수들 善戰(권철국, 男 56kg급 2위 등) 및 7월 23일 귀환 소식 보도(7.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선수들, 2014년 국제항공연맹 몽골컵 모형항공자유비행경기대회(7.21~23)에서 우수한 성적(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획득)정취(7.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에도 조선의 곳곳에서는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체육열풍’ 보도(7.25, 중앙통신)

07.28-07.31

7월

5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한민구 국방장관 연일 원색 비난(7.30)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UFG 강행 시 청와대·백악관 타격목표(7.31)
- 최근 북한 미그-19 전투기 3대 추락, 비행훈련 잠시 중단(7.30)
- 300mm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7.30)

2. 핵문제 및 외교

- 북한군 총정치국장 “자주권 위협하면 美 본토 핵공격”(7.28)
- 미국의 대응에 대비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구축할 것을 주장(7.28)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서 北미사일 우려 의장성명 채택(7.28)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정전협정 체결일에 6·25전쟁 ‘열사묘’ 참배(7.28)
- 김정은 黨 제1비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7.28)
-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 답사행군 지시해 간부 기강 잡기(7.31)

4. 경제

- 5천원권 지폐 새로 발행해 당분간 구권과 혼용(7.30)
- 올 상반기 중국산 곡물 수입 작년 절반으로 줄임(7.30)

5. 사회

- ‘남녀평등’ 공표일 맞아 가정과 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여성상 강조(7.30)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한민구 국방장관 연일 원색 비난(7/30,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30일 서기국 보도에서 “한민구는 감히 체제의 생존이니 뭐니 하는 헛나발질을 하다가는 우리의 첫 번째 별초 대상이 돼 국방부 장관 병거지는 고사하고 명줄도 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입부리를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서기국 보도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의장이던 한 장관이 “숨 넘어갈 듯 빈 입만 짹짹 다셨다”며 한 장관이 이달 초 연평도를 찾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강조한 것도 조롱함.

● 北단체 “UFG 강행시 청와대·백악관 타격목표 될 것”(7/31, 연합뉴스)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31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은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침략무력,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전략 및 전술로켓을 비롯한 강위력한 최첨단 초정밀 화력 타격수단들의 목표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담화는 올해 UFG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공식 적용되는 데 대해 “사실상 우리에게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국과 괴뢰군부 불한당들의 이런 광란적인 소동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파국의 위협에 처하게 됐으며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함.

3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적대관념으로 모든 것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7/2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8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문제를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라며 ‘남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우리(北)의 진정 어린 참가의사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적대관계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서해 동창리 발사장 증축 내년 끝날듯”(7/29, 38노스)**

-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의 증축 작업을 내년 까지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9일 전망함.
- 38노스는 지난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발사장의 로켓 지지대에 위쪽으로 3개 층이 새로 생겨났으며 지지대의 형태로 볼 때 이 지지대가 완성되면 30m 높이였던 은하3호보다 더 큰 50~55m 높이의 발사체를 장착할 수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함.
- 발사대로 향하는 진입로 확장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더 큰 로켓을 발사장으로 직접 옮길 수 있도록 새로운 연결 철로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사이트는 덧붙임.

● **최근 북한 미그-19 전투기 3대 추락…노후화 심해(7/30,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비행 훈련에 나선 북한의 미그-19 전투기가 지난달과 이달 등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추락했다”면서 “북한이 옛소련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미그 계열의 전투기 노후화가 심하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힘.

- 이 소식통은 “이달 초에도 황해도 곡산 비행장에서 이륙한 미그-19가 추락한 이후 해당 기종의 비행훈련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함.

● **北, 300mm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7/30, 연합뉴스)**

- 북한이 7·30 재·보궐선거일인 30일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평안도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오늘 오전 7시30분과 7시40분께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2회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그러나 수 초 정도만 비행한 것으로 보서는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또 오후 5시50분과 6시께 같은 지역에서 역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추가로 발사했으며, 각각 210여km와 130여km로 사거리가 불규칙했다”며 “210여km를 비행한 발사체는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10주년 ‘남북 근로자 음악회’ 추진(7/29,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말께 남측 연주자들이 방북,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야외 공연을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연합뉴스가 밝힘.
-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말부터 통일부, 현대아산과 음악회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순수한 민간 문화 교류라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인천 AG 취재인력 파견 계획…ABU에 지원 요청”(7/30, 자유아시아방송(RFA); 아시아태평양방송)**

-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취재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ABU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ABU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취재인력 6명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하며 북한이 “(취재인력) 초장장과 (경기) 일정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RFA가 전함.

● **남북 천도교, 개성서 공동행사 협의(7/30, 연합뉴스)**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천도교가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 등 남북 공동 행사 협의와 관련해 방북을 신청해 승인했다”며 “정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고 이런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 南주민 시신 1구 판문점 통해 인계 (7/30일, 연합뉴스)**

- 북한에서 발견된 남측 주민 시신 1구가 30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황해남도 웅진군 대기리 앞바다에서 남측 주민 사체 1구를 발견했으며 이를 30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옴.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군 총정치국장 “자주권 위협하면 美 본토 핵공격”(7/28, 노동신문)**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핵 타격수단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든다면 우리 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 상의 미제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함.
 - 황 총정치국장은 “7월 27일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적 존엄을 만방에 과시한 제2해방의 날”이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통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계승할 것을 강조함.
 - 이어 “인민군대를 최정예 혁명강군, 오늘의 김정은빨치산으로 만들겠다”며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금수산태양궁전과 당 중앙위원회를 한목숨 바쳐 사수하는 김정은 제일친위대, 제일결사대가 되겠다”고 다짐함.
- **北, 재미 이산가족 “정치적 악용말라”…미국 비난(7/31, 조선중앙통신)**
 -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31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하원이 재미동포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문제를 정치화해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악용하는 것은 날강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해외동포들의 북한 방문과 송금까지 막고 조국 방문길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북침 핵전쟁연습 등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한미훈련 대응 정례화”…미사일 발사 계속할 듯(7/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술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명실공히 대조선 침략전쟁 연습”이라면서 “미국의 전쟁행위에 대처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계속 다져 나갈 것이며 대응 행동도 연례화·정례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논평은 “우리의 전술로켓 발사를 미국·남조선 해상합동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어리석은 망언”이라며 “우리의 자위적인 전술로켓 발사훈련은 정당하고, 부당한 것은 오직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쟁 책동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뿐”이라고 비난함.

- 北, 가쓰라-태프트 밀약 비판…“美的 침략기도 여전”(7/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죄악의 역사는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해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서로 공모 결탁해왔다”며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지지도,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민에게 원한을 남긴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일제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토대로 을사 5조약, 정미 7조약, 한일합방을 날조해 우리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며 “하여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은 일제에 짓밟히며 피를 흘리게 됐다”고 지적함.

- 北통신, 美 종교자유보고서 비난…“위선의 극치”(7/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치졸한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3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억압을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해마다 벌여놓고 있는 각종 명목의 보고서 발표 놀음은 우리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광대극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함.

- 이어 “이러한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종교의 탈을 쓰고 비법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징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미군 기지촌 성매매’ 비난…“인권유린국은 미국”(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벌거벗은 미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25 전쟁 이후 기지촌 성매매 문제를 주한미군의 ‘위안부 범죄사건’으로 주장하며 “미국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운운하기에 앞서 저들의 인권윤리 죄악부터 역사와 인류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논평은 최근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과 한국 정부가 6·25 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언급하고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하마스·헤즈볼라 연계설은 미국의 날조”(7/28,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하마스와 무기거래 보도와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고립을 추구해 꾸며낸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꾀변이며 날조”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사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미국이 반대표를 던져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 됐다고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우리를 그들이 규정한 이른바 테러단체들과 억지로 연관시켜 국제사회의 비난의 초점을 우리에게 돌려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日납치담당상 “이르면 8월말 北조사결과 나와”(7/29, 지지통신)**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이르면 8월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지통신이 29일 보도함.
- **“조선총련 간부 방북…대북제재 해제 후 첫 사례”(7/31, 산케이신문)**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부의장을 지낸 고덕우 조선총련 서(西)도쿄본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복수의 조선총련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함.
 - 신문은 고 위원장이 허종만 조선총련 의장보다 먼저 방북한 것은 조직 내부의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조선총련 안에서 두 사람(허 의장과 고 위원장)의 동향을 둘러싼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는 조선총련 관계자 발언을 전함.

사. 대러시아

- **北, 러시아-주변국 군사훈련 옹호…“나토 견제 당연”(7/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응한 옛 소련권 군사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군사훈련 소식을 전하며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 강화는 당연하다”고 강조함.
 - 신문은 “얼마 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합동지휘참모훈련 ‘루베쥬 2014’가 진행됐다”며 최근 러시아 주도로 CSTO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군사훈련들을 소개함.

아. 국제기구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서 北미사일 우려 의장성명 채택”(7/28, 교도통신)
 -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 의장국인 미얀마가 각국에 배포한 성명안은 북한이 핵포기를 약속한 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음.
 - 이번 각료회의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참가국들의 핵·미사일 문제 우려 표명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통신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北 외무성 성명(7.19)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7.20)를 24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식문건 ‘S/2014/512호’로 배포(7.28, 중앙통신·평양방송)
- 日 ‘조국해방전쟁승리’ 61주년 경축 「총련」 중앙강연회(7/28, 조선중앙방송)
- 미국의 “조선반도에서 모든 침략전쟁 책동은 〈유엔군〉의 간판밑에 감행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7.29,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의회 ‘VOA-RFA 개혁’ 추진...VOA의 공식 임무를 미국 정책과 공공외교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하기로 함(7/29, 연합뉴스)
- 스위스 이탈리아어지역 공산당 대표단, 7월 30일 귀국(7.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들(단장 : 리영생·김용대), 7월 31일 평양 도착(7.31, 중앙통신·평양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일에 6·25전쟁 ‘열사묘’ 참배(7/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27일 오전 10시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애국가 주악에 이어 꽃바구니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다”며 김 제1위원장과 참가자들의 추모 묵상 이후 군 명예위병대(의장대)의 분열행진이 있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열사묘를 둘러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유명무명의 열사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이 깃들어 있다”라며 “전쟁 참가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가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힘.
 - 통신에 따르면 황병서, 리영길, 현영철, 변인선, 서홍찬, 박영식, 럽철성, 조경철 등이 함께 관람함.
- 北 김정은, 간부 기강 잡기…백두산 답사행군 지시(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전국 당 책임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시작됐다”라며 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전날 양강도 보천보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신문에 의하면 특히 김기남은 김 제1위원장이 당 고위간부들의 답사행군을 지시한 의도는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 것을 뼈와 살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전승의 7.27이 있어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7/28, 조선중앙통신)**
 -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의 자주적 삶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대진군의 활력은 승리의 7.27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며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전승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 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함.
-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애국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기치(7/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저작(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2012.7.26) 발표 관련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기적 창조에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김정일애국주의 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고 주장함.
-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본분을 다하자(7/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1946.7.30) 68주년 관련 ‘여성들은 당과 수령을 양심과 의리로 받들어 나가는 충정의 인간, 견결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들'이라고 지적하며 '당의 선군영도 따라 새로운 주체 100년 대진군에서 혁명적 기개를 더욱 높이 떨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신 강반석 여사(7/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강반석(김일성 母) 사망(7.31) 82주기를 맞아 강반석은 '조선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라며 '김일성을 낳아 키우고 그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긴 위대한 어머니였다'고 칭송함.
 - 통신은 최태복·최룡해·양형섭·최부일 등, 7월 31일 평양 칠골혁명사적지 강반석 동상과 만경대 묘에 화환 진정했다고 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7월 31일 새 살림집에 입주한 고산과수농장 종업원들(2,000여 세대)에게 '문화용품' 선물 전달(7.31,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최근 경공업부문, ‘옥쌀생산공정 및 성형기’ 등 선전(7/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며 곡물가공연구소에서 개발한 ‘옥쌀(분말형태로 가루를 내어 쌀알처럼 성형하여 만든 제품) 생산공정 및 성형기’ 등 선전함.
- “北, 5천원권 지폐 새로 발행…당분간 구권과 혼용”(7/30, 연합뉴스)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30일 북한 무역 관계자의 전언이라며 “오늘부터 북한이 5천 원짜리 지폐를 새로 발행해 시중에 유통한다고 들었다”면서 “다른 지폐는 그동안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쓴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소식통은 “기존 5천원권에는 김일성 초상화만 있었지만 새로 발행한 최고액권 지폐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임.
- “北 아리랑 공연 내년부터 재개”(7/31,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여행 전문 고려여행사는 홈페이지에서 “2014년에는 아리랑 공연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담당자들에게서 확인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아리랑 공연이 열릴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함.
 - 이어 아직 북측으로부터 정확한 공연 날짜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일단 내년 7~8월 관광상품에는 아리랑 공연 관람 일정을 포함했다면서 내년에는 광복과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농업전문가 6명, 독일서 유기농업 연수”(7/3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농업전문가 6명이 독일에서 유기농업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교육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함.
 - 북한 농업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생산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유기농 연구로 유명한 카셀대학과 유기농 농장·기업 등을 방문해 독일 농업현황을 살펴봤으며, 이 사업으로 북한 4개 협동농장의 농민·농업지도원 1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VOA가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 ‘다효능’ 머드화장품 선전…“화상 치료도 효과”(7/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북한에서 서해의 머드 성분을 추출해 개발한 새 화장품 ‘진주’가 인기있다고 소개하며 “광량만 유향 감탕(진흙)은 면역기능,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신경통·비만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이용돼왔다”며 “피부치료 효과도 오래전부터 지적돼왔으나 염도가 높아 화장품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함.
 - 조선신보는 “화장품이면서도 치료 효과가 높으므로 화상이나 벌레 물린 데 외상치료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다른 화장품과 구별되는 것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전함.
- 국제커피기구 “북한 주민 1년에 평균 커피 7잔 마셔”(7/3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0일 국제커피기구(ICO)가 자체 통계와 세계 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커피를 연평균 1만9천 포대(60kg짜리)씩 수입했다고 전함.
 - ICO 보고서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커피 수입량이 1천 포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2000년대 들어 커피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ICO는 평양 등에 서구식 커피숍이 여러 개 등장했음에도 가격 때문에 커피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함.

● **나선시 북한産 체코 맥주 인기…“평양서도 찾아와”(7/30, 미국의소리 (VOA))**

- 체코 유명 양조회사의 지원을 받아 북한 나선시에서 생산된 체코식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북한에 파견된 즈부 포테즈의 양조 전문가 토마스 노보트니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맥주를 좋아한다”며 “평양 시민들이 단지 이 맥주를 맛보기 위해서 나선을 찾는다고 한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올 상반기 중국산 곡물 수입 작년 절반으로 줄여(7/30, 연합뉴스)**

- 30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곡물은 모두 5만 8천387t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 12만 4천 228t의 47.0%에 불과한 규모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올해 상반기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곡물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은 밀가루(4만 142t)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쌀과 옥수수는 각각 1만 3천831t과 3천420t으로 특히 옥수수는 작년 수출량(1만 7천655t)의 20%에도 못 미쳤다고 뉴스가 보도함.

- 평안남북도·평양시 등 여단 건설자들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성과(7월 굴착과 성토, 타입계획 초과 수행) 선전(7.28,평양방송)
- 황해북도 산원 (사리원시에 건립) 개원식, 7월 29일 강하국 (보건상)·박태덕 (황해북도黨 책임 비서)·임훈 (道 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7.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천연강옥으로 강공한 각양각색의 보석들(청옥·홍옥의 장식품 등) 선전 및 평양시 만경대구역 태양열설비보급사에 다양한 형태·규격의 보석제품 생산 단위 조성 소개(7.29,중앙통신)
- 제13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개막(7.29,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남녀평등’ 공표일 맞아 ‘슈퍼우먼’ 역할 강조(7/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1면 사설에서 북한 여성들을 ▲당과 수령을 양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정의 인간이자 견결한 혁명가 ▲사회주의 수호와 조국변영을 위해 피와 땀을 바쳐가는 열렬한 애국자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가꿔가는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 등으로 치켜세움.
- 그러면서 여성들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힘찬 전진을 위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청소년에 교양 강조…‘이색풍조’ 차단 노력(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평양 청년동맹회관에서 전날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계급교양·도덕교양에 관한 청년동맹 일꾼들의 연구토론회’가 열렸다고 전함.
-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상사업의 하위 분야로 제시한 것으로 ‘4대교양’으로 통하며,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4대교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신문은 전함.

마. 사회 동향

● 외부세계 ‘장벽’ 허무는 北…주민-외국인 접촉 늘려(7/3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0일 캐나다 비정부기구(NGO) ‘평양 프로젝트’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과 북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도함.
- 이 프로그램에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6~7개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 30여명이 참가해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평양, 개성, 원산, 청진 등을 돌며 금수산태양궁전, 흥남비료공장 등 북한의 주요 시설과 선전물 등을 탐방하며,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창 밖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VOA가 전함.

● ‘전승컵 전국 태권도 강자경기대회’, 함경남도 함흥에서 개막(7/28, 조선중앙통신)

- ‘전승컵 전국 태권도 강자경기대회’, 7월 28일 태종수(함경남도 당위 책임 비서)·전광호(도인민위원장)·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장/개막연설)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함경남도 함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힘.

● 北에도 복날 보양식 ‘열풍’…“보신탕집 초만원”(7/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연중 제일 더운 계절인 삼복에 들어서면서부터 평양시 안의 단고기집(보신탕집)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삼복을 맞아 시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단고기 요리를 더 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품평회가 진행됐다”라며 “품평회에는 매 구역의 단고기 요리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식당들이 자기 구역을 대표해 참가했다”고 소개함.

● “5cm이하 힐은 안 신어”…북한서도 ‘킬힐’ 인기(7/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평양발 기사에서 ‘보통강신발공장’을 소개하며 최근 북한의 젊은 층에 화려한 디자인의 신발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함.
- 보통강신발공장의 리미옥(44·여) 지배인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여성들은 뒤축이 5cm 이하인 낮은 구두는 안 신는다”라며 이런 선호를 반영해 구두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함.

-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 수영대회, 7월 28~31일 창광원 수영장에서 진행 (7.31,중앙통신)
- 최근 北의 각 도·시·군들에 ‘미래원이 일떠서고 있다’며 ‘미래원들은 과학기술 지식 보급의 거점으로서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로 붐비고 있다’고 선전 (7.31,중앙통신)

08.01-08.03

8월

1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비난(8.3)

2. 핵문제 및 외교

- 특이사항 없음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강선 천리마타일공장 시찰(8.3)
- 리수용 외무상, 아세안 순방 시작(8.2)
- 박봉주 내각총리, 중석화협동농장·흡협동농장·농기계작업소 현지요해(8.2)

4. 경제

- 경공업 부품의 품질향상 노력(8.3)
-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18~8/21 나선시에서 개최(8.2)
- 북·중, 엔지-나선 관광직통버스 운행 개시(8.3)

5. 사회

- 특이사항 없음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정전협정 기념식 비난…“패전을 승전으로 둔갑”(8/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영원한 패전자, 산송장들의 꼴불견스러운 녀두리 행보’란 제목의 ‘군사논평원’의 글에서 “7·27을 계기로 미국과 남조선, 그 추종국들의 망동(기념식 지칭)은 만천하에 저들의 수치와 참패만을 재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 군사논평원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와 올해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맞아 진행한 기념행사와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을 “구슬픈 장송곡 울린 기념공연”, “유엔군 참전국에 섬겨 바친 추모 제상”, “산 송장들에 수여된 파철메달” 등으로 폄하함.
- 北, 美 MD체계 南 배치는 “군사적 패권 강화 속셈”(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흉악한 속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을 거론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설은 주변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괄한다”며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힘.

- 北 “美 도발 계속되는 한 초정밀전술무기 더 만들 것”(8/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듭 비난하고 미국의 ‘침략전쟁도발행위’가 계속되는 한 “고도로 정밀화된 전술유도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3일 ‘침략자들은 우리의 무자비한 타격에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침략 무리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싸움준비를 강화하고 로켓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더욱 발전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권리이며 의무”라며 이같이 밝힘.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억류’ 케네스 배 가족, 美정부에 송환노력 촉구(8/1,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전날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배씨의 발언을 보도한 뒤 그의 가족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호주, 북한 여행 주의보...“방북계획 재고” 권고(8/1, 미국의소리(VOA))
 - 호주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호주 정부는 북한에서는 여행객의 행동에 제약이 있고 서방과는 많이 다른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행 주의보 발령 이유로 들어 최근 호주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북한에서 임의로 구금·억류된 사건을 언급하며 “외부에서 사소한 일이 북한에서는 체포나 감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대표단, 8월 1일 평양 출발(8.1.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타일공장 시찰…“국산화로 생산 정상화하자”(8/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포시 천리마구역 강선에 있는 천리마 타일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공장에서는 타일에 대한 국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생산량과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함.
 - 김 제1위원장의 타일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리수용 외무상 아세안 순방 시작(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 당초 리 외무상은 이들 4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앙통신 보도에는 싱가포르도 방문 국가에 포함됨.
- **박봉주, 중석화협동농장·흡협동농장·농기계작업소 현지요해(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박봉주(내각총리)가 중석화협동농장(평남 대동군)·흡협동농장·농기계작업소를 현지요해했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용성-서포지구 살림집건설장들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협의회에서 살림집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며 건설물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서와

연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 강구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84.8.3) 3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8/3, 조선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84.8.3) 30주년 기념 보고회가 김기남·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보고)·안정수(당중앙위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함.
- 또한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에는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고 더 좋은 소비품을 안겨주려는 김정일의 노고가 깃들어 있다’며 ‘모두다 1980년대의 정신과 투지로 분발하여 질 좋은 갖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자’고 독려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당 김일성주의화’ 40주년…김정은 유일영도 강조(8/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1면 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전 당 김일성주의화’ 방침을 계승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 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내세우며 “전 당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에 의하면 김 당비서는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혁명적 당의 생명이며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 담보”

라며 “일편단심 당 중앙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1,500여종·12만 4,000여점), 8월 1일~8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1,중앙방송)
- 전국 당 책임일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8월 1일 백두산 밀영 고향집 방문(청봉·건창숙영지 및 사자봉 밀영 답사 등) 및 회상기발표모임 등 진행(8.1,중앙통신)
- 김정일의 ‘전 당 김일성주의화 방침’ 제시(74.8.2)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8월 1일 4·25문화회관에서 김영남·김기남(보고)·최태복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 (8.1,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8월 2일 아시아 나라들(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방문차 평양 출발(8.2,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 발표 40돌 관련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상정신적 기초도, 반미 대결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전투적 무기’라며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어 나가자’고 주장(8.2,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정은 당 제1비서, 천리마타일공장 현지지도 및 노력혁신자들과 기념촬영 (8.3,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리재일, 한광상, 김정관 동행
- 전국 당 책임일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8월 3일 대흥단 일대와 무포숙영지 답사(8.4,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경공업에 ‘경쟁 열풍’…인기 브랜드 속속 등장(8/3, 연합뉴스; 조국)
 - 북한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의 품질 향상을 위해 눈에 띄게 힘을 쏟는 모습이라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최일룡 내각 경공업성 부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경공업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의 열풍 속에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 최 부상은 경공업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봄향기’와 ‘은하수’ 화장품, ‘류원’ 신발, ‘철쭉’ 양말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으며, 또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가 “경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 열풍이 일어나게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 월간지 ‘조국’은 북한의 양대 화장품 브랜드인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와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가 경쟁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통강무역회사가 진흙 성분을 활용해 개발한 ‘진주’ 화장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농업생산을 추동하는 과학연구 성과” 선전(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의 벼모판 종합영양제의 공업적 생산 공정 확립과 다원소 광물질비료 및 수류진공펌프·원심분리기·진공건조기 등 “농업생산을 추동하는 과학연구 성과”를 선전함.

●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선시에서 진행 예정 (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시회 기간에 회사소개, 상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조직하며 나선경제무역지대와 여러 나라 사이의 광범하고 다방면적인 상품 및 기술교류, 판로개척,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함.
- 전시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선전함.

● 北 ‘8·3생활품’ 생산운동 30주년…“제품 질 높이자”(8/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3일 ‘1980년대처럼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활발히 벌이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품의 이용자는 인민”이라며 “8·3인민소비품 생산에서도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고 밝힘.
- 특히 사설은 8·3생활품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8·3생활품 생산단위들에서는 질을 위주로 총화·평가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평양에서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1천500여 종, 12만4천여 점의 제품이 전시됐다고 전함.
- 이날을 기념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3생활품 생산운동 발단 30주년 중앙보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러시아 연해주 파견 北 노동자 증가”(8/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연해주 정부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연해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모두 6천610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함.

- RFA는 연해주가 올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음에도 북한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었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진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 **북·중, 옌지-나선 관광직통버스 운행 개시(8/3,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이 두만강 하구의 양국 교역 거점인 지린성 옌지(延吉)시와 나선시를 연결하는 관광직통버스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3일 보도함.
-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해 나선시에 가려면 북한 원정리 출입국사무소에서 북한 측 버스로 갈아타야 했지만, 새 직통버스는 환승이 필요없어 옌지에서 나선까지 총 4시간이 소요된다고 통신은 소개함.
- 북한과 이번 사업을 합작한 중국 측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나선시 관광상품(1박2일)과 연계해 관광직통버스를 매주 화요일~토요일 운행할 계획이며, 옌지-나선 관광직통버스 운행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옌지시 여유국(관광국) 왕연보(王延波) 부국장은 “북한 나선시 관광부문은 개방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북한 측이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통버스 운영을 건의해 성사됐다”고 말함.

-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7월 인민경제계획을 117%로 초과 수행(8.2,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도 폭염…함흥 최고기온 35.2도(8/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함경남도 함흥의 낮 최고기온이 35.2도로, 8월 1일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았다고 보도함.
 - 방송은 1일 북한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으며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차양모와 양산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함.
- **“北 평양 인구 300만 돌파 추정”(8/2,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컨설팅기관인 ‘데모그라피아’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평양 인구가 306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전함.

- VOA에 따르면 데모그래피아의 2012년 보고서에서 평양 인구는 286만 5천 명이었으며 지난 2년 동안 평양 인구가 약 20만 명 증가한 셈이라고 밝힘.

● “평양 프로레슬링대회에 밥 샐 등 격투기선수 참가”(8/2, 미국의소리 (VOA))

- 미국의소리(VOA)는 2일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에 관여한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의 언급을 인용해 이달 30~31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프로레슬링 대회에 이종격투기 대회 K-1에서 활약한 밥 샐과 제롬 르 밴너(프랑스), 피터 아츠(네덜란드) 등 8개국의 이종격투기·프로레슬링 선수 17명이 참가한다고 전함.

- 문수물놀이장(평양 대동강변, 연건평 10만 9,000m²)의 ‘하루 평균 1만 명 이용 등 각계층의 남녀노소 초만원’ 선전 및 ‘김정은 노고’ 칭송(8.1,중앙통신)

08.04-08.10

8월

2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관계 개선 기여(8.4)
- 한미UFG연습에 핵·미사일 강화 훈련의 정례화 위협 등 연일 중단 요구
- 육군 28사단 소속 윤 일병사건에 식민지 고용군 비난(8.5)
- 조평통,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해체 주장(8.7)

2. 핵문제 및 외교

- 北, 북일 납치 1차 조사결과 통보 9월 상순 예정(8.5)
- 美과학국제안보연구소,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지속적 확충(8.6)
- 美 대북제재 강화법안 통과에 비난(8.7)
- 아세안안보포럼 의장성명 초안 北미사일 발사 우려(8.8)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천지유희유공장 시찰(8.5)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양말공장 시찰(8.7)
- 김정은 黨 제1비서, 기계공장 시찰(8.10)
- 북한·베트남 외무장관 회담서 관계증진 합의(8.6)
- ‘김정은의 공격정신’ 배워 속도전 동참 촉구(8.6)

4. 경제

- 내년 관광객 대상 국제골프대회 금강산서 개최(8.5)
- 美단체,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 1980만달러로 크게 증가(8.7)
- 러시아 기업대표단, 올가을 북한 경제개발구 시찰(8.7)

5. 사회

- 피서철 워터파크·해수욕장 초만원(8.4)
- 中 당국, 접경에서 대북지원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조사(8.8)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조평통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해체해야”(8/7,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서기국 보도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을 지칭하며 “민심의 규탄에 급해진 국정원이 이름을 교체하는 놀음에 매달렸지만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보려는 가소로운 추태”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거론,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인권유린행위를 해 간첩 사건들을 조작해 논란이 됐다며 “이름 교체 놀음은 인권유린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공작을 공개적으로 벌어나갈 기도를 드러낸 광대극”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살인과 폭행으로 길들여진 식민지 고용군(8/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육군 28사단 소속 윤 일병사건 관련 ‘軍에 끌려간 수많은 청년들이 극도의 인간 증오사상과 동족 적대의식에 물젖어 살인과 약탈을 업으로 삼는 야수의 무리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며 ‘최악의 인권유린, 부패집단인 軍이 처박힐 곳은 역사의 무덤’이라고 왜곡 비난함.
 - 또한 통신은 일병사건 관련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썩을 대로 썩은 괴뢰군 내부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군을 살인마로 길들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로 내모는 한 그런 비극적 현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南, 낡은 대결이념에서 벗어나야 관계 개선”(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대결정책은 파산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당국자들이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을 거론하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에는 냉담하다고 주장함.

- 특히 “남조선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의 뚜렷한 산물”이라고 지적함.

●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의 성노예 범죄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여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駐韓美軍을 상대하는 ‘기지촌 성매매’ 관련 ‘韓美 당국에 의해 적극 비호 조장되고 있는 성노예 범죄’라고 규정하고 韓美 당국의 ‘사죄와 책임’ 주장 및 ‘주한미군 철수와 죄악 총결산 투쟁’을 선동함.

● **北 노동신문 “남북관계 악화 책임은 南에 있다”(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온 민족이 합심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그러나 남측 당국이 “동족의 순결한 의도에 먹칠하고 어떻게 하나 자신들의 반통일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민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동족의 제안은 뿌리치고 외세에 매달려 반공화국 공조와 북침전쟁 도발소동에 피눈이 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북남관계를 해치려는 고의적인 책동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ARF 외교전 돌입…“南 만나 얘기할 일 없어”(8/9,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9일 남북이 이번 회의 기간에 별도로 접촉할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대표인 리수용 외무상을 수행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9일 ‘남북이 이번에 접촉하느냐’는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만나서 얘기할 일은 없다”고 말했으며, 또 ‘아시안게임 참가가 남북 의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회의 준비하느라 바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자위적 훈련의 년례화, 정례화는 정당한 권리(8/4,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4일 韓美 합동군사연습(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에 대해 ‘우리(北)의 핵·미사일 강화 군사훈련 년례화·정례화 맞대응’ 재강조 및 한반도 유사 시 “미국 본토도 무사할 수 없다”고 위협함.
 - 평양방송은 4일 韓美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실시 및 ‘맞춤형 억제 전략’ 적용은 “우리(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비난함.
- **北 신문 “평화 위해 핵무력 질량적으로 더 강화할 것”(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평화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에 있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미국의 핵 우위가 완전히 깨어져 나갈 때 조선반도의 평화 보장과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한반도에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정세가 악화하는 원인은 “미국이 계절별로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달 열리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실전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고 우려함.
- **北 “한미군사훈련에 자위적 대응…핵실험도 포함”(8/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미국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현실적인 도발과 위협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호전적인 핵전략에 의해 산생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최근 UFG에 북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 각본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된다는 것이 발표됐으며 “미국의 핵위협과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로켓 발사는 美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8/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창과 방패의 대결, 로켓 발사훈련의 배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군이 발사하는 로켓은 화약고 주변에서 불장난하는 호전국가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경고탄”이라며 매년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함.
- 조선신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인민군의 로켓 발사훈련은 미국의 오판을 막기 위한 군사적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인민군은 미국의 도발이 금지선을 넘으면 한치의 편차 없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北 로켓 발사는 美겨냥 북한식 인내전략”(8/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창과 방패의 대결/ 로켓 발사 훈련의 배경(하)’ 제목의 글에서 “조선식 인내전략은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핵위협을 그만두지 않는 한 조선은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추구하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 등 국방력을 다지려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합동군사연습이 미국과 남조선에 있어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조선반도 영역을 벗어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이라”며 거듭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함.

● 北 신문, UFG 중단 거듭 촉구…“강력 대응 뒤따를 것”(8/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UFG 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밝힘.
- 특히 신문은 이번 UFG 연습에서 공식 적용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사실상 북침 작전계획”이라며 “우리에게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UFG 연습이 강행된다면 “조선반도 정세가 최극단으로 치달을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의 미군 기지들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평화애호

노력과 인내심을 잘못 판단하지 말고 도발적인 북침 핵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관계 개선 기여”(8/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북남관계 개선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는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더욱 흥성있게 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남한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는 평화와 친선, 단결을 목적에 둔 체육 활동인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정부, 인천AG 조추첨 입국 北대표단 지원키로(8/9,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조추첨을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북한 NOC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통하는 간접방식으로 이달 20~22일 인천에서 열리는 종목별 조추첨 행사와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최근 통보했다고 뉴스는 전함.
- ‘백두-한라’ 자동차 행진 출정식(8/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라’ 자동차 행진 출정식이 백두산정에서 진행되어 백두산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조선반도종단 자동차 행진단(단장 : 김철성 러시아 「고통련」 위원장)성원들 및 리성진(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등이 참석함.
- 통신은 우리민족끼리 이념밑에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함.

- 韓美 군부의 용산주둔 미군 평택 이전과 ‘韓-美 연합사단’ 창설문제 협의 관련 “침략자와 매국노의 위험한 공모결탁”이라고 비난(8.4,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지속적 확충”(8/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핵군축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6월 30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지난 4월 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원심분리기가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계속 건설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힘.
 - 원심분리기 건물 동쪽에 쌓여 있던 건설자재가 없어졌고, 원심분리기 건물과 북서쪽에 있는 비교적 작은 다른 건물을 연결하는 지붕 설치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ISIS는 설명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자위적 억제력 강화는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8/4,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4일 北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결의대회(7.27)’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탄두 로케트들을 갖추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美 본토공격 가능’ 지속 시사 및 ‘자위적 억제력 강화 노선과 정책 불변’을 강조함.

- **北, “美 ‘전략적 인내’는 오판”…정책전환 거듭 촉구(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파산에 처한 대조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미국 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며 “미국은 편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세에 부합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밝힘.
 -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조선 압살책동으로 나라의 최고이익이 침해당하는 엄청난 사태하에서 우리를 핵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함.
- **파산에 대조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8/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에서 美 對北 ‘전략적 인내정책’ 관련 ‘공화국은 미국의 핵공갈과 전면공격을 맞받아 대응할 수 있는 핵타격 수단과 정치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으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시간만 보낼수록 강력한 핵억제력은 더욱 정예화 되어 갈 뿐’이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함.
- **미국식 자유의 반동성(8/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미국이 부르짖는 자유는 돈 많은 자들의 자유이고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 말살하는 자본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이라며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美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한중 외교장관회담 中발표문, 6자회담 추진에 ‘무계’(8/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에 앞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간의 양자회담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문 형태로 게재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하고 조속히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양·다자 간 교류를 지속키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두 장관이 “북핵 불용,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에 대한 공동 인식도 재확인했다”면서 윤 장관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고 소개함.

● ARF 오늘 열려…北미사일·북핵 대화재개 논의(8/10, 연합뉴스)

- 남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국이 모두 참여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10일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개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특히 각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리트리트에서는 6자 회담국을 중심으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입장과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미국

● 北 신문, 美 대북제재법 비난…“공연한 헛수고 말라”(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제재몽둥이를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는 글에서 “미국이 대조선 제재와 압박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미 국회 하원에서 그 무슨 ‘대북제재 강화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 놀음을 벌인 것이 대표적 실례”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이 나라들 사이의 호상(상호)관계가 점점 더 심화되는 현시대에 낡은 제재몽둥이를 휘둘러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감각이 무딘 망둥”이라고 비난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일 외무상, 10일 미얀마 ARF 때 비공식면담”(8/4, 교도통신)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오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 회의를 계기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선채로 비공식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 기시다 외무상은 당초 리 외무상과 정식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최근 잇달아 탄도 미사 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는 한국과 미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회동의 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9월상순 납치문제 1차 조사결과 통보”(8/5, 요미우리신문)

- 지난달 4일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한 북한의 첫 조사결과 보고 시기에 대해 양국 정부가 물밑에서 조율한 결과, 북한 측이 ‘9월 상순에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소개하며 북측 조사결과와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이후에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함.
-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한 납북 피해자 12명과 납북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 중 특히 납북 가능성이 농후한 약 30명의 정보를 전달했으며, 먼저 이들 40여 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함.

● 조선신보 “北 주민들, 북일합의 성과 기대”(8/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신뢰를 쌓고 관계 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일 합의에 대한 정부기관 관계자, 호텔 종업원, 교사,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양 시민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평양 시민들이 북일합의 이행과정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양국 간 관계개선이 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함.

● “일본, 납치조사결과 청취 위한 북일회담 추진”(8/7, NHK)

- 일본 정부는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1차

조사결과를 청취하기 위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NHK가 7일 보도함.

- 북일 간 협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달 첫째 주로 예정된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NHK는 소개함.

● “北, 외환마진거래 활용해 돈세탁 의혹”(8/8, 산케이신문)

- 산케이신문은 무허가 FX거래 혐의로 지난달 오사카(大阪)부 경찰 당국에 체포된 시즈오카(静岡)현 소재 무역회사 대표 A(41)씨가 가지고 있던 수십개의 고객명의 계좌가 북한 당국의 자금세탁에 사용된 혐의가 경찰에 포착됐다고 8일 보도함.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기관인 정찰총국이 중국 저장(浙江)성에 차린 위장회사 소속 기술자들이 A씨 측 컴퓨터를 원격 조작해 FX거래를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아세안안보포럼 의장성명 초안 “北미사일 발사 우려”(8/8, 니혼게이지아이신문)

- 8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채택될 의장성명 초안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함.
- 반면 북일 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에 언급, “북일 평양선언(2002년)에 기초한 일본과 북한의 최근 대화를 환영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었다고 신문이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리수용 북한 외무상, 5일 베트남 방문(8.4, 베트남소리방송(VOV))
- 北 정부대표단 (단장: 리수용 외무상), 8월 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도착 (8.5,중앙통신·중앙방송)
- 駐이탈리아 미군 병사 2명의 로므니아 임신부 강간사건 거론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 세계의 특등 범죄집단’이라 비난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살인강도 미군을 제 소굴로 쫓아버려야 한다’고 강조(8.5,중앙통신·민주조선)
- 러시아-조선반도종단 자동차행진단(단장: 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겸 러시아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8월 8일 두만강역 도착(8.8,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김정은, 천지윤활유공장 시찰…“국제경쟁력 갖춰야”(8/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은 승용차 등의 차량과 각종 기계류에 쓰이는 윤활유 생산공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건설됐다고 밝힘.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의 분석실, 종합생산지령실, 윤활유작업반, 그리스작업반, 사출작업반 등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천지윤활유공장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숫자화(디지털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함.
 - 5일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평양양말공장 시찰…“경영전략 잘세워야”(8/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여자양말직장, 남자양말직장, 견본실 등을 둘러보고 양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인민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한다”며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 가치에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함.
 - 이번 시찰에는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 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기계공장서 “사용자 호평받는 제품 만들라”(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기계공장을 시찰하면서 사용자에 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새 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지난 시기의 기준과 대담하게 결별해야 한다”라며 “현실에서 커다란 은(성과)이 나타나고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함.
 - 김 제1위원장의 기계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부장,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영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등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베트남 외무장관 회담서 관계증진 합의(8/6, 연합뉴스)**
 - 리수용 외무상은 6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하노이 시내의 베트남 정부 영빈관을 찾아 팜 빙 밍 외무장관과 회동, 관계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외무상은 북한과 베트남이 1950년 수교 이후 오랜 기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 1월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라오스 국가수석과 총리, 8월 5일 리수용과 담화(8/6, 조선중앙통신)**
 - 라오스 국가주석(츨말리 사야손)과 총리(통싱 탐마봉)가 8월 5일 리수용(외무상)과 각각 담화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한 통신은 리수용(외무상)과 라오스 외무상(통룬 시술릿)도 8월 5일 라오스 외무성 청사에서 회담 진행했다고 밝힘.

- **김영남, 스웨덴 대사와 담화(8/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영남과 이임 주북 스웨덴 대사(칼 을로프 안데르손)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했다고 밝힘.
 - 또한 통신은 김영남이 코트디부아르 독립 54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전함.

- **“북한, 베트남과 경제협력 희망”(8/8, 베트남뉴스)**
 - 베트남뉴스는 7일 하노이를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쓰엉 쩌 상 베트남 국가 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16개 경제특구에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보도함.

- **김영남,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원군 산림경영소 양묘직장 시찰(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영남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설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당간부 백두산 답사 띄우기…‘혁명전통 결의’(8/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1면에 전국의 당 책임일꾼들로 구성된 백두산지구 혁명사적지 답사행군대가 전날 김일성 주석이 항일운동을 한 양강도 대흥단 일대와 무포숙영지를 찾았다고 전함.
- 신문은 “참가자들은 백두의 행군길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가고 계시는 김정은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고 강조함.

● 北 “김일성 자료 발굴” 선전…‘백두혈통’ 띄우기(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자강도 랑림군에서 김 주석과 그의 부인인 김정숙을 칭송하는 ‘구호문헌’(구호나무) 20여 점이 최근 새로 발굴됐다고 보도함.
- 신문은 “발굴대원들이 랑림산을 오르내리며 1천그루가 넘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를 찾아냈다”며 이 나무들에서 ‘천출명장 김 대장 곳곳에 일본군사 족친다’, ‘조국 동포여, 항일여장수 따라 반일항전 나서라’ 등의 글귀가 새겨진 구호나무를 발굴했다고 주장함.

● 北, 또 ‘속도전’ 신조어…이번엔 ‘김정은 공격정신’(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모두다 위대한 백두영장의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예로’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모두 다 위대한 백두영장의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질풍같이 내달리자”고 강조함.
- 이어 “원수님(김정은)께 있어서 이 세상에 점령 못 할 요새란 없고 타승 못할 강적도 없다”라며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난관을 강행돌파하는 것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혁명방식’이고 ‘투쟁기질’이라고 주장함.

■ 北, 군정치로 마련하신 조국통일의 굳건한 토대(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민족수호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6.15 통일시대를 펼친 원동력’이라며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수호전, 민족수호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끌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으며,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것은 거대한 민족사적 업적'이라고 칭송함.

- 北김정은, '老心 잡기' 부각...항일투사 영전에 조화(8.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8월 4일 故 전순희(항일혁명투사) 빈소에 화환 전달(8.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 발표('97.8.24) 17주년 즈음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의 조국통일 유훈관철을 위한 거래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는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선전(8.4,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8월 5일 베트남 하노이 도착(8.6, 중앙통신)
- 조명만 駐 짐바브웨 北 대사, 7월 31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8.7, 중앙방송·중앙통신)
- 재미동포 조국방문단, 8월 7일 귀국(8.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박봉주를 비롯한 국가 책임일꾼들, 8월 9일 천지윤활유공장 참관(8.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8월 10일 故 리승호(노동당 중앙검사위원장·중앙통계국장) 빈소에 화환 전달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8월 9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도착 및 8월 9일 베트남 하노이 출발(8.10,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주민이 바라는 제품 생산”…北도 이젠 ‘고객이 왕’(8/3, 노동신문; 조국)
 - 노동신문은 3일 ‘1980년대처럼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품의 사용자는 ‘인민’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것을 독려함.
 - 사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을 떠난 소비품 생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야 하며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이 바라는 소비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라고 밝힘.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8월호)은 ‘경쟁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라는 글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오직 그 요구자이고 직접적 사용자인 대중만이 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 생산을 강조함.
- 3월5일청년광산에 폴리브덴공장 건설 조업식 진행(8/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4일, 3월5일청년광산에 폴리브덴공장 건설 조업식이 박도춘(黨 비서)·김춘섭(자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함.
 - 통신은 공장건설로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유색금속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되었다고 전함.
- ‘현실도입의 과학연구 성과’ 선전(8/4,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석탄공업성 (광폭갱도굴진식 무연탄 증박층채탄법)·농업성 (식물생리활성제 ‘활력’)·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유압조종

체계기술)의 제품들(제13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출품)의 ‘현실도입의 과학연구 성과’를 선전함.

- 노동신문도 4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꾼들의 7월 30일 현재 “시비년도 화학비료 생산계획 수행성과”를 선전함.

● “北, 내년 관광객 대상 국제골프대회 금강산서 개최”(8/5, 자유아시아방송(RFA))

- 4년째 평양에서 ‘국제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주최해온 영국의 루핀여행사 딜란 해리스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골프대회가 열렸다고 북한 당국이 내년에는 금강산 골프장에서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힘.
- 해리스 대표는 올해 평양 골프대회 참가자 수가 예년보다 적었다고 이번 대회에 영국, 중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 8개국에서 온 선수 15명이 참가했다고 RFA가 전함.

● 北, 경기장·선수복에 ‘인공기 형상화’ 눈길(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5일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의 리모델링 공사 상황을 소개하며 “관람의자는 공화국기를 형상하여 청색과 흰색, 붉은색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에 의하면 공사에 참가한 군관 전창수는 “경기장 관람석 전체가 한 폭의 공화국기를 펼쳐놓은 것처럼 우아하고 이채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자랑함.

● “北, 軍 영화촬영소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8/6, 연합뉴스)

-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고려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평양에 있는 4·25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군 산하 영화촬영소까지 외국인들에게 개방한 것은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함.

- **이과대학 물리학부, 에너지 절약형 화실 개발 선전(8/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이과대학 물리학부 연구집단이 ‘에너지 절약형 화실 (※火室, 보일러 등 땀감을 때어 증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개발했으며 “석탄 30~40% 절약 등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선전함.
- **“백두산 북한지역 관광코스, 중국인에 인기”(8/8, 연변일보)**
 - 백두산의 북한 쪽 지역인 동파(東坡) 코스 관광이 최근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8일 보도함.
 - 이 코스가 다시 개통된 지난 6월 11일 이후 총 8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했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 관광단이 매주 한 차례 이상 꾸준히 출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함.

다. 경제 상황

- **스위스 대북사업가 “北 김정은 체제는 실용적”(8/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WNUR’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경제개혁’ 추진을 계기로 더욱 실용적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앵트 회장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층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북한 사회 전체가 외부정보의 유입을 통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도층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TV 화면 속 20억대 벤츠…제재 실효 논란(8/5, 텔레그래프)**
 -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5일 “초호화급 벤츠 방탄 리무진이 북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2대나 목격됐다”면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함.

- 주문형 리무진 전문가인 세드릭 라크르와는 신문에 “자그마치 12기통 엔진으로 방탄 장갑의 중량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메르세데스 S 600 시리즈 차량이 맞는 것 같다”면서 “대당 가격은 장갑 수준에 따라 최고 120만 파운드(약 20억8천만원)를 호가한다”고 말함.

● **美 단체,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 크게 늘어(8/7,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인용, 올해 1~6월 미국이 북한에 반출한 교역액이 1천980만 달러이고 통계상으로는 수출이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라고 전함.
- VOA는 이는 작년 상반기 미국의 대북 수출액 500만 달러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밝힘.

● **“러시아 기업대표단, 올가을 북한 경제개발구 시찰”(8/7,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지난 1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RFA는 갈루쉬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기업대표단이 올해 가을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시찰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독일 구호단체, 북한과 홍역예방 지원 논의”(8/7, 미국의소리(VOA))**

- 카리타스의 라인하르트 버크너 아시아담당 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홍역 예방과 퇴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보건성과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힘.
-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도 카리타스가 북한 당국과 홍역 예방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예방 활동이 진행되면 북한 주민이 정기적으로 (홍역)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올 상반기 평양에 총 “59만 5,5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새로 뿌리내리고 수십 정보의 새 품종 잔디밭 조성” 등 ‘평양시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선전(8.4, 중앙통신)
- 제13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7.29~8.5) 폐막식, 8월 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5, 중앙통신·중앙방송)
- 고산과수농장 종업원들, 8월 5일 ‘김정은 지시’ 관철 꺾기모임 진행(8.5, 중앙방송)
-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현지지도표식비’, 만경대애국농창(알루미늄 새시)공장과 함흥편직공장·평양양말공장에 건립(8.6,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에서 ‘철도운수의 정보화 추진과 지열난방용 전동체계 개발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北에서 철도운수의 과학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전(8.6, 중앙통신)
-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단장 : 심영학 부위원장), 8월 7일 ‘국제 건축가동맹 제26차 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참석차 평양 출발(8.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전국 8월 3일 인민생활 소비품전시회(8.1~8, 인민문화궁전) 진행(8.8, 중앙통신)
- 각지의 휴양소들(온포휴양소·묘양산휴양소·석암휴양소 등)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며졌다’고 보도(8.9,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中당국, 北접경서 대북지원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조사”(8/8,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투먼(圖門)에서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펼쳐온 한국계 미국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7월 2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국적자인 피터 한 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을 금지당한 채 3주간 심문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은행계좌도 동결된 상태라고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원수님 모습에 매혹”…北 김정은 ‘패기머리’ 인기(8/4,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 4일 보도에 따르면 ‘조국’(8월호)은 ‘최근 유행되는 젊은이들의 머리단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 “뒷머리와 옆머리를 높여 올려 깎고 웃머리를 빗어 넘긴”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이정철(27) 씨는 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젊고 활력에 넘치신 원수님의 모습에 완전히 매혹됐다”며 “외모부터 원수님을 그대로 닮고 싶다”고 말함.

● **북한도 피서철 워터파크·해수욕장 ‘초만원’(8/4, 조선중앙TV)**

- 지난해 10월 개장한 이후 첫 여름철을 맞은 문수물놀이장은 평양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온 피서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전함.
- 중앙TV는 4일 창광원 실내수영장과 물놀이장에도 매일 3천 명의 시민이 찾아온다며 “삼복철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손님들로 초만원”이라고 소개함.

● **北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촉각…“전 세계에 빨간등”(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빨간등이 켜진 에볼라 공포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지적하며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바이러스)가 그 대표적 실례”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올해 3월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고 하며 “최근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경보가 내려지고 있으며 에볼라 공포증이 서아프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함.

● **“4시 하교, 학생이 교사 평가”…북한은 교육실험 중(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4면 전체에 과학영재학교인 평안남도 평성시 소재 김정숙제1중학교 리영철 교장의 교육개혁 성과를 대대적으로 소개함.
- 리 교장은 일부 교사의 반대 의견에도 솔선수범으로 학생들의 평가와 의견을 받아들이며 교사평가제를 강행했다고 신문이 전함.

● **러-한반도 중주 고려인 자동차 켈리팀 북한 도착(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인 김철성 러시아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조선반도중단 자동차행진단이 8일 두만강역에 도착했다”고 짚막하게 보도함.

- 전승컵 전국 태권도강자경기대회 폐막식(7.28~8.5), 8월 5일 함흥에서 진행 (8.5,중앙통신)
- 北, 송도원 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여러 나라 학생소년 야영생들이 희열과 낭만으로 가득차 즐거운 야영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 선전(8.5,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팀, '2014 FIFA U-20 여자월드컵(캐나다)' 조별예선전에서 핀란드에 2:1 가나에 3:0 승리 보도(8.9,중앙통신)
- 평안북도, 새학기를 맞으며 교육지원전시회 진행(8.9,중앙방송)
- 「청년절(8.28)」 즈음 '햇불컵 축구경기(13개 남자축구팀 참가)', 8월 10일(8.28일 까지 진행) 김일성경기장에서 시작(8.10,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원도에서 道 실험기구 및 교편물·교육지원 전시회(7백 80여종·1만 1,500여 종의 모의실험실습 프로그램 등 전시) 진행(8.10,평양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11-08.17

8월

3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해결책 없음을 비난(8.17)
- 南 ‘균형외교’ 비난…고위급접촉 제의엔 ‘침묵’(8.13)
- 조평통, 5·24조치 해제·한미훈련 중단 촉구(8.14)
- 교황 도착직전 300mm 방사포 3발 동해로 발사(8.14)
-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5주기 화환 18일 전달(8.14)
- 광복절 맞아 체제 선전…南 정통성 폄하(8.15)

2. 핵문제 및 외교

- ARF서 북핵 입장차 확인…(8.11)
- UFG 연일 비난…“전쟁억제력 강화할 것”(8.11)
- 김정은-러시아 푸틴, 광복 69주년 축전 교환(8.13)
- 리수용 외무상, 8월 10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연설(8.12)
- 北, 납치 제조사 대가로 日에 제재 추가해제 요구(8.15)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인천AG 참가 女축구팀 연습경기 관람(8.12)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 건설장 시찰(8.13)
- 김정은 黨 제1비서, 교황 방한일에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직접 지휘(8.15)

4. 경제

- 황해남도 수로공사 독려…“곡창지대 물 문제 해결”(8.11)
- WFP “2분기 北 가구 87%, 영양부족 겪어”(8.13)

5. 사회

- 北 주민에 무비자 입국 허용 42개국뿐(8.12)
- 라오스 국경 넘으려던 탈북자 11명, 中 쿤밍서 체포(8.12)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조평통 성명, 5·24조치 해제·한미훈련 중단 촉구(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남한의 ‘외세의존정책’ 중단 ▲6·15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이행 ▲한미군사훈련, 5·24 대북제재 조치 등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성명은 또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고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의 극복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함.
- **북한군, 한미군사훈련 UFG연습 대응 ‘선제타격’ 위협(8/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 연습에 대해 “미제의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에 발벗고 추종해 나서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이 동족대결 책동에 따라 고안된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성명은 이어 “올해에 강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맞춤형 역제라는 기만적인 외피를 쓰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협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덧붙임.
 - 또 “우리가 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구실 없이 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침략의 크고 작은 본거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그렇게 만들 만단의 준비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반드시 결산해야 할 침략군의 성노예범죄(8/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駐韓美軍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 성매매’ 관련 재차 韓美당국에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 수치도 모르는 패륜아들’이라며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사대매국노들의 반역통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함.

- **北, 광복절 맞아 체제 선전…南 정통성 폄하(8/15,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15일 ‘식민지 괴뢰의 가소로운 정통성 나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을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폄하하며 “친일·친미의 더러운 땃줄을 잇고 사대와 외세 의존으로 민족을 반역해온 남조선 괴뢰들은 8·15와 관련해 그 무엇을 말할 자격조차 없으며 오히려 얼굴을 붉혀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TV도 15일 ‘조국광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하는 등 광복 69주년 경축 분위기를 띄웠으며 ‘백두산지구 혁명사적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업적’을 부각함.

- **北 “발사체 발사 교황 방한과 무관…관심도 없어”(8/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과학을 담당하는 제2자연과학원의 김인용 로켓탄연구실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이번 전술 로켓탄 발사가 나라의 평화와 화합에 장애가 되고 그 무슨 로마 교황의 서울 행각에 그들을 던지는 도발적인 무력시위라고 온당치 못한 발언들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며 “한마디로 황당무제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윤일병 사건 주범 김관진 처벌해야”(8/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서기국 보도에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관련 “남조선의 각 계층은 괴뢰군 내 폭행살인 만행의 주범인 김관진 놈을 민심의 이름으로 단단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남북 외교수장, 유의미 접촉 불발…ARF서 조우만(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ARF 회의장에서 서로 맞은 편에 앉은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이 북핵·미사일 문제, 드레스덴 구상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적인 발언을 한 것을 전함.
 - 리 외무상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 방안을 거론하자 윤 장관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한 드레스덴 구상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함.

- **남북 고위급접촉 19일 판문점 개최 北에 제의(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오전 9시10분께 김규현(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수석 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전함.
 - 우리 정부는 회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8월 19일을 회담 일자로 일단 제시했으며, 북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 **北, 南 대북정책 비난 지속…“체제통일 야망 버려라”(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불순한 체제통일 야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의 본질은 체제통일”이라고 주장함.
 - 또 신문은 “남조선 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다”며 “그가 말하는 신뢰에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협력이 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음.

- **北, 南 ‘균형외교’ 비난…고위급접촉 제의엔 ‘침묵’(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수치와 파멸을 낳는 부끄러운 균형외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의 ‘균형외교’ 정책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비굴한 외세 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민족 공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남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주변대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균형자적 역할은 고사하고 미국과 주변대국들이 이리 끌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로 끌려가면서 그 과정에 오히려 모순과 마찰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北, 朴 대통령 경축사 비난…“남북관계 해결책 없어”(8/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대결의 빗장을 그대로 두고 협력의 문을 열수 있는가’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집권자의 ‘8·15 경축사’라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특특한 해결책은 없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실속이 없는 걸치레, 책임 전가로 일관된 진부한 것”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경축사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한 데 대해선 “더욱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의 핵과 미사일을 걸고 들며 또다시 위협 타령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냄.
- 또 “인천에서 곧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함.

● **北 김양건 통전부장, DJ 5주기 화환 전달(8/17, 연합뉴스)**

- 북한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보내겠다는 화환이 17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에 전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17일 화환 전달식에는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참석했고, 우리측에서는 새정치 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이 참석함.
-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대중평화센터 앞으로 보낸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명의 통지문에서 18일 화환을 전달하겠다고 통보했고, 김대중평화센터는 수령일을 17일 오후로 수정 제안한 답신을 지난 15일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어선 1척 서해NLL 침범…경고사격 받고 돌아가(8/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북한 어선 1척이 12일 오전 11시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북한 어선은 오전 11시께 NLL을 넘어왔으며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시 기동해 경고사격 2발을 가했다”면서 “이 어선은 오전 11시50분께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고 밝힘.

● 北 “남이 北어선에 무차별 포사격”…보복 위협(8/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북한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8월12일 괴뢰군부깡패들은 서남해상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우리의 평화적 어선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은 “이 무모한 도발광기로 하여 가득이나 침예한 이 수역의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폭발 전야의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당시 남한군이 육해공군에 합동경계태세를 발령해 F-16 전투기를 공중에 띄웠고 쾌속정 5척이 연속으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함.

● 北, 교황 도착직전 300mm 방사포 3발 동해로 발사(8/14,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한 전세기가 서울에 도착하기 직전인 14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방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합참의 한 관계자는 14일 “북한은 오늘 오전 9시30분과 9시40분, 9시55분 등 3회에 걸쳐 원산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동해 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단거리 방사체 3발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220여km로 판단된다”고 밝힘.

- 北, 300mm 방사포 2발 동해로 추가발사...오늘 총5발(8/14, 연합뉴스)
 - 북한은 14일 오후 300mm로 추정되는 신형 방사포 2발을 추가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은 “북한이 오후 12시56분과 1시5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향 동해상으로 단거리 방사포 2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민간단체, 민족기록유산 공동전시회 협의(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민족기록유산 남북공동 존치사업 관련 방북 신청을 11일 승인했다고 전함.
 - 신동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은 12일 오전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및 인민대학습당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왕조실록 사대본을 비롯한 민족기록유산의 전시회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임.
- 北, 인천AG에 14개 종목 선수 150명 등 352명 참가 신청(8/15, 연합뉴스)
 - 김영수 2014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원장은 14일 “북한이 어제 저녁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통해 14개 종목 선수 150명을 포함해 총 352명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을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는 종목별로는 축구가 남녀 총 38명으로 가장 많고 수영 16명, 양궁 8명, 육상 4명, 복싱 7명, 카누 2명, 체조 12명, 유도 10명, 공수도 5명, 조정 8명, 사격 9명, 탁구 10명, 역도 12명, 레슬링 9명이라 보도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발언(8.7, ‘적도발사 단호히 즉각 응징’)은 ‘긴장격화 소동으로 윤일병 타살사건의 여론 이목을 단데로 돌려보려는 발광’이라고 비난 (8.13,중앙통신·노동신문/허재비(*허수아비)의 새빠진 응징타령)

- 北 「조평통」 성명(8.14), '광복절(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남한의 ‘△미국 지배와 간섭 종료 옹단, △既 남북합의들 이행 위한 실천적 조치,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등 ‘對北 정책 전환’ 요구(8.14,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리수용 “핵억제력 보유, 美적대시정책 따른 결단”(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일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압력, 핵위협 공갈에 시달리다 못해 부득불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보도함.
 - 수행중인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리 외무상이 10일 미얀마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핵 보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의 핵은 말 그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전함.
 - 리 외무상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군대의 로켓 발사 훈련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조선 반도에서 어느 측의 군사훈련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위협적이고 더 횡수가 잦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함.

- ARF서 북핵 입장차 확인…北, 핵실험카드 만지나(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일 열린 ARF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결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음을 전함.

- 뉴스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으로 참가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약식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ARF 의장성명, 북핵·미사일 우려, 유엔결의 이행지지(8/11, 연합뉴스)**

- 미얀마 네피도에서 10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CTBTO 사무총장 “핵 관련 어떤 北 실험도 탐지가능”(8/13,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은 13일 “21세기에는 핵실험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힘.
- 한국을 방문 중인 제르보 사무총장은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 등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수천 회에 달했던 핵실험은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이 한 세 차례의 핵실험뿐이었다”고 말함.

● **北 “南은 美에 예속…자주권 유린당해”(8/13,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연구원은 13일 광복 69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비망록’에서 “남조선에서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은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정치적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여온 치욕의 역사”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비망록은 남한 정부를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으로 규정하고 “현 집권자가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 국회에서 뜨내기 영어로 연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미·중 ‘균형외교’를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UFG 연일 비난…“전쟁억제력 강화할 것”(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핵전쟁광신자들은 국제적인 규탄배격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러시아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미국을 “핵전쟁을 몰아올 장본인”이라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의 핵선제 공격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는 나라들이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제테러의 희생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라크, 리비아 사태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라고 주장함.

- **北 “‘핵포기’ 리비아, 美 지원 못받아…역사적 교훈”(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날로 악화되는 리비아 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를 들며 “사람들은 리비아 현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고 있다”고 밝힘.
 - 논평은 1969년부터 반미자주적인 정책을 고수하며 핵개발을 추진했던 리비아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 맞서다가 자신들도 이라크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핵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핵 관련 설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함.

- **北, 안보리 ‘美에 이중기준’ 비난…中에도 불만 표출(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공정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며 “이로부터 미국의 평화파괴 행위를 짓부술 수 있는 힘이 그 어떤 국제기구나 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밖에 없다는 결론이 스스로 나온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낸 유엔 안보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긴급 안건으로 다루자는 북한의 제의를 거부했다며 “안보리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가며 쫓대없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함.

- **北, 운병세 북핵공조 발언 비난…“핵무력 강화할 것”(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대결 미치광이의 구차스러운 비력질(구걸 행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운병세 역도가 외세와 야합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광분하는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모른 척)을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걸고 위협이니 정면도전이니 하고 고아댄 것이야말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함.
 - 이어 “현 괴뢰집권세력은 외세와의 공조에 명줄을 걸면서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제공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北, 리수용 외무상 회담 전하며 ‘中 빼고·日 넣고’(8/11일,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리수용 외무상은 9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캐나다 외무상과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 캄보디아 부수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 몽골 대외관계상, 러시아 외무성 부상, 태국 외무성 상임비서를 각각 만나 쌍무관계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힘.
 - 통신은 “10일 외무상은 일본 외상을 만나 담화를 했다”며 리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난 사실을 확인함.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北, 역내 긴장완화 방안 제시”(8/13, 연합뉴스)**
 - 북한이 인도네시아와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지역 긴장완화를 위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밝힘.
 - 뉴스에 따르면 질의응답에서 “동북아 안보구조를 볼 때 우리가 골몰해온 쟁점이 무엇인가? 핵확산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문제다”라고 하며 북한의 제안이 6자회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제안 내용이 훌륭하고 건설적이라면서 “북한이 제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흥미롭지만 그냥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라. 대미국

● 北, 올해 억류 미국인 2명 영사접촉 한두번씩 허용(8/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밀러 매튜 토드(24) 씨가 지난 5월 9일과 6월 21일 두 차례 영사 접촉을 했으며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는 6월 20일 한 차례 영사 접촉을 했다고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일 외무상 13개월 만에 접촉…형식·내용 ‘베일’(8/11, 연합뉴스)

- 11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접촉했다고 전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이 외부상과 인사하고 악수했다. 쌍방이 각자의 입장에 관해 발언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힘.

● “리수용, 일본인납치 재조사내용 9월 초 전달 뜻 밝혀”(8/14, 교도통신)

-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보고 시기가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밝힘.
- 통신은 북일 당국이 보고 시기를 9월 둘째 주 이후로 조정하고 있었으나 둘째 주 전반에 조사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北, 납치 재조사 대가로 日에 제재 추가해제 요구(8/15,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 달 초 일본에 전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제재를 추가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5일 전함.

- **일본 ‘불법 무기운반’ 北청천강호 실소유주 자산동결(8/15, 교도통신)**
 - 15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를 숨겨 운반하다 적발된 북한 청천강 호의 실소유주 원양해운관리회사(OMM, 본사 평양)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반을 둔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北 사회단체, 광복절 맞아 日에 과거청산 촉구(8/15, 연합뉴스)**
 - 북한 사회단체인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복 69주년인 15일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통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사. 대러시아

- **北 김정은-러시아 푸틴, 광복 69주년 축전 교환(8/13, 조선중앙통신)**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광복 69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는 귀국의 독립을 위하여 어깨를 견고 싸운 조선의 애국자들과 소련 군인들을 경건히 추억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생긴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됐다고 강조함.

- **北·러시아, 평양서 상호 노동자 파견 논의(8/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과 러시아가 ‘일방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국가 공민들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실무그룹 제5차 회의를 열어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 ‘北에 생사 확인 요구 한국인 납북자’는 34명”(8/13, 미국의소리 (VOA))

- 미국의소리(VOA)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인 34명, 일본인 13명 등 강제 납북자 47명의 생사확인요구와 27건의 실종사건에 대한 해명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인니 조코위 당선인, 방북 초청에 긍정적 답변(8/13,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13일 오후 자카르타주지사 집무실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하고, 김정은 제1비서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취임 뒤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친서를 전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에 조코위는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취임 후 그곳(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말함.

- 앙골라 의사협회대표단(단장: 까를로스 알베르투 뵘투 데 쏘우사 위원장), 8월 11일 만수대언덕 김 아버지동상 참배(8.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김룡진), 8월 11일 귀국(8.11, 중앙통신·중앙방송)
- 킹 켈트사 중국 방문…北역류 미국인 논의할 듯(8.1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인천AG 참가 女축구팀 연습경기 관람(8/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연습경기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대동하고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예정인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과 인민군 소속 4·25 팀의 ‘검열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TV에서 날 봤다고? 재미없었겠구나”(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 12일자는 ‘원아들의 웃음소리’라는 제목으로 실은 ‘정론’에서 평안남도 평성시의 고아 양육시설에 사는 5살 난 원아인 리명복 군이 지난 5월 평양 대성산종합병원에서 김 제1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이 “(방금) 뭘 하했느냐(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리 군은 “텔레비전을 보냈습니다(봤습니다)”라고 답하자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냈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리 군은 “아버지 원수님(김정은)을 보냈습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재미없었겠구나”라고 말함.

- **北 김정은,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 건설장 시찰(8/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건설 현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만족해하면서 올해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가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반영된 건축물”이라며 “머지않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

에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말함.

● **北 김정은, 교황 방한일에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직접 지휘(8/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국해방 69돌을 맞으며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초정밀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가 진행됐다”며 김 제1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의 전술로켓 시험발사 지휘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홍영철 노동당 기계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들도 참가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리수용 외무상, 8월 10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연설(8/12, 조선중앙통신)**

-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조선반도 정세가 차지하는 위치는 자못 중요하다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북한 리종무 前 체육상, 중장 계급 달고 軍 복귀(8/11,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체육 열풍’을 주도해온 리종무 전 내각 체육상이 군(軍)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도함.
- 조선중앙TV가 지난 4일 방영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서 리 전 체육상이 별 두 개의 중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지난달 말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7월 27일) 기념 배구경기를 관람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바로 뒤에 서서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전함.

- **北매체 “인천AG 참가 축구팀 연습경기 고위간부 관람”(8/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겸열경기가 1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됐다”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영훈 체육상과 평양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했다고 밝힘.

- **北 리광근 前합영투자위원장, 대외경제성 부상에 임명(8/14, 연합뉴스; 노동신문)**
 - 연합뉴스는 14일 북한 리광근(61) 전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출범한 내각 대외경제성의 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14일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날 광복 69주년을 기념한 연회를 열었다며 “연회에는 전길수 철도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초대됐다”고 밝힘.

- **동남아 순방 北 리수용,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8/15, 조선중앙통신)**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를 순방 중인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4일 싱가포르에서 K. 산무감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회담에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 싱가포르 외교부 상임비서와 동북아시아 총국장도 참석했으며, 통신은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리 외무상은 15일 싱가포르 명예고위장관과 무역공업장관도 만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 “인권보고서 곧 발표”…인권문제 적극 대응(8/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의 인권문제 연구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창립(8.27) 22주년을 앞두고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며 “가까운 앞날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또 “공화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보장 정책’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유 실상’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함.

- 북한 민간단체, ‘제2차 위안부 기림일’ 지지 성명(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따르면 북한 민간단체인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낸다”며 정대협 측에 연대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전함.
 - 북측 단체들은 “일본군의 성 노예 범죄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아물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국가 범죄”라며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침략 역사를 왜곡·부정하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과 군국주의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8/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일 저작(기본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2004.8.11) 발표 10돌 관련 ‘창조와 건설의 영재를 높이 모시어 조국 땅에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다’며 ‘당의 주체적 건설사상과 이론, 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오자’고 독려함.

● 北 “광복은 김일성 업적”...‘백두혁명혈통’ 선전(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면 ‘세기를 이어 빛나는 역사의 8·15’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복을 ‘사회주의 혁명의 시원’이라고 평가하고 이 혁명의 전통이 김정은 체제까지 계승되고 있다며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함.
- 기사는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시며 총대로 조국해방의 위업을 앞당긴 수령님(김일성)의 자욱자욱이 백두산의 줄기 마다에 새겨져있다”며 김 주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후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선군절’ 앞두고 김정은·김정일 軍활동 찬양(8/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선군영장의 손길은 통일강성국가의 미래를 펼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며 이를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선군영도의 결과”라고 주장함.
- 또 1면의 사설에서는 군인과 학생 각계각층의 백두산 행군을 언급하고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굴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쌍운리로부터 다박솔언덕에 이르기까지’라는 글을 통해선 김정일 위원장의 1960년 평안남도 숙천군 쌍운리의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시찰과 1995년 1월1일 포병중대인 ‘다박솔 초소’ 방문을 찬양함.

- 9월5일상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8월 11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진행하며 태중수(함경남도당 책임비서),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개막연설) 등 참가(8.11,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선수팀, 2014년 아시아 14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 결승경기 진출(8.12,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8월 13일 離任 주북 베트남 대사(레 팡 바)와 담화(8.13,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사이다마현 상공회 대표단(단장: 황운해 회장), 8월 13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8.13,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황해남도 수로공사 독려…“곡창지대 물문제 해결”(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공사를 독려함.
 - 신문은 황해남도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에 대해 “나라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황남땅에서 세세년년 만풍년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면 결정적으로 물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예년에 보기 드문 가물(가뭄) 현상이 지속되는 올해의 이상기후현상은 황해남도 물길공사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더욱 깊이 새겨지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천지윤희활유공장 연일 선전…“과학화 본보기”(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조업 당시에 비해 제품의 수와 생산 능력은 각각 13배와 3.9배로 성장했고 기술역량은 2.5배 성장했다”며 “17년 만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최첨단의 영마루에 우뚝 올라섰다”고 치켜세웠다고 소개함.
 - 이어 “일군들의 머릿속에는 원료와 첨가제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대외시장 진출 등 승산이 확고한 방안들이 환히 그려져 있다”고 강조함.
- **北, 과학기술분야 젊은이 활약 잇달아 소개(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비약의 담보 - 생산과 기술의 일체화’라는 글에서 천지윤희활유공장의 기술성과를 소개하며 대학 졸업생들을 칭찬함.

- 신문은 “공장에서는 인재중시의 원칙에서 실력이 높은 젊은 대학졸업생들을 일정한 기간 현장경험을 축적하게 한 조건에서 기술 발전실에 배치하였다”며 대학 졸업생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을 현장에 도입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함.

● **北, 나선특구 서비스업 체계적 육성 강조 눈길(8/17,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7일 입수한 북한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5월 15일 발행)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대 봉사계획화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나선특구에 최근 새로운 서비스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며 서비스업의 체계화를 언급함.
- 학보는 나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투자와 수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과 현 투자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북·중, 지안-만포 당일 관광코스 개통(8/17,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서 출발하는 북한 자강도 만포시 당일 관광코스가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7일 보도함.
- 이번에 시작된 중국인 대상 만포시 당일 관광은 1인당 요금이 770위안(약 13만 원)임.
- 지안-만포 당일 관광 개시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당일 또는 이틀 관광코스로 정식 개방된 북한의 국경도시는 신의주시(~단동), 온성군(~투먼), 함경북도 회령시(~지린성 룡징<龍井>), 나선특별시(~지린성 훈춘<琿春>) 등 5곳으로 늘어남.

다. 경제 상황

● **북한관 ‘시장경제’…당간부보다 노동자가 더 ‘부자’(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이 “무산광산뿐 아니라 동광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혜산광산 노동자들도 평균 북한돈 30~4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며 “야근이 많고 생산실적이 높은 광부들은 최고 8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고 전함.

- 김정은 체제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기업의 독자경영체제 도입 ‘덕’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일치한 전언이라고 소개함.

● **WFP “2분기 北 가구 87%, 영양부족 겪어”(8/13, 연합뉴스)**

- 13일 세계식량계획(WFP)이 전날 발표한 2분기 북한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WFP가 방문 조사한 141가구 중 47%는 심각한 영양부족을 겪었으며 40%의 가구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WFP는 올해 봄 가뭄이 식품 부족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방문 가구의 80%가 식량부족에 대처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며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식량을 얻거나 선호하는 음식보다는 값싼 음식을 선택한다고 전함.

● **“北 호텔, 외국인 인터넷 사용료 대폭 인하”(8/16, 미국의소리(VOA))**

- 북한 평양 시내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이 부담하는 유선 인터넷 사용료가 대폭 낮아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VOA는 평양에 자주 드나드는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시내 호텔의 유선 인터넷 사용료가 2012년 중반만 해도 30분당 10달러였으나 올해 4월에는 5달러였다고 전함.
- VOA는 평양 시내 호텔이 외신 기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에게도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고려호텔과 양각도호텔에서만 유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 들어 해방산호텔과 평양호텔도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덧붙임.

라. 대외 경제 관계

● **美 NGO, 80만 달러 어치 의료지원품 北에 전달(8/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대북 의료지원단체 아메리케어스가 지난주 북한에 80만 달러

(약 8억 2천만원) 상당의 의료지원품을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RFA에 의하면 아메리케어스 대변인은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의료지원품이 지난주 평양에 도착했다며 의료지원품은 평양, 황해북도, 평안도의 6개 병원과 진료소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짐바브웨 농경지 확보 추진”(8/16, 텔레스코프 뉴스)

-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아프리카 남부 국가 짐바브웨의 대규모 농경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프리카 매체 ‘텔레스코프 뉴스’가 16일 보도함.
- 이 매체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아시아 국가 외교관을 인용해 북한이 짐바브웨 ‘마쇼나란드 이스트’와 ‘마쇼나란드 센트럴’ 지역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 확보에 나섰다고 전함.
- 북한이 짐바브웨 농경지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짐바브웨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곳으로 꼽힐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농업과학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 새로운 나노 빛 합성강화제 개발(8.11, 중앙통신)
- 《화원》상표를 단 ‘천연장수식품들(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 50여종)’의 ‘항암 등 약효(금강산의 진귀한 약초·산나물 등) 및 금강산 관광객들 호평’ 선전(8.16,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주민에 무비자 입국 허용 42개국뿐”(8/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2일 국제법률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해 현재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채 단순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모두 42개국이라고 전함.
 - 북한 주민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2010년 36개국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작년보다 한 곳 늘었다고 RFA가 설명함.
- “‘김정은 암살 영화’ 개봉, 성탄절로 연기”(8/13, 미국의소리(VOA))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 코미디 영화의 개봉이 오는 12월로 연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배급사는 성탄 연휴가 미국인들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성수기라고 강조하며 시사회 결과 ‘더 인터뷰’가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오스 국경 넘으려던 탈북자 11명, 中 쿤밍서 체포돼(8/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중국-라오스 국경을 넘으려던 탈북자 11명이 12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지역에서 중국 변방부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12일 “탈북자 11명이 중국인 안내자가 운전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오늘 아침 7시 50분(현지시간)께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중국 변방부대의 불심검문에 걸려 전원 체포, 쿤밍으로 이송됐다”고 전함.

● **북한 주민 2명, 강화 교동도로 헤엄쳐 귀순(8/14, 연합뉴스)**

- 북한 주민 2명이 14일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로 헤엄쳐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14일 “오늘 새벽 4시께 50대와 20대 남성 2명이 교동도로 헤엄쳐 오는 것을 해병대 초병들이 발견했다”며 “이들은 ‘살려달라,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자, 중국서 탈북자 연행…중국 용인(8/15, 아사히(朝日)신문)**

- 아사히신문은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 당국자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중국에서 탈북자를 연행해 돌아간다고 복수의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억류 케네스 배 영사 면담 4개월 만에 허용(8/13,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영사 면담이 약 4개월 만에야 이뤄졌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3일 미국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함.

● **“청천강호 등 제재대상 북한선박 중국항구 출입”(8/13, 산케이신문)**

- 13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 후 관련 회사의 화물선이 중국의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됨.
- 신문은 파나마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붙잡힌 청천강호, 청진2호 등 적어도 4척의 선박이 지난달 28일 이후 상하이(上海), 난통(南通), 타이창(太倉) 등 중국 내 8개 항구에 드나들었다고 전함.

마. 사회 동향

● 북한서 녹조류 스피룰리나 아이스크림 인기(8/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평양유성식료공장은 스피룰리나를 배양해 이를 활용한 식료품을 만드는 공정을 갖추고 스피룰리나 아이스크림, 영양 사탕, 영양 암 가루(물에 풀어 이유식 등 암죽으로 만드는 가루)를 개발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이들 식료품이 “체력증강제, 피로제거제로서 인기가 높다”며 평양유성식료공장이 앞으로도 스피룰리나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소개함.

- 北, 2014년 아시아 공개컵피겨경기대회(대만)에서의 우수한 성적 소개(8.11,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반도 종주 고려인 자동차 랠리팀, 금강산 방문(8.13, 중앙통신)
- 16~28일까지 제2회 난징 하계청소년올림픽 참가(8.14, 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18-08.24

8월

4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UFG 연습 연일 비난
- DJ 5주기 맞아 남북 정상회담 부각(8.18)
- 북한대표단 인천AG 조추첨 참석차 입국(8.19)
- 北, 인천AG 선수 150명 등 선수단 273명 파견 통보(8.22)

2. 핵문제 및 외교

- 美 케리장관의 북한인권 발언 비난(8.18, 20)
- 美 B-2 전략폭격기 3대 괌도 전진배치 비난(8.19)
- 한반도 내 주한미군 철수 주장(8.19)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연풍호 과학자휴양소 건설현장 시찰(8.18)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8.21)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2일공장 시찰(8.24)
- 박봉주 내각총리, 대안친선유리공장(평남 대안군) 현지요해(8.20)

4. 경제

-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선시에서 진행(8.18)
- 네덜란드 대학 농업연수 프로그램 중단(8.22)
- 러시아 기업에 IT 서비스 제공 제안(8.22)

5. 사회

- 입체올동영화관 3호점, 평양(1호점), 원산(2호점)에 이어 신의주에 건설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외무성 “UFG 군사적 대응 더 높은 단계서 취할 것”(8/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그에 대처한 군사적 대응이 “예측할 수 없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취해질 것”이라 경고하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연습들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대응도 연례화, 정례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한해에도 몇 차례씩 그 규모와 범위를 늘려가며 벌이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용납 못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北 외무성 “UFG 군사적 대응 더 높은 단계서 취할 것”(8/24,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리영길 군총참모장이 24일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UFG 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침략의 무리들을 단매에 죽탕쳐버릴 전투준비를 갖추고 최고사령관의 최후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총참모장은 24일 오후 조선중앙TV로 녹화중계된 보고대회에서 “미제와 남측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백두산 총대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며 “혁명적 무장력은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함.
 -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기남 당 비서가 사회를 맡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무자비한 철추 안길 것”(8/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평화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UFG 연습에 대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린하고 북남관계를 해치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함.
-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해 “내외호전광들이 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하겠다고 떠들어댄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주장함.

● 北, “南, 관계개선 안중에도 없어”(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정세 파국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함.
- 덧붙여 “우리가 적대세력의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에 강위력한 군사적 억제 조치로 맞서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우리의 정의로운 자위적 조치들은 이제부터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또 신문은 19일 ‘핵에는 핵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미국이 UFG 연습을 앞두고 B-2 전략폭격기 3대를 꺾에 배치한 점에 주목하며 “B-2 전략폭격기의 목표는 어디인가. 그곳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이라고 강조함.

● 北, “선전매체로 남북관계 개선해야”(8/1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영도 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김일성 주석의 노작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가 발표된 지 22주년을 맞았다며 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거론함.

● 北, “선제타격은 정당한 권리”(8/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정정당당한 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핵 선제타격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그에 앞선 무자비한 선제타격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도발자들은 얻어맞아도 할 소리가 없다”라며 “일단 우리가 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구실 없이 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침략의 본거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돼야 한다”고 비난함.
- 이어 “핵무기는 더 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핵과 전술 로켓을 비롯해 도발자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무장 장비들을 완전무결하게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 北, 남북 간 분야·분과별 교류기구 복원 촉구(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북남합의들은 전쟁광신자들의 농락물이 아니다’ 제목의 글에서 “북과 남이 이미 이룩한 합의들은 북남관계 개선의 이정표”라며 “북남합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6·15통일시대에 활성화되어온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를 되살리면 북남관계는 저절로 개선되게 된다”고 주장함.
-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환경, 민생협력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과 같이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최악의 형편에 이른 조건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함.

● 北, UFG 연습 비난 지속…‘물리적 조치’ 위협(8/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전쟁광신자들의 구차스러운 녀두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UFG 연습을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어떻게 하나 긴장격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모지름(고통을 견디려고 모질게 쓰는 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23일 ‘합리화될 수 없는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UFG 연습을 비난하고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 수 없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함.

● 北, UFG 연습 계속 비난…“南 매국행위의 산물”(8/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핵 재난을 몰아오는 침략자와 매국노의 공모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UFG는 미국이 남한을 “영구 강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측이 “미국의 기도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함.
- 논평은 “UFG와 같은 군사적 도발로 조선반도를 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만들고 ‘평화수호’의 간판 밑에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목적”이라며 남측의 UFG 강행은 “북침 야망을 위한 매국매족적 망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우리의 증오, 분노를 총대로 보여주려는 혁명무력의 결심은 이미 단호한 실천단계에 진입했다”며 “징벌의 불소나기는 도발자들과 그 아성을 단숨에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신문, DJ 5주기 맞아 남북 정상회담 부각(8/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민족대단결의 화원에 펼쳐진 광폭정치의 송고한 화폭’이라는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소개함.
- 신문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해내외(국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과 애국의 의지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 빛나고 있다”고 주장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대표단 인천AG 조추첨 참석차 입국(8/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9일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양성호 조선체육대학장 등 8명은 베이징발 중국남방항공 315편으로 19일 오후 10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 北, 인천AG 선수 150명 등 선수단 273명 파견 통보(8/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북한이 다음 달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에 273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조추첨 및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 150명을 포함한 선수단이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손광호 부위원장 명의 서한을 우리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힘.
- 아울러 북측은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문서 교환방식을 통해서 협의하자고 제의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김 대변인은 북한 선수단·응원단의 체류비용 지원 문제에 대해 “국제관례만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제관례와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몇 차례 선수 파견 관례도 함께 고려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정부가 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韓美 UFG 합동연습 진행 및 맞춤형 억제전략 적용에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등 위협(8.19,평양방송·중앙방송)
- 남한 당국이 유일병 폭행사망사건 등 軍內 ‘인권유린만행 장본인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호 두둔하고 있다’며 이는 “집권위기를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심판”지속 주장(8.19,중앙통신)
- 韓美 UFG 합동연습 강행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남한 호전광들의 극단적인 대결의식의 산물’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은 이제부터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8.19,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광복절(8·15)」경축사를 “종전의 대결적 입장되풀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UFG 합동연습 중단, 보안법과 5·24 조치 해제 및 남북공동선언 이행 결단’을 촉구(8.19, 중앙통신·민주조선)
- UFG 합동군사연습 진행 관련 ‘미국이 남조선 당국을 사촉해 북침을 가상한 군사연습을 뺏길나게 벌여놓고 있는 것은 관계개선의 기회를 가로막고 우리(北)를 해치려는 술책’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존 정책을 버리고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주한미군 철수 및 反美투쟁’ 선동(8.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외교부 장관의 ‘북핵 위협에 대응한 국제공조’ 발언들 관련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피를 물고 날뛴 괴뢰패당의 사대매국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8.20, 중앙통신)
- UFG 합동군사연습 진행 관련 ‘韓美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핵 공갈이 계속 되는 한 군사적 대응행동은 연례화, 정례화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취해질 것’이라고 재차 위협(8.20, 중앙통신)
- 우리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방안’(가혹행위 신고 포상 등) 발표에 대해 “본질을 빼버린 허망한 방안”이라며 ‘진정한 해결방안은 김관진 역도를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부터 법정에 끌어내는 것’이라고 주장(8.21, 중앙통신)
-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합의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신성한 재보”라며 남한 당국이 “북남합의들을 외면하고 그 실천을 거부하는 것은 민족반역행위”라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 주장(8.22,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美 국무 북한인권 발언 비난…“우리식 대응”(8/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 정책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앞두고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제도가 군사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국제적 인식을 축적해 저들의 군사적 위협을 합리화해보려는 정치적 기도(시도)”라고 주장함.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8/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美 국무장관의 ‘북미관계 완화’의사 표시와 ‘북핵 및 미사일위협과 인권문제’ 비판 등에 대해 ‘갓은 권모술수로 인류를 기만 우롱해 온 미국의 체질적인 위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이 평화와 인권을 입에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라고 비난 및 ‘유치한 가면극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충고하였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UFG, 판문점 도끼사건 연상케 해”…미국 비난(8/1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8일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고의적인 음모책동’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판문점 사건은 미국의 계획적이고도 고의적인 음모 책동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북침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18일 시작된 UFG 연습을 언급하며 “미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지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함.

- ‘핵에는 핵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의 B-2 전략폭격기 3대 괄도 전진배치는 ‘핵선제공격의 反北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北)는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핵무력 보유 및 계속 강화’ 위협이라고 주장함.

- ‘한시바빠 주한미군 철수 결단’을 주장(8/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은 우리(北)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라며 이를 위해 ‘現 주한미군 기지들을 가상하여 세운 타격물들에 대한 로켓 발사훈련 등을 진행 했다’고 주장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 “한일병합조약은 국가테러”…日에 ‘죄의식’ 촉구(8/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한일강제병합 104주년(8월 29일)을 앞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일제의 ‘국가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일본이 가혹한 식민통치에 대해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22일 ‘조선 침략을 노린 일본의 특대형 국가테러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으로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무력과 강권을 총발동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특대형의 국권강탈행위였으며 국가테러의 극치였다”고 주장함.

● 北 “우키시마호 사건은 집단살인…日 사죄해야”(8/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우키시마호 사건 69주년인 24일 ‘영원히 수장될 수 없는 살인 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사건은 일본의 ‘의도적인 조선인 학살계획’이라며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오늘까지도 일본 당국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사죄와 배상·진상 규명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 청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스웨덴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 대표단(단장: 니콜라스 스반스트롬 소장), 8월 18일 평양 도착(8.18,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사이다마현 상공회 대표단(단장: 황운해 회장), 8월 18일 평양 출발(8.18, 중앙통신)
- 앙골라 의사협회 대표단, 8월 18일 귀국(8.18,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 대표단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주코브스키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2014 오보론 엑스포’에 참가(8.19,자유아시아방송(RFA))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한봉희 「총련」 부국장), 8월 19일 귀국 (8.19,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미미나토(境港)시의 나카무라 가쓰지(中村勝治) 시장 21일 북한 방문(8.21,교토통신)
- 美 국회 및 對北 전문가들 속에서 ‘對北 전략적 인내정책 비판과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對北 정책전환’ 촉구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고 ‘핵무력 확대강화’ 지속 강조(8.22,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일꾼대표단(단장: 허명도 총련중앙상임위 부국장), 8월 23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父子동상 참배(8.23,중앙통신)
- 日 총무상 등 아베 내각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8.15)에 대해 ‘지난날의 제국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주장 (8.24,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연풍호 과학자휴양소 건설현장 시찰(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평안남도의 명승지 연풍호에 건설 중인 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황병서, 마원춘, 김정관이 동행하였으며 제267군부대 군인들이 맡고 있는 연풍호 휴양지 건설은 며 현재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완공된 북한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에서 “연구사업 방향을 바로 정하고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증체율이 높은 집짐승들을 더 많이 육종해 내고 널리 퍼뜨리며 여러 단위들에 선진축산기술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소개함.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차수), 김정관(인민무력부 부부장, 육군 중장) 이 동행하였으며, 새 집에 입사한 백성진, 윤성희 가정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것으로 전함.
- **北 김정은, 軍 식품공장 시찰…생산환경 개선 강조(8/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식품공장인 ‘11월2일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작업반을 돌아보고 자동화·무인화된 생산공정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원료공급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생산환경의 무균·무진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목표를 내걸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아버지 필체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다”(8/24, 조선예술;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4일 입수한 북한 월간지 ‘조선예술’ 최신호(7월호)에 실린 ‘만경대 가문의 혁명사상과 명필체’라는 제목의 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거의 똑같은 필체를 갖게 된 연유에 대한 김 제1위원장 본인의 말을 소개함.
 - 이 잡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장군님(김정일)의 필체인 백두산 서체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많은 품을 들였다고, 장군님께서도 내가 쓴 글을 보시고 자신의 필체와 신통히 같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였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박봉주(내각총리), 대안친선유리공장(평남 대안군) 현지요해(8/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박봉주 총리가 규격별에 따르는 판유리와 열선반사, 강질유리생산실태 등을 알아보고 협의회에서 갖가지 유리제품들을 국산화하는데서 기업소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능력확장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한 것으로 전함.

다. 공식 행사

- ‘선군절(8·25)’ 54주년(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선군절(8·25)’ 54주년 경축 여맹원들의 시와 노래 무대를 김정순(여맹 중앙위 위원장)·김진하(평양시당 비서)·현상주(직총 중앙위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진행하였다고 전함.
- ‘선군절’ 5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8/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선군절’ 5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24일 김영남·박봉주·리영길(보고)·현영철·김기남(사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4.25문화회관에서 진행하였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백두의 혁명전통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이다(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김일성·김정일로 계승된 “백두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며 ‘김정은 영도따라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향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간부들, 특혜 바라지 말고 겸손해야”(8/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온 사회에 사회주의 도덕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자’ 제목의 글에서 “일꾼(간부)들은 언어생활의 문화성을 높이고 그 어떤 특전, 특해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인민의 충복답게 언제나 예절 밝고 겸손해야 하며 군중과 기쁨도 아픔도 함께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하대하고 대중의 의견을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관료주의적인 사업태도는 우리 시대 일꾼들의 품모와 인연이 없다” 밝힘.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8월 18일 아시아 방문 후 평양 도착(8.18,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우봉상(여, 황해남도 웅진군)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8.18, 중앙통신)
- ‘김정은 지시’(미래과학자거리 다음해 태양절까지 건설) 관철 인민무력부 군인 쫓기모임, 8월 17일 현영철(인민무력부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8.18,중앙방송)
- 김보현(김정은 高祖父) 생일 143주년 즈음 8월 19일 ‘만경대 묘’에 김정은 화환 전달 및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족 부위원장)·강석주(黨 비서)·리철만(내각 부총리) 등 헌화(8.19,중앙통신·중앙방송)
- 「선군절(8.25,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시작일)」 54주년 즈음 김정일이 ‘95년부터 사망시까지 17년간 “무력부문 현지지도 단위수가 2,490여개에 달한다”며 “선군 혁명영도 업적” 찬양(8.22,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병국(수도건설총 부원) 등에게 ‘감사’(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 데 이바지) 전달(8.23,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잡지 “은행, 독자경영 기업 경영활동 통제해야”(8/24, 경제연구; 연합뉴스)
 - 북한의 경제 계간지 『경제연구』최신호(2014년 3호)는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란 제목의 논문을 싣고 최근 북한의 현실에 맞는 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논문은 은행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사회주의 은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고 화폐거래를 주로 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통제한다”고 밝힘.
 - 한편 북한은 올해 초 평양에 조선중앙은행 본점과 대외보험총국 산하 동북아시아은행 건물을 신축하는 등 최근 은행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선시에서 진행 (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나선국제상품전시회에는 北과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출품한 70여종의 6만 4,000여 점의 전기전자 제품과 의약품 등이 전시되었다고 소개함.

● 北, 나선특구 투자환경 “생산·무역에 유리”(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나선경제무역지대토론회가 지난 19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하며 토론회가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8월18~21일)에 참가 중인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은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개발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계획을 보여주는 편집물을 시청하였다고 21일에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네덜란드 대학 농업연수 프로그램 중단(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 진행하던 농업 연구원 연수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네덜란드 바게닝겐대학의 마텐 용스마 박사는 방송에서 북한의 농업분야 관리와 학자를 위한 이 대학의 연수프로그램이 올해 봄 학기에 잠정 중단된 후 지금은 영구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힘.

● 北, 러시아 기업에 IT 서비스 제공 제안(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러시아 IT 기업단체인 ‘정보통신·컴퓨터 기술산업협회’가 북측 요청에 따라 최근 2개월 동안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과 북한이 러시아 기업들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북한이 협회 측에 제출한 ‘평양광명정보기술사’ 명의의 제안서는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IT 서비스를 12개 분야로 나눠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의 ‘휴대용 엽록소 측정계’(식물체의 엽록소의 함량을 빛 투과 또는 반사원리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기구) 연구·개발 보도(8.18, 중앙통신)
-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을 지원(8.19,자유아시아방송(RFA))
-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미미나토(境港)시의 나카무라 가쓰지(中村勝治) 시장이 21일 북한의 라선시 방문 예정 (8.19,NHK)
- 북한이 정권수립일(9월 9일) 기념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출시(8.19,동방망(東方網))
- 중앙동물원 1단계 개건보수공사(50여개 대상 새로 건설·개건), 8월 18일 현재 ‘전반적 마감건축공사 80% 계선 돌파 및 20여개 동물사들 완공단계’ 등 성과 선전(8.19,중앙방송·노동신문)
- 자강도의 가을 누에치기에서 ‘봄 누에고치 생산계획 120% 초과 수행, 예성강 발전소건설 청년돌격대원들의 맡은 공사 80% 초과 등 건설성과 확대, 함경남도 경공업공장들의 8월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8.19,중앙방송·노동신문)
- 청년절(8.28) 즈음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청년들의 발명 및 새기술혁신안 출품), 8월 19일 장철(국가과학원장)·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개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8.19,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현철(나선시 인민위 경제협조국 부국장),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제4차 나선 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한 외국 기업가들은 호상 접촉을 통하여 효율적인 무역거래의 가능성을 토론하며 상품 수출계약도 맺고 있다’고 선전(8.20,중앙통신)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2월17일과학자들의 ‘27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먹이플랜 구성에 도입, 풀 생산량 증가에 기여’ 선전(8.22,중앙방송·노동신문)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도 4D 영화관 인기…신의주에 ‘3호점’ 건설중(6/19, 조선중앙통신; 8/4, 노동신문; 8/23,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지난 4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입체울동영화관’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북한 매체가 소개한 4D 영화관은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입체울동영화관과 강원도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영화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북한 최초의 4D 영화관인 능라인민유원지 입체울동영화관이 문을 연 것은 작년 9월이라고 연합뉴스는 23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능라인민유원지 입체울동영화관 개관 이후 ‘희망이여 나래치라’를 비롯한 영화 10편이 4D로 만들어져 상영됐다고

소개하였으며, 지난달 말 외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송도원국제소년단에 초청해 입체올림픽영화관을 비롯한 현대식 시설을 즐기도록 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박정주(男 62kg급 우승)·리성금·정춘희(女 48kg·53kg급 각각 종합 2위) 선수의 8월 18일 ‘제2회 청소년 올림픽경기대회(8.16~, 중국 난징 <南京>)’ 역도경기 善戰 보도(8.19,중앙통신·중앙방송)
-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8.11, 개막) 폐막식, 8월 19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진행 및 시상(8.19,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노동자 체육경기대회(8.20~29), 8월 20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개막(8.20,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3차 전국 낚시질 애호가들의 경기, 8월 21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8.21,중앙통신)
- 육해운성체육단의 조정·카누 등 종목별 선수들 훈련에 ‘새 교수훈련방법’ 적용,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우승컵 4개·50여개 금메달)·전승컵체육경기대회(140여개 메달) ‘입상성적’ 선전(8.22,중앙통신)

08.25-08.31

8 월

5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후속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인천아시아게임 서면협의 통해 재개(8.26)
- 국제사회, 한미군사훈련 문제 삼아야한다고 주장(8.26)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일부 벤젠중독 증세 주장(8.27)
-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 안하기로(8.28)
- 조평통 담화 등 UFG연습 끝나도 비난 지속(8.29, 8.31)
- 남북관계 개선 실천적 조치 촉구(8.30)

2. 핵문제 및 외교

- 가입 39주년 비동맹운동 강화·발전시킬 것(8.25)
- ‘퍼거슨 사태’ 비난(8.26)
- 위조화폐 본산지는 미국이며 ‘北위조화폐설’은 모략 주장(8.26)
- 北 최고재판소장, 러 검찰총장과 인권·테러문제 논의(8.30)
- 北 외무상 유엔총회 맞춰 15년만에 미국 방문(8.30)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북핵 다른 영국 TV 연속극 제작 비난(8.31)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공수부대 낙하산·타격 훈련 지도(8.28)
- 김정은 黨 제1비서, 실전훈련 마친 공수부대원과 기념사진(8.30)
- 김정은 黨 제1비서, 현대화공사 마친 일용품 생산공장 시찰(8.31)
- 러시아 대사에 김형준 임명(8.28)

4. 경제

- 北, 주민 영양개선에 총력(8.26)
- 생태·송이관광 계획 등 칠보산 꾸미기 박차(8.27)

5. 사회

- 평양 국제프로레슬링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8.31)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 안해”(8/28, 조선중앙TV)

- 손광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조선중앙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측이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시비하고 바라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함.
- 그는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데 대해 대남 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 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험담하다 못해 (심)지어 지난 7월에 진행된 북남 실무회담에서는 우리 응원단의 규모가 어떻다느니, 우리 응원단이 응원할 공화국기 크기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않은 비용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북남 실무회담을 끝끝내 결렬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함.
- 이어 “지난 8월 20일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추첨식과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남측 당국 관계자들에게도 이에 대해 이미 통지했다”고 덧붙임.

● 北 조평통, 한미훈련 중단 촉구…“南태도 지켜볼 것”(8/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전날 끝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고 남한 정부에 한미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미국을 끌어들여 별리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걷어치우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국제사회, 한미군사훈련 문제 삼아야”(8/26,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6일 ‘핵전쟁 연습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UFG 연습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제사회가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논평은 또 UFG 연습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조선에서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 계속되는 한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는 중단없이, 그것도 더욱 강력히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도 25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긴급 의제로 상정해달라는 서한을 다시 발송했다”며 국제사회가 UFG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UFG연습 끝나도 비난…“값비싼 대가 치러야”(8/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정례적인 군사적 대응은 자위적 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UFG 연습이 한반도의 초긴장 상태를 몰고 왔으며 “핵전쟁 위협소동을 단연코 끝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힘.
 - 신문은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는 글에서도 UFG 연습을 거론하며 남한 당국자들이 최근 ‘대화와 협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장본인이 미국과 남한이라고 비난함.

- 北 신문 ‘남북관계 개선’ 실천적 조치 촉구…“장벽 없애야”(8/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기존 남북합의 정신에 입각해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을 남측에 촉구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것은 “남측이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해체하지 않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이 있다”며 5·24조치 해제를 요구함.
 - 신문은 이어 지난 18일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통일부 성명을 언급하며 “북남관계가 이토록 침예한

국면에서 나온 남조선의 입장 표명에 대해 내외여론은 주목하면서 차후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힘.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탄도미사일 발사 3천t급 잠수함 개발했다(8/26, 워싱턴 프리 비컨; 8/27, 연합뉴스)

- 미국의 정치·군사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이 26일(현지시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면서 SLBM을 전력화하기 위한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개발에 성공해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아직 북한이 3천t급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징후가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제 퇴역 잠수함을 역설계해 3천t이상인 골프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일부 벤젠중독 증세 주장(8/27, 연합뉴스)

- 개성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근로자들이 발열,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공정의 작업이 중단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우리 측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에서 유해물질로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북측 주장이 제기됐지만 북한의 현장 역학조사 거부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인천AG 협의재개...응원단 문제는 일단 빠져(8/26, 연합뉴스)

- 북한 선수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사이의 서면협회가 26일 시작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6일 통지문에는 북한이 밝힌 273명의 선수단 파견을 받아들이며 남북간 왕래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이 제의한 서해직항로를 통한 왕래 방식에 동의하고 다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되었으나 응원단 파견 문제는 22일 북한이 우리 측에 전한 서한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이 관심하는 어떤 문제도 다 논의할 수 있다' 발언 등(통일준비팀 등 출범)을 "가면극을 펼쳐놓고 소란을 피우는 흥계"라며 '남한 당국의 실천행동(한미 군사연습 중단, 남북합의들 이행)' 주장(8.28,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이 '韓美 UFG를 강행하면서 대화를 제기하는 철면피의 극치'라며 "북남 관계 개선과 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건너치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8.31,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퍼거슨 사태’ 비난…“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국”(8/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퍼거슨 사태’를 지적하며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주민들이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암담한 인권유린국가”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기라도 한 듯이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기며 세계를 혼시하다가 이번에 제 집안에서 터진 일로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됐다”고 강조하며 “남의 집 일을 걱정하면서 간참하기보다는(끼어들기보다는) 광범한 국제공동체의 일치한 비난을 성근하게(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제 코나 찌는 것이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임.
- 北 국방위, 북핵 다른 영국 TV 연속극 제작 비난(8/31,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는 31일 영국의 상업방송 ‘채널4’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연속극 제작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제작 중단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위는 31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채널4의 계획을 거론하며 “영국 당국은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제작되고 있는 반동영화들을 지체없이 오물통에 처넣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채널4는 최근 영국인 핵 과학자가 북한에 억류돼 북한 핵무기 개발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의 연속극 ‘오퍼짓 넘버’(Opposite Number)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가입 39주년 비동맹운동 “강화·발전시킬 것”(8/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1975년 8월 25일 개최된 페루 리마 비동맹운동 외교장관 회의에서 비동맹운동 가입국이 된 것을 기념하여 ‘빨리불가담(비동맹)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걸어진 39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함.
 - 신문은 그동안 비동맹운동의 ‘주동적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빨리불가담운동의 원칙과 이념에 충실하며 빨리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감행하면서 힘으로 합법적인 정권들을 전복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위조화폐 본산지는 미국…‘北위조화폐설’은 모략”(8/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논평을 통해 美 위조화폐 제작, 유통시켜온 미국인 10명과 이스라엘인 3명 체포 관련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조화폐 제조국으로 걸고드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며 “공화국과 연계시켜온 위조화폐 설은 한갓 모략극,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함.

- “北-몽골 친선, 김정은 시대 외교 성과”(8/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북한-몽골 관계가 최근 강화됐다고 이를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시킴.
 - 조선신보는 27일 ‘메아리’ 코너에 실린 ‘조선과 몽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외교가 미국의 ‘포위말살정책’에도 확장되고 있다고 “몽골과의 우호관계 심화는 김정은 시대의 적극적 외교의 또 하나의 실례”라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美 하버드대 대학원생 40여명, 올 초 북한 방문”(8/27,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하버드대 공공정책·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법학·의학 실무진·학생 등 40여명이 지난 3월 일주일간 평양·개성·함흥·원산 등을 방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학생들의 전공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접목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방문으로 방문 기간에 북한의 교수·대학생들을 만나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RFA는 전함.
- ‘오바마 친구’ 美래퍼, 국제레슬링대회 관전 위해 방북(8/28, 로이터통신)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미국 유명 래퍼 프라스 미셸(41)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레슬링대회를 관전하기 위해 29일 방북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함.
 - 프라스 미셸은 1990년대 인기 있었던 혼성 3인조 힙합그룹 ‘푸지스’(Fugee) 멤버로 평양에서 일본 프로레슬러 출신 참의원 안토니오 이노키가 주관해 열리는 대회를 보기 위해 일주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선수였던 밥 샐이 출전하는 레슬링 경기 등과 무술 시범을 볼 예정이라고 함.
- 北외무상 15년만에 미국 방문…‘북미 관계’ 변화 촉각(8/30, 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맞춰 북한 방문단을 이끌고 미국 뉴욕을 찾는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는 것은 1999년 백남순 당시 외무상 이후 15년만이며 특히 리 외무상은 본인이 직접 유엔총회 각국 대표 기조연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되었다고 밝힘.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통신, 북일 어린이 그림전 보도…친선 부각(8/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능라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에서 북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고 황호남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과 요네다 신지 일본 유네스코협회연맹 이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지금 일조(북일) 사이에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다”는 요네다 이사의 발언도 비중 있게 소개함.
- “북일 외무성 최근 접촉…납치문제 중간보고 협의”(8/31, 교도통신)
 - 교도통신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이번 달 네 번째 주 후반부터 다섯째 주 초반 사이 극비리에 접촉했으며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과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이 참석했다고 31일 전함.
 - 통신은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화객선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 허용과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의 추가 해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지만 일본인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함.
 -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추가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납치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함.

사. 대러시아

- 러시아 외판 기차역에 ‘김정일 방문 기념’ 현판…왜(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러시아 아무르주(州) 부레야역(驛)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방문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고 27일 보도함.

- 현판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11년 8월 21일 부레야역에 오시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전함.
- 제막식에는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부총영사, 부레야역 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판에 헌화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사적 현판은 조선-러시아 친선의 상징”이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레야역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최고재판소장, 러 검찰총장과 인권·테러문제 논의(8/30, 러시아의소리 방송; 이타르타스통신)**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박명철 최고재판소장이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과 인권보장·테러척결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30일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차이카 검찰총장은 박 소장과 만나 인권·테러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관계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박 소장에게 러시아 검찰 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고 이 방송은 전함.

아. 국제기구

● **“북한 해운사 선박3척 이름 바꿔 제재회피 시도”(8/27, 산케이신문)**

- 유엔이 무기 운반을 이유로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시점을 전후해 관련 선박 3척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에 OMM이 선박관리자로 등록된 압록강호 등 화물선 2척은 이달 5~27일 명산 1호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유럽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OMM이 운항안전관리자로 등록된 또 다른 선박은 최근 수개월 사이에 북한 내에서 철룡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함.
- 신문은 선박 3척의 명칭이 잇따라 바뀐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 사이에서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교란행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英 정부, 北 언론인 인터넷 교육 지원”(8/27, VOA(미국의 소리))
 - 영국 외교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 기자들의 인터넷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전함.
 - 영국 외교부의 인권·민주주의 프로그램은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톰슨 재단을 통해 북한 기자들에게 인터넷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나 구체적인 예산과 교육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함.
-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45.8.24) 관련 ‘일본 정부의 조선인학살계획에 따라 조직 집행된 고의적인 집단살인 범죄사건’이라고 비난(8.26, 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유학생동맹대표단(단장: 박동호위원장)과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홍릉남 총련 오까야마현상공회 회장), 8월 26일 평양 도착(8.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 레이버당 전국정책연단 성원과 일행, 8월 26일 귀국(8.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존 케리 美 국무장관의 발언(北이 핵 포기하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가능) 관련 “흑백을 전도하는 논리”라고 비난하며 ‘北의 핵무기 보유와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8.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쿠바 외무성 대표단, 8월 27일 귀국(8.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대외관계상 고문과 일행, 8월 27일 평양 도착(8.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채무진(北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美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소년(마이클 브라운) 사망에 “함구무언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인권타령이야말로 남을 걸고들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고 비난(8.28, 중앙통신)
 - 日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단장: 기따하라 마모루 회장)과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김상규), 8월 29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8.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방북 日 이노키 의원, 北 김영남과 회담(8.30, 교도통신)
 - 미국의 ‘北 미사일 발사 우려(저강도 도발)’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미국이 진짜도발자’라며 “우리(北)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들은 앞으로도 더욱 강도높게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8.31,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공수부대 낙하산·타격 훈련 지도(8/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의 낙하산 훈련과 대상물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항공육전병부대 훈련 지도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및 제1부총참모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방관복 총참모부 제1전투훈련국 국장,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등이 동행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실전훈련 마친 공수부대원과 기념사진(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전훈련을 마친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이번 기념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및 제1부총참모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방관복 총참모부 제1전투훈련국장,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박태수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등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제323·162·252군부대 소속 육전병과 항공 및 반항공군 제858부대 비행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꾼”이 돼야 한다고 군인들을 격려했.
- **北 김정은, 현대화공사 마친 일용품 생산공장 시찰(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개월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10월8일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제593대연합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제462군부대에 감사를 줬으며 공로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라고 지시한 뒤 공장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31일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홍영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駐러시아 대사에 김형준 임명...8년 만에 교체(8/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김형준 동지가 임명됐다”고 보도함.
- 북한의 러시아 주재 대사 교체는 2006년 9월 박의춘에서 김영재로 바꾼 이후 처음으로 김형준은 김정은 정권이 임명한 첫 러시아 대사이기도 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청년절 맞아 주요 간부들 공장과 농장 등에 나가 청년학생들 축하(8/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영남·박봉주·김기남·최태복·최룡해·박도춘·양형섭·강석주·김평해·곽범기·오수용·로두철과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이 8월 28일 김일성종합대학·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공장·농장 등에 나가 청년학생들 축하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北 ‘선군절’ 맞아 곳곳 무도회·공연...축제 분위기(8/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 등 평양 시내 곳곳에서 선군절을 기념하는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열렸고 지방 각 도에서도 선군절 경축 무도회가 펼쳐졌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TV도 25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군협주단이 ‘승리는 대를 이어’라는 제목의 음악무용공연이 열렸다는 소식과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당·정·군 수뇌부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충성’ 인민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8월 25일 쌍운리 혁명사적지에서 진행(8/26,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참가 한 가운데 인민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고 26일 전함.
-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및 결의대행진(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및 결의대행진을 김영남·최태복·최룡해·전용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하였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김정일 선군정치 띄우며 ‘김정은 정통성’ 선전(8/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5일 6면 전면에 걸쳐 선군절과 관련된 사진과 글을 실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역사’를 잇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촉구함.
 - 1면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운 선군정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계승한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 조국이 인공위성 제작·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며 선군혁명 사상을 이어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지시, 8월 24~25일 평양시 탁아소·유치원들과 육아원·애육원·미림학원 어린이들에게 금수산태양궁전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송이” 전달(8.25,중앙통신·중앙방송)
- 두단오리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8월 26일 광범기(黨 비서, 당 중앙위 촉하문 전달)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8.26,중앙방송)
- 청년절 경축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폐막식, 8월 2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26,중앙통신)
- 제10차 전국 농업근로자 민족체육경기대회 개막식, 8월 26일 모란봉유원지에서 진행(8.26,중앙방송)
- 양형섭·리수용(외무상), 8월 26일 쿠바 외무성 대표단(단장: 헤라르도 빼날베르 뽀르팔 쌍무총국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8.26,중앙통신)
- 강석주(黨 비서), 8월 26일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대표단(단장: 안토니오 라찌 이탈리아공화국 국회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과 담화(8.26,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텔레비전극 창작사 배우들에게 ‘감사’ 전달(8.27,중앙방송)
- ‘햇불컵 축구’ 결승경기, 8월 28일 양각도축구경기장에서 진행 및 최룡해(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영훈(체육상)·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관람(8.28,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시 ‘4대교양(김정일 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계급교양·도덕교양)’에 관한 「직맹」일꾼들 연구토론회, 8월 28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직맹」일꾼들과 노동계급·「직맹」원들 참가한 가운데 개최(8.28,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8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체코·불가리아·폴란드·영국·독일·루마니아·스웨덴 외교 대표들 면담(8.28,중앙통신)
- 전국 노동자 체육경기대회 폐막모임, 8월 29일 최룡해(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8.29,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기술개건 정형 현지요해(8.30,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8권(1964년 4월부터 1965년 6월까지 발표한 120건의 저작들 수록) 출판(8.30,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순조(김일성고급당학교 명예교수) 등 2명에게 80회·최학숙(중구역 서문동)에게 70회 ‘생일상’ 전달(8.31,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칠보산 ‘꾸미기’ 박차…생태·송이관광 계획(8/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이 칠보산지구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북한이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등 3개 지구에 대한 생태관광 계획을 재작성하고 있다며 “유기과수농장관광, 송이버섯수확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내놓을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소개함.
- 이밖에 지구 내 협동농장에서 과일 생산을 늘려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6개 수산사업소에서 생태양식기지를 꾸려 칠보산 전통수산물인 다시마, 미역의 증산과 품질향상”을 꾀할 계획이며 생물다양성 전반을 보존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잡지 “돌격대식 공사 부실 우려”…질적 성장 강조(8/31, 경제연구; 연합뉴스)

- 북한 계간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2014년 3호)에 실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북한산 소비품과 건축물의 부실한 점을 거론하며 “질적 성장에 소홀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라고 지적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논문은 또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서 재질적 요구가 보장되지 못한 대용품을 써서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현상”도 지적하며 “인민 생활과 건강에 해를 주는 불량상품이나 우리 식이 아닌 제품들이 생산돼 나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단백질 섭취 늘리자’…北, 주민 영양개선에 ‘총력’(8/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북한이 최근 주민 영양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인들의 영양섭취에 우선중점을 두고 이달 들어 관련 현장을 시찰하며 군인복지 향상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전함.
 - 뉴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24일 군 소속 식품공장인 ‘11월2일공장’을 방문, 이에 앞서 사흘 전 군 소속의 초식가축 육종장 시찰, 올해 1월 군인 보급을 전담하는 군 후방총국 지휘부를 시찰에서 모두 단백질 섭취를 강조했다고 전함.
 - 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건강식품연구실에서 흰쌀보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3배나 높은 ‘기능성감자콩쌀’을 새로 연구개발하고 강원도 세포등판의 대규모 축산단지를 건설하는 등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여전히 단백질 등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 지난달 중국산 쌀 수입 급증…작년보다 115% 증가(8/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중국산 쌀을 대거 수입했다고 전함.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7월 북한에 수출한 쌀은 701만9천738달러(약 71억원) 어치, 1만1천780t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6월 수입액 457만 5천587달러보다 53% 늘었고 작년 7월 327만 1천67달러보다 115%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임.
 - 뉴스는 지난달 중국산 쌀 수입증가는 시장의 쌀값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일 수 있으며 올해 쌀 수확이 가뭄 등으로 작년보다 나쁠 상황에 대비해 수입량을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함.

● **평양 호텔에서 팩스 1장 보내는데 7달러…왜 비쌀까(8/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평양의 고려호텔과 양각도호텔이 제공하는 팩스 사용료가 너무 비싸 외국인들이 불만이라고 소개함.
- 방송에 따르면 호텔 로비의 통신센터에서 팩스 한 장당 5유로, 즉 7달러(약 7천원)를 받으며 이는 미국의 최고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보다 훨씬 비싸 외국인들은 대동강구역에 있는 유엔 기구 사무실이나 외국대사관에 들어가 팩스를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함.
- 방송은 북한이 외국인에게 팩스 요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외화를 많이 벌려는 목적이 크며 또 폐쇄적인 사회인만큼 외부와 소통하는 수단은 다른 재화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함.

● **北 평양 시민도 집에서 백화점 주문상품 받는다(8/31, 조국;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최신호(9월호)의 ‘목표는 인민들의 만족’이라는 글을 인용해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상점인 평양제1백화점이 서비스 개선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 잡지는 판매원들이 인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주문된 상품을 가정이나 현지에 직접 가져다 판매하고 있으며 또 평양제1백화점 직원들이 화력발전소, 탄광, 방직공장,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에 직접 나가 노동자, 농민에게 상품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독일 정부, 北 결핵·간염환자에 6억원 지원(8/26, 미국의소리(VOA))**

- 독일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45만 유로(약 6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함.
- 방송은 독일 정부가 지난 14일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독일카리타스’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이 금액을 제공했으며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함.

- **“북-러 루블화 결제 지연…기술적 문제 탓”(8/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무역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를 인용해 27일 보도함.
 - 양국은 루블화 결제를 지연시킨 ‘기술적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준비 부족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고 RFA는 전함.

- **북한 ‘10월 단둥박람회’에 500명 파견…“작년 수준”(8/28, 중국신문사)**
 - 북한이 오는 10월 16~2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열리는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 지난해와 같은 500명의 참가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중국신문사가 28일 보도함.
 - 신문은 지난 2012년 시작된 북·중 간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이 행사에 북한은 올해 100여 개 무역업체 관계자 300여 명을 비롯해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단과 여행사 관계자, 공무원 등을 참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함.
 - 박람회는 양국기업 상품전시, 경제·무역상담, 문화교류, 관광협력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세부행사로는 메인행사인 북·중 상품전람회, 북·중 무역전시판매기지교역회, 북한미술품전시회, 북·중관광협력상담회 등이 열릴 것이라 신문은 보도함.

- **북한, 볼보車 1천대 수입대금 4천억원 40년간 연체(8/29, 뉴스위크)**
 - 북한이 지난 1970년대초 스웨덴 볼보로부터 수입한 144GL 세단형 승용차 1천대분의 대금을 아직도 갚지 않아 스웨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9일 보도함.
 - 뉴스위크에 따르면 북한이 지급해야 할 대금은 이자와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30억 스웨덴 크로네(약 4천9억원)를 넘으며 수출보증을 선 스웨덴 정부기관의 장부에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남아있으며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청 관계자는 해마다 2차례씩 상황을 독촉하지만 “잘 알다시피 북한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함.

- 北 이과대학, 윤전기재의 내연기관 성능을 즉시에 전달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였다고 선전(8.26, 중앙통신)
- 전국 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김일성종합대학 등과 과학·체신부문 공장·기업소 과학자 등 참가), 8월 26일~28일 남포시 정보통신국에서 진행 및 '체신의 현대화를 위한 180여건의 성과자료' 제출(8.28, 중앙통신)
- 리과대학의 '초산에틸' 생산기술 새로 개발 및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도입 결과, '생산실수를 보장, 제품의 질 개선' 등 선전(8.28, 중앙통신)
- 전국 이름난 술 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8.28~29,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강원도 문천식료공장에서 진행(8.29, 중앙통신)
- 평양시,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리기 위한 단장 사업 진행(8.29, 중앙방송)
- 은률·재령광산의 8월 30일 현재 쇠돌 생산계획 각각 100.1%·110% 수행 및 대흥단군에서 '밀보리 수확' 시작 보도(8.31,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에선 영화배우도 조기교육…중등과정 배우반 눈길(8/26, 예술교육; 연합 뉴스)
 - 연합뉴스는 평양의 창광중학교 조기 배우반에 대한 기사가 실린 북한의 격월간지 ‘예술교육’ 최신호(2014년 4호)를 인용해 영화 배우 조기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보도함.
 - 이어 조기배우반 학생들은 영화와 연극 등에 아역으로도 많이 출연하며 북한에서 가장 관록 있는 조기배우반은 평양 창전중학교 배우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뉴스는 탈북자 인터뷰를 인용해 조기배우반이 있는 창광중학교, 동흥중학교, 창전중학교는 모두 상류층이 모여 사는 중구역에 있고 이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중앙당 간부나 군 고위간부의 자녀라고 밝힘.

- **北도 생활체육 ‘열기’…평양서 체육공원별 배구대회(8/27, 조선신보)**
 - ‘체육 열풍’이 불고 있는 북한에서 생활체육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별로 팀이 조직돼 대항전까지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함.
 -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양 시내 곳곳에 배구장이나 농구장 등을 갖춘 ‘체육 공원’이 들어서면서 공원별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체육팀이 만들어졌으며 공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19년 만에 프로레슬링대회 TV예고로 ‘분위기 업’(8/2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26일 오후 오는 30~31일 평양에서 19년 만에 열리는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예고 영상을 26일 내보냄.
 - 중앙TV는 링 위에서 몸을 날리며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프로레슬러들의 공격 장면을 연이어 보여주는 한편 또 밥 샐(미국), 제롬 르 밴너(프랑스), 피터 아츠(네덜란드) 등 해외 유명선수들의 표정 사진을 일대일 대결 구도로 잇달아 편집하기도 함.

- **도심서 수영복 입고 ‘비치발리볼’…달라지는 北(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바닷가로부터 도시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래터 배구(비치발리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수욕장에서 인기를 끌던 비치발리볼이 도심 물놀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평양 만경대구역에 마련된 경기장을 소개함.
 - 김충관 평양시 만경대구역 인민위원장은 통신과 인터뷰에서 “얼마 전 100여t의 모래를 실어와 3일 만에 배구장을 만들었다”며 “모래터 배구는 해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최근 물놀이장마다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국제프로레슬링대회 개막…“국가 간 연대 강화 계기 기대”(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국제프로레슬링대회가 30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개막식에는 김영훈 체육상,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장웅 국제무도경기위원장, 박근광 조일우호친선협회장, 김명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노키 의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오랜 기간 닫혔던 일조 관계의 문이 열리고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선수들, 8월 29일 제2차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중국) 참가 후 귀환(8.29,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8월 29일 평양 국제프로레슬링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예술공연’ (동평양대극장) 진행(8.29, 중앙통신)
- 평양 국제레슬링경기대회 폐막식, 8월 31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김영훈 (체육상)·이노키 간지(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장웅(국제무도경기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 및 제2일 경기 시상(8.31, 중앙통신·중앙방송)

7·8월

북한동향 일지

<7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7.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2중3대혁명붉은기 화도 방어대 시찰 및 군인들 가족들과 기념 촬영
7.3, 중방·중통·평방	송일호 외무성 대사, 7. 1 北-日 회담 참가
7.2,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 능력 판정훈련 지도
7.2, 중방·중통	리수용 외무상, 알제리 등 아프리카와 아랍국가 방문 후 귀환
7.3, 중방·중통	황병서(軍 총정치국장·차수), 7월 2일 련철성(육군 중장) 등 배석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 주요 지휘성원·배우들 면담 및 '김정은의 축하 인사' 등 전달
7.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7월 4일 일본 출신 '영송민옥'氏(남포시 항구구역 상비석동 거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
7.4, 중통	박봉주 내각총리, 위성과학자거리 건설과 5월1일경기장 개건정형을 현지요해
7.5,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 상륙전투훈련 지도
7.5,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을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7.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현지지도
7.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웅도방어대 시찰
7.7, 중통	박봉주 내각 총리, 평안북도 정주시 침향협동농장과 운전군 운하협동 농장을 현지요해
7.7, 중방·중통	7월 7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성명 발표
7.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 사망 20주기를 맞아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7.8, 중방·중통	김일성 사망(7.8) 20주기 중앙추모대회(평양체육관 실황중계), 7월 8일 김정은 黨 제1비서 및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추모사)·김기남(黨 비서/사회)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
7.8, 중방·중통	노동당·국방위, 7.9 전병호(88세, 육군 대장·무장장비관 명예관장) 사망(급성심 근경색) 부고 및 국가장의위원회(위원장: 김정은, 위원: 김영남 등 88명) 구성 발표
7.10,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7/9 전병호 영구 조의 방문
7.10,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전략군 서부전선 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 발사훈련 현지지도
7.10, 중방·중통	리수용 외무상, 7월 10일 주북 브라질 대사(로베르트 콜린)와 담화
7.11, 중방·중통	故 전병호 장례식, 7월 10일 김영남·황병서·현영철(애도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7.1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지도
7.11, 중방·중통	강석주(黨 비서·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 7월 11일 訪北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단장: 이노키 간지 참의원) 면담 및 박근광(黨 부부장·조일우호친선협회 회장) 등 배석
7.14, 중방·중통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남포시 '홍수피해 예방 사업' 요해 및 협의회(대동강 준설작업 실태·수문관리 정형 등) 진행
7.1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최전연 인민군 제171군부대직속 민경초소와 군부대관하 2대대 3중대 초소 시찰 및 제171군부대 포실탄 사격훈련 지도

보도일자	내용
7.1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천아포수산연구소 현지지도
7.1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지도
7.1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1521 기업의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기관직장 현지지도
7.18,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7.19, 중통·평방	박봉주 내각 총리, 7월 19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관련 말레이시아 총리 (나집 라작)에게 위문 전문
7.20,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천아시아게임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검열경기 지도
7.22, 중통	박봉주 내각총리, 함경남도 함흥시 내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소·흥남 제약공장 현지 요해
7.23, 중통	평양시·황해남도·남포시·평안남북도 일부 지역들에 '경제개발구 지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7.23) 발표
7.24, 중방·중통	계춘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거 인도주재 대사로 임명
7.2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1947년 창설) 현지지도
7.24, 중방·중통·평방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신의주에서 진행된 김일성父子 동상제막식 참가
7.25,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 건설사업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7.25, 중방·중통	박봉주 내각총리, 정전협정체결일 즈음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참관
7.26, 중방·중통	7/24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 선출된 장-클로드 융커에게 축전 발송 및 北-EU 친선협조관계 발전 확신 표명
7.2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원산구두공장 현지지도
7.2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도로관리원들에게 감사 전달
7.2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7월 1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61호) 하달
7.26, 중방·중통	'정전협정 체결(조국해방전쟁승리, 7.27)' 6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7월 2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
7.2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7/26 인민군 전략군의 로켓 발사시험 현지지도
7.2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정전협정 체결(조국해방전쟁 승리) 61주년 즈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7.2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4·25팀과 압록강팀의 남자 배구경기 관람
7.2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7/27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참전열사묘를 찾아 인민군열사들에게 경의표시
7.2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관람
7.29, 중방·중통	제13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7월 29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승두(교육위원장)·장철(국가과학원장)·최상건(국가과학기술 위원장/개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개막
7.3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새살림집에 입주한 고산과수농장 종업원들에게 '문화용품' 선물

<8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8.1, 중방·중통	김정일의 '전 당 김일성주의화 방침' 제시('74.8.2)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8월 1일 4·25문화회관에서 김영남·김기남(보고)·최태복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
8.2, 중통	박봉주 내각총리, 중석화협동농장(평남 대동군)·협동농장·농기계작업소 현지요해
8.3,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천리마타일공장 현지지도 및 노력혁신자들과 기념촬영
8.3, 중통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84.8.3) 30주년 기념보고회, 8월 3일 김기남·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보고)·안정수(당중앙위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8.5,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천지운활유공장 현지지도
8.7,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평양양말공장 현지지도
8.8, 중방·중통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원군 산림경영소 양묘직장 시찰
8.9, 중방·중통	김영남·박봉주를 비롯한 국가 책임일꾼들, 8월 9일 천지운활유공장 참관
8.10,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전동렬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8.12,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여자축구 검열경기 지도
8.13,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건설장과 평양육아원·애육원 건설장 현지지도
8.14, 중방·중통	제17회 인천 아시아게임'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 축구 검열경기(국가종합팀 對 기관차팀), 8월 1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및 황병서·최룡해·김영훈(체육상) 등 관람
8.15,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전술로케트탄 시험발사 지도(황병서·리영길·변인선·박정천·홍영철 동행) 및 새로 조업한 갈마식료공장(한광상 동행) 현지지도
8.18,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 현지지도
8.18, 중통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월 18일 조정호(나선시 인민위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나선시에서 개막
8.20, 중통	박봉주 내각총리, 대안친선유리공장(평남 대안군) 현지요해
8.21,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
8.21, 중통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토론회, 8월 19일 현지에서 진행
8.23, 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김병국(수도건설총 부원) 등에게 '감사'(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 데 이바지) 전달
8.23,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인민군 11월2일공장 현지지도
8.25, 중방·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지시, 8월 24~25일 평양시 탁아소·유치원들과 육아원·애육원·미림학원 어린이들에게 금수산태양궁전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송이' 전달
8.25, 중통	'선군절(8.25, 김정일 선군혁명영도 시작일)' 54주년 관련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업적' 찬양 및 경축 행사 진행
8.26, 중통	양형섭·리수용(외무상), 8월 26일 쿠바 외무성 대표단(단장: 헤라르도 빼날베르 뽀르말 쌍무총국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축출 담화
8.26, 중통	강석주(당 비서), 8월 26일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대표단(단장: 안토 니오 라찌 이탈리아공화국 국회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과 담화

8.27,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텔레비전극 창작사 배우 등에게 '감사' 전달
8.2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항공육전병 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 타격 실동훈련 지도
8.28, 중방·중통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및 결의대행진, 8월 27일 김영남·최태복·최룡해·전용남 ('청맹' 중앙위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8.28, 중방·중통	김형준, 駙 러시아 北 대사 임명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정령' 발표
8.28, 중방·중통	강석주 黨 비서, 8월 28일 '안토니오 이노키(일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 일행 면담
8.28, 중방	리수용 외무상, 8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체코·불가리아·폴란드·영국·독일·루마니아·스웨덴 외교 대표들 면담
8.28, 중앙TV; 8.29, 중통·중방	손광호(북한 올림픽족 부위원장), 8월 28일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9.19-10.4)에 "북한 응원단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 표명
8.30, 중방·중통·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육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 타격 실동훈련 (8.27~29)에 참가한 군인들과 기념촬영
8.30, 중방·중통	박봉주 내각 총리,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기술개건 정형 현지요해
8.30, 중방·중통	김영남, 8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이노키 간지'(일본국회 참의원이며 일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와 담화
8.3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10월8일공장(일용품 생산 공장) 현지지도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